

<정기총회 자료집>

【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

광주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 일시 : 2014년 1월 21일(화) 18:30
- 장소 : 광주환경연합 5층 강당(북동신협 5층)

광주환경운동연합
| <http://gjkfem.or.kr>
| 트위터 @gjkfem 페이스북 gjkfem

■ 정기총회 식순	_04
■ 2013년 활동일지	_05
■ 감사보고서	_25
■ 2013년 사업보고(안)	_33
■ 2013년 재정결산(안)	_111
■ 2014년 조직구성(안)	_123
■ 2014년 사업계획(안)	_127
■ 2014년 예산(안)	_159

[부록]

■ 성명서·논평 등	_169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_209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_235
■ 회원 생활수칙	_243

정기총회 식순]

■ 식전행사

- 회원 시낭송
- 활동영상

■ 1부 Ⅱ 총 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 제2안 _ 2013년 사업 및 결산 안
-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 제4안 _ 2014년 사업 및 예산 안
- : 제5안 _기타 안건
- 폐회

■ 2부 Ⅱ 시상식 및 다과

- 녹색회원상 시상 및 감사패 증정
- 다과

2013 활동일지

1월

1월 2일	시민사회 합동 사무식 및 5.18국립묘역 참배
1월 3일	집행위원 연석회의 및 사무처 사무식
1월 6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총회 및 정기 답사
1월 8일	전남도지사의 무등산케이블카 및 전망대 설치 발표 반대성명
1월 11일	'한땀두땀' 바느질 정기모임
1월11~13	어린이 겨울캠프 "지리산 산골마을의 겨울나기"
1월 14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1월 15일	대통령 인수위 토건사업 중단 촉구제안 성명
1월 17일	기후보호포럼 회의
1월 17일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마련 주민협의회 회의 참여
1월 18일	'한땀두땀' 바느질 정기모임
1월 18일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른 성명발표
1월 18~19일	광주전남 환경연합 임위원 활동가 수련회
1월 20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뻑' 총회
1월 22일	집행위원회 회의, 북구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1월 23일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제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월 24일	박준영 전남지사의 4대강사업 찬동입장에 대한 광주전남환경연합 공동 성명 발표
1월 29일	2013 정기총회
1월 30일	'한땀두땀' 바느질 정기모임

2월

2월 1일	광주시 생태지도 종합DB구축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보고회 참석
2월 3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 답사
2월 4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2월 6일	전남도 기후에너지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2월 6일	'한땀두땀' 바느질 정기모임
2월 7일	4대강사업 대응 - 영산강 보로 외래어종 폭발적 증가 및 생태계교란 야기에 대한 성명
2월 7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2월 8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1호 발송
2월 11일	민주인사 시민사회 합동세배
2월 15일	푸른광주21협의회 4차의제 실천사업 준비 간담회 참여
2월 16일	4대강사업 대응 - 영산강 조사(담양습지~죽산보)
2월 1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013년 정기총회 참여
2월 18일	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 참여
2월 20일	활동가 공채 - 신입활동가 첫 출근(박병인, 박지연)
2월 21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 모임
2월 22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2월 27일	사진반 디지로그 총회
2월 27일	수완중 기후에너지 교육회의
2월 27일	지리산 피아골 댐(내서댐) 반대 - 댐 예정지 답사
2월 27일	4대강사업 대응 - 대체습지 조사
2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 신입 임원 간담회 참여
2월 28일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2013 운영회의(중국 북경)
2월 28일	4대강사업 대응 - 죽산보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2월 28일	농지침수 지역 수질조사(침수지역 물, 하천수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3월

- 3월 3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 3월 4~9 신입활동가(박병인, 박지연) 전국수련회 참여
- 3월 7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3월 7일 복구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 3월 9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추모와 우정의 탈핵 축제 참가(서울시청 광장)
- 3월 11일 후쿠시마 2주기 기자회견(충장로 입구)
- 3월 12일 일본 핵 다큐사진작가 모리즈미 다카시 초청 강연회 "Nuclear Blue 후쿠시마"
- 3월 1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단 간담회 참여
- 3월 15일 SWEET 2013 에너지전 기념 정책세미나
- 3월 15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 3월 15일 푸른광주21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참여
- 3월 16일 탈핵캠페인 : 무등산 문빈정사 앞
- 3월 17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모임
- 3월 18일 영산강 네트워크 총회 참여
- 3월 21일 광주·전남·전북 탈핵행동 연석회의(영광)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주암호 주변 정화활동, 성명서 발표
- 3월 24일 탈핵캠페인 : 무등산 문빈정사 앞
- 3월 26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 3월 26일 탈핵학교1- “탈핵의 정치-우리사회에서 탈핵 로드맵 그리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3월 27일 정보공개청구 강의 참여
- 3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단 간담회 참여
- 3월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3월 정기운영위원회 참여
- 3월 30일 탈핵캠페인 : 무등산 문빈정사 앞

4월

- 4월 2일 탈핵학교2-영광지역의 탈핵운동(주경채 영광군 농민회장)
- 4월 3일 정보공개청구 강의 참여
- 4월 4일 350캠페인 회의 진행
- 4월 4일 집행위원회 4월 정례회의
- 4월 5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 4월 5일 푸른길 식목행사 지원
- 4월 5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 4월 7일 회원모임_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 4월 8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통권 174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4월호 발송
- 4월 9일 탈핵학교3- ‘아름’ 에 깃든 원자력신화, 핵무장의 비밀(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 4월 9일 순천습지국제회의 준비-박병인 파견(~11일)
- 4월 10일 정보공개청구 강의 참여
- 4월 11일 영광 3호기 관련 광주·전남·전북 연석회의의 3차
- 4월 12일 수완중학교 에너지 교육
- 4월 13일 영광 3호기 관련 독일 탐방, 박상은 팀장 파견(~22일)
- 4월 16일 탈핵학교4-김성원 적정기술
- 4월 16일 남구 쓰레기 매립장 방문-박미경, 박지연
- 4월 16일 350광주 캠페인 발대식
- 4월 17일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마련 주민협의회 소위 회의
- 4월 18일 정용식 집행위원장 하수처리장 일일소장 행사
- 4월 18일 환경공단 일일 명예소장 행사(이근우 고문)
- 4월 18일 환경청 일자리 협약식
- 4월 19일 지구의 날 주간행사 - 미래에너지, 일곡도서관 일대(태양광 키트 만들기, 탈핵영화상영)

4월 19일 전국 국처장단 회의 참석
 4월 19일 기린아 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4월 20일 지구의 날 기념행사-일곡동, 350캠페인
 4월 21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답사
 4월 22일 순천습지국제회의의 참여
 4월 22일 광주도시공원위원회 심의회의 참여
 4월 22일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관리협의회 회의의 참여
 4월 23일 탈핵학교5-비핵 아시아 구축을 위해(아마구치 이즈미)
 4월 24일 광주 시청사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추진 T/F팀 회의 참여
 4월 25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의 참여
 4월 26일 수완중학교 에너지 교육
 4월 27일 회원모임_ '일곡·양산회원모임' 정기모임

5월

5월 2일 집행위원회 5월 정례회의
 5월 3일 동산초등학교 광주천 생태교육
 5월 6일 핵폐기물 재처리 공론화 위원회 참석(대구)
 5월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자문회의 개최
 5월 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광주YMCA)
 5월 9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5월 9일 시민단체협의회 주관 지방선거토론회 참석
 5월 10일 소식지 '밝은삶 밝은터' 통권 175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5월호 발송
 5월 11일 회원모임_일곡양산회원모임 - 딸기따기 체험

5월 13일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
 5월 14일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분리배출 현황 현장 조사 간담회
 5월 16일 5·18민중항쟁 33주년 시민사회단체 합동참배
 5월 16일 생생기후투어 예비답사
 5월 17일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과 인권> 개최
 5월 17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답사-완도 청산도
 5월 18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 참석
 5월 20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예비답사(화순)
 5월 20일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 출범식 및 피해증언대회 참가
 5월 22일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 조사 워크샵 참가
 5월 23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위원회 기자회견 참여
 5월 24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5월 25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동물들과 친구되기 1
 5월 26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한줌' 텃밭 가꾸기
 5월 27일 영광 탈핵을 위한 보도순례 참가
 5월 27일 전라남도교육청 원자력 공모전 규탄 기자회견
 5월 28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워크샵
 5월 28일 광주 시청사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추진 T/F팀 회의 참여
 5월 30일 기후변화 환경 토크 콘서트
 5월 30일 전국시민환경연구소 협력회의
 5월 31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6월

6월 1일 생생기후투어1 - '기후변화와 식생변화의 현장을 찾아서'
 6월 2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6월 3일 2013 지역여성단체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교육 참가(박지연 활동가)
 6월 4일 지도위원회 회의
 6월 4~5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 조사 불시(미고지)조사 진행
 6월 5일 1365자원봉사포털 교육 참가
 6월 5일 회원모임_재활용 바느질모임 '꼬메르' 정기모임
 6월 5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한세봉 관통 반대)서명운동
 6월 6일 집행위원회임원.활동가 합동야유회
 6월 7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6월 7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6월 7일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마련 주민협의회 소위 회의
 6월 8일 중앙공원 만인화 행사 진행
 6월 9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모내기
 6월 10일 기후보호포럼(수원에너지주식회사-에너지:기후시대의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사업)
 6월 10일 전국사무처 국처장단 회의 참석
 6월 10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2호 발송
 6월 11일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 조사 정기조사 진행
 6월 11일 2013 지역여성단체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교육 참가 (선진지 탐방-성미산마을공동체, 희망제작소 등)
 6월 12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통권 176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 발송
 6월 13일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 조사 정기조사 진행

6월 14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6월 14일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제3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참석(중국 항주, 임낙평 공동의장 등)
 6월 15일 회원모임_일곡양산 정기모임
 6월 16일 일본 하천살리기 시민운동가 10명 영산강 방문(일본 나고야 나가라가와(강) 하구댐 대응 단체)
 6월 18일 생생기후투어2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변화의 현장을 찾아서' 예비답사
 6월 18일 전국동시하천 모니터링 광주천 상반기 조사
 6월 18일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3차 회의 참석
 6월 18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6월 19일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1강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6월 19일 회원모임_재활용 바느질모임 '꼬메르' 정기모임
 6월 20일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쓰레기 현황 조사 분과장 회의 참여
 6월 20일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2강-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사막화, 우리나라는 사막화의 피해국인가?(이태일)'
 6월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조사 실시(중앙동-임동, 유동 일대)
 6월 21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 교육'
 6월 22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구례섬진강 일대
 6월 2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기자회견 참여(광주 국가정보원 앞)
 6월 24일 에너지 시민연대 절전캠페인 참가(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6월 24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동물들과 친구되기 2
 6월 25일 나주시 봉황면 만봉저수지 일대 현장조사

6월 25일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쓰레기 현황 조사 회의

6월 26일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3강 - '바다의 위기, 인류의 위기 (류종성)'

6월 26일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과 기념포럼 참여

6월 27일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4강 -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변화(김진태)'

6월 28일 청소년자원봉사(두볼넷) 포털교육 참가

6월 28일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쓰레기 현황 조사 실시(중흥1동 일대)

6월 28일 수완중학교 에너지 교육

6월 28일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6월 29일 생생기후투어2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변화의 현장을 찾아서'

7월

7월 1일 푸른광주21협의회 대기질회의

7월 1일 광주친·영산강회의(모래톱)

7월 2일 자원순환마을 사업 회의

7월 2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3호 발송

7월 3일 민선 5기 시정평가 워크숍

7월 3일 기후강좌5 - 기후변화가 농업 및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최시영 7월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7월 4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7월 4일 기후강좌6 -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7월 4일 북부순환도로 노선재검토 회의 참석

7월 4일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 참여

7월 4일 세계 도시환경 인권포럼 평가회의 참석

7월 5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7월 5일 회원모임_ '시사모' - 나희덕 시인 초청강연

7월 7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7월 8일 에너지시민연대회의(에너지의 날 준비)

7월 8일 절전캠페인 - 유스퀘어광장

7월 9일 한일청소년국제에너지캠프 준비 - 무안함평 예비답사

7월 9일 광주 시청사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추진 T/F팀 회의 참여

7월 10일 기후강좌7 -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축(이효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7월 10일 한일청소년국제에너지캠프 준비 - 영광, 고창, 선운사 예비답사

7월 11일 기후강좌8 - 기후변화의 경제와 국제협상(이상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월 11일 영산강 도보순례 - 영산강아 생명의 강으로 흘러라 (~16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우원식 국회의원, 영산강네트워크 공동 주최)

7월 11일 기후변화대응센터 어린이 캠프 참가(통영 연대도,~12일)

7월 12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7월 13일 생생기후투어 - 녹색건축과 신재생에너지를 찾아서(광주)

7월 13일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수료식

7월 15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통권 177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7월호 발송

7월 16일 민선 5기 시정평가 기자회견

7월 16일 영산강 토론회 -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7월 16일 환경통신원 대기질교육(정원삼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대기과장)

7월 16일 오염원배출업체민관합동 조사

7월 17일 광주시민협 주관 민선5기 시정평가 발표 참여

7월 17일 오염원배출업체민관합동 조사

7월 18일 자원순환 마을 회의

7월 18일 오염원배출업체민관합동 조사

7월 19일 기린아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7월 19일 2013민관정책워크숍 도시환경분과 1차워크숍 - 하천살리기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참여

7월 20일 지구의벗 전국 환경연합 조직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7월 22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7월 22일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예비답사 참여

7월 22일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7월 22일 자원순환마을 사업 주민간담회(중앙동사무소)

7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암호명품수질모니터링 참여

7월 23일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서 위조에 대한 광주시민협 기자회견 참여

7월 23일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관리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7월 24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7월 25일 자원순환강좌 - 천연화장품 만들기

7월 25일 자원순환 중간보고 참가

7월 25일 광주하천네트워크활성화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광주만들기 1차 워크숍 개최

7월 25일 자원순환 마을 사업 지민간담회(중앙동사무소)

7월 25일 자원순환마을 사업 중간보고회 참석

7월 26일 2013민관정책워크숍 도시환경분과 2차 워크숍 참여

7월 26일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7월 27일 한일청소년국제에너지캠프 국내참가자 오리엔테이션-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7월 28일 어린이 캠프 - 통영 연대도(~30일까지)

7월 29일 영산강살리기 대탐사(박명인 파견, ~8월 2일까지)

7월 30일 광주 시청사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추진 T/F팀 회의 참여

8월

8월 1일 자원순환강좌 - 빈용기로 재활용 화분만들기

8월 2일 영산강 조사

8월 4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 단합대회(곡성, 하늘나리)

8월 5일 광주하천네트워크활성화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광주만들기 - 수중 저서생물 교육(함순아 박사)

8월 5일 한일청소년 국제에너지캠프(~8월8일)

8월 5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4호 발송

8월 7일 광주천 오염원 조사 준비회원

8월 7일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

8월 8일 자원순환강좌 - 재활용 선별장 견학

8월 8일 세계 피폭자 사진전(~9일, 광주광역시의회로비)

8월 8일 기후대기 개선 사업 준과 회의

8월 9일 민주평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한 과정 청취 및 의견제안 간담회 (금남로 차없는 거리 간담회)

8월 12일 영산강 녹조 모니터링(극락교~죽산보 구간)

8월 13일 기후대기개선 사업 분과 회의

8월 14일 영산강 녹조 모니터링(광신대교~동강대교 구간)

8월 15일 광복절

8월 19일 영산강 녹조 모니터링

8월 20일 영산강 녹조 모니터링

8월 21일 영산강 녹조 모니터링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 - 비엔날레 광장 일대

8월 22일 자원순환강좌 - 재생종이 만들기

8월 27일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영산강유역 조사

8월 27일 아마존 원주민 초청특강 -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

8월 30일 수완중학교 에너지 교육

9월

- 9월 1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 광주천 오염원 예비조사
- 9월 2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 9월 5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9월 6일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준비회의 참석 - 빛고을 문화센터
- 9월 6일 첨단 신용유치원 기금 전달식 및 환경강연
- 9월 10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5호 발송
- 9월 10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 9월 11일 광주시민협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9월 11일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회의 참석
- 9월 12일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재설치 대책 수립회의 참석
- 9월 12일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준비회의 참석
- 9월 12일 2013년 하반기 조선대학교사회봉사자 오리엔테이션
- 9월 13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요원교육 참가
- 9월 13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 9월 16일 체육대회 준비회의
- 9월 16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 9월 17일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재설치 대책 수립회의
- 9월 18~20 추석
- 9월 23일 SBS '물은 생명이다' 동행취재
- 9월 24일 광주천 오염원 조사 참여
- 9월 24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6호 발송
- 9월 25일 간담회_광주호 독 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 9월 25일 인조잔디 토론회 준비회의 참여
- 9월 27일 차없는 거리와 기후대기 개선 방안 토론회
- 9월 27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회의
- 9월 27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 9월 28일 영산강 자전거담사 및 정화활동(광주천~극락교~승촌보 일대)
- 9월 30일 도심하천 지킴이 네트워크 2차 워크샵

10월

- 10월 1일 습과 행복 캠프 활동가 참여
- 10월 2일 집행위원회
- 10월 2일 자문위원회 연석회의
- 10월 2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통권 178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10월호 발송
- 10월 7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주간행사 - 도심하천사진전 진행(시청로비)
- 10월 7일 인조잔디 토론회 준비회의 - 강은미 의원실
- 10월 7일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최종 준비회의 참여
- 10월 7일 체육대회 준비회의
- 10월 7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 10월 7일 화순 광업소 주민 민원 현장 방문
- 10월 8일 회원모임_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주간행사 - 도심하천사진전 진행(시청로비)
- 10월 8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7호 발송
- 10월 9일 광주천사랑 시민한마당 참여-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10월 11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 10월 12일 2013년 회원체육대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운동장
- 10월 13일 밀양 송전탑 반대
- 10월 14일 대기질 조사진행
- 10월 14일 나주 옥정지구 농지리모델링 토양 조사
- 10월 15일 대기질 조사진행
- 10월 16일 대기질 조사진행
- 10월 17일 세계 인권도시 포럼 준비 워크숍 참석
- 10월 17일 대기질 조사진행
- 10월 18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병 혼입비율 관련 설문조사 진행

10월 18일 대기질 조사진행

10월 18일 전국동시하천모니터링 광주천 하반기 조사

10월 18일 후원의 밤 준비소위 회의

10월 19일 영산강 자전거 투어 및 정화활동 2 - 황룡강 진행

10월 21일 해피존 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10월 22일 회원모임_ '일곡양산' 정기모임 하반기 준비회의 진행

10월 22일 환경연합 조직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10월 22일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관련 문화재청에 입장서 전달

10월 22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8호 발송

10월 23일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후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10월 24일 토론회 - 인조잔디 유해성과 대책은 무엇인가? 공동개최

10월 24일 푸른광주 21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

10월 25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10월 25일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수련회(~26, 여수 화양면)

10월 28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일인시위 시작

10월 28일 자원순환장터 워크샵 참가

10월 29일 후원의밤 준비소위 회의

10월 29일 북구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10월 30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분시 및 정기)

10월 30일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규탄 기자회견 참여

10월 31일 우리동네 자원순환 파티 및 쓰레기 재활용 조형물 만들기(구 정덕유치원) 주민간담회

11월

11월 1일 회원모임_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및 광주천사진전 개최식(~11/8)

11월 1일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참석

11월 2일 푸른광주의 날 참여_기후대기캠페인 실시

11월 4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11월 4일 기후변화교육네트워크 준비회의 참여

11월 5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9호 발송

11월 6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11월 6일 푸른광주 영산강 둔치조사 참여

11월 7일 집행위원회·자문위원회 연석회의

11월 7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통권 179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발송

11월 7일 수북중학교 에너지교육

11월 8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11월 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014지방선거 대응 회의 참석

11월 8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

11월 11일 석곡천 답사

11월 13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11월 14일 기후강좌1-보르네오 원주민과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사밀라 아리핀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11월 14일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간담회

11월 16일 회원모임_ '일곡양산' 정기모임

11월 18일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포럼 참여_중국 운남성 쿤밍(~23)

11월 18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 보고

11월 18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11월 18일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특검 청원 기자회견 참여

11월 19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10호 발송

11월 20일 인조잔디 대응 시민단체협의회 구성 회의

11월 21일 기후강좌2-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11월 22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11월 2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11월 22일 2014 지방선거 대응 회의 참석

11월 22일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 참석

11월 23일 광주천시민문화답사 및 정화활동

11월 23일 인권영화제 '쫓!' -탈핵영화의 날

11월 23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

11월 25일 푸른광주21협의회 중국선진지 탐방 참여(~12/1)

11월 2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자연, 다르지 않은 우리' 개최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대기 개선 방향 토론회

11월 28일 기후강좌3-과학자들이 본 기후변화(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1월 28일 기후변화교육네트워크 워크샵 참여(11월 30일 밀양 송전탑 반대 밀양 희망버스 조직 및 참여)

11월 29일 자원순화마을 사업 보고 및 평가회

12월

12월 1일 회원모임_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3구간 답사)

12월 2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12월 4일 국정원대선개입 시국회의 회의

12월 4일 영산강 둔치 시민공모 관련 회의 참석

12월 5일 하천지킴이 네트워크 회의 참석

12월 5일 기후강좌4-기후행동과 시민의 자세(지준명 기후포럼위원)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임원활동가 수련회(1박2일)참여-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12월 9일 황현미 신입활동가 출근

12월 10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11호 발송

12월 11일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참여-광주도심하천 사진전 진행(장성 삼호웨딩홀)

12월 11일 회원모임_ '시사모' 정기모임

12월 12일 영산강 둔치 시민공모 관련 회의 참석

12월 12일 기후천사 정기모임

12월 12일 푸른광주21협의 선진지 탐방 보고회 참석

12월 13일 회원모임_ '모래톱' 정기총회 예비모임

12월 13일 핵발전소 인근 비상구역확대 토론회 참석(국회)

12월 13일 2014 아시아 인권포럼 워크숍 참여

12월 13일 기후변화대응센터 햇빛 발전 워크숍 발제참여

12월 14일 해피썬사인 태양광 교육 참여_환경운동연합

12월 14일 회원모임_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

12월 16일 해피존지역아동센터 '자원순환교육'

12월 17일 회원모임_ '일쿠양산' 정기모임 및 송년모임

12월 18일 밀양 송전탑 반대 상황실 순환 전담_주민지원

12월 18일 철도민영화 반대 시민홍보전 참여_전남대학교 후문 일대

12월 18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준비회의

12월 18일 푸른광주21협의회 분과별 워크숍 참여_전남 장흥

12월 19일 대선 1주년 민주주의 회복 기원 기자회견 참여

12월 19일 녹색에너지연구원 견학방문_임낙평 공동의장 등

12월 20일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통권 180호 및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발송

12월 20일 영산강 둔치 이용 현황 조사(산동고 일대)

12월 20일 동절기 1차 절전캠페인

12월 23일 12/22 민주노총 강제진입 규탄 기자회견 참석

12월 24일 회원모임_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총회 예비모임

12월 24일 동절기 2차 절전캠페인

12월 24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12호 발송

12월 2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위원·활동가 송년의 밤 행사

12월 27일 지방선거 대응 토론회 참석

12월 30일 영산강 활용 및 이용 조사 결과 회의 참석

2013년 감사 보고서

감사보고서

- 감사일시 : 2014년 1월 8일(수) 11:00~ 16:00
- 감사장소 : 광주환경연합 사무실
- 감사내용 : 2013년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및 재정
- 수 감 자 : 임낙평 공동의장, 최지현 사무처장, 박상은 팀장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감사 오 원 만 오 원 만

감사 김 정 민 김 정 민

감사보고(안)

사업 부문

- ‘ 및 에너지전환 태양도시 만들기 사업’, ‘탈토건 생태운동 강화’, ‘활동 역량 및 조직 강화’가 중점사업이었습니다. 중점사업에 따른 세부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예컨대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지도자 양성 교육이 수행되었고, 이후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모임과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기후보호 이슈는 국내와 지역만이 아니라 국제적 현안인 만큼 동아시아기후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활동은 긍정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교류 및 공동의 의제를 정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의 성과가 예입니다. 다만 토론이나 공유로 그치지 않고 제도의 변화나, 실제적 실현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탈핵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 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캠페인, 강연회, 영화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활동 또한 눈에 띕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 학생과 우리지역 학생들이 함께 교류 교감하고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등의 시도도 의미가 컸습니다.
- 그러나 탈핵과 에너지전환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최근 수립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핵발전소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속에서 공감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책부문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정부쪽만을 향하지 않고,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이며 지치지 않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폭로되는 감사원 발표가 연이어 있었고, 녹조문제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감사원 발표 내용과 사업과정에서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게 된 것은 그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 전

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응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악화나 하천 안전 문제, 농지 침수 등으로 인한 농민피해 등은 그간 환경연합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대응활동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안 촉구 활동은 긍정적입니다. 향후 4대강사업이 바로 잡히고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활동 역량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회원모임 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임위원 확충,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곡양산 모임 등이 정착되었고 다양한 회원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등 회원모임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있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충원되었고, 지도위원회 확대 되는 등 조직을 강화하기 노력과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학생 참여를 활발히 하고, 회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환경운동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연합의 활동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난개발의 문제에 대응 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민감한 영역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나가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유해환경개선,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 등을 비롯하여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이유로 방기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강하게 개선을 주장하는 등 공공성, 생활형 이슈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활동, 동네단위의 과제가 주어지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2013년에도 많은 활동과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애쓴 결과입니다. 활동의 성과가 많이 홍보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회원 참여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회계 부문

○ 관리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광주 환경연합 고유 및 일상 사업에 대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4대강사업 대응, 탈핵운동과 같이 여러 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며 연대 활동사업과 퇴직금 적립 등에 대한 회계입니다. 회계의 구분은 그 사업목적 등에 의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고 회계별로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은 중간정산 제약 등 자금사용제한이 제도화 되어 있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퇴직금 적립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 일반회계에 대하여

(1) 결산요약표

구분		금액	비고
I. 당기수지	회비 등 당기수입	307,552,650 원	
	경상비, 사업비 등 당기지출	303,979,714 원	
	재정수지	(+)3,572,936 원	
II. 기초이월현금		37,041,448 원	2012년 잔액
III. 기말현금잔액		40,614,384 원	2013년 잔액

광주환경운동연합의 2013년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한 당기수입은 307,552,650원, 경상비와 사업비 등 당기지출은 303,979,714원으로 재정흑자 3,572,93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기이월금을 포함하여 차기(2014년)로 이월될 금액은 40,614,384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2) 분석내용

가. 2012년 대비 변동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수입측면에서 회비, 후원금, 사업비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

가하였고 지출측면에서는 경상비 중 인건비와 후생복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의 감소는 활동가 수 감소 등의 변동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인력충원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회원 및 후원자 확대를 포함한 수익다변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회원수 및 회비 추이

최근 5년간의 회원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회원수 및 1인당 평균회비수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원 (명)	자동이체	1,261	1,704	1,649	1,583	1582
	지로납부	54	46	49	40	42
	직접납부	126	182	138	149	137
	소계	1,441	1,932	1,836	1,772	1,761
연 총 회비수입(천원)		125,132	148,252	160,905	159,293	161,608
1인당 평균 연간 회비(원)		86,837	76,735	87,639	89,894	91,771

최근 5년 회원수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 1,900명이 넘는 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비 총수입은 증가 추세입니다. 1인당 평균 회비수입도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이는 회원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회원수의 감소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입한 회원은 회비납부와 환경연합 활동 참여 등 회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경제현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비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활동에 있어서나, 회원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 , 연속사업 사업분야내에서의 단위사업별 회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사업과 재정운영을 상호 평가 하였으면 합니다. 사업평가지 재정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분석자료들이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재정부분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확보와 운영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사업량과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입니다. 적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애쓴 결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 수입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는 회원을 확대하는 조직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13 사업보고(안)

기후에너지

□ 사업목적

- 지구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지역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방안 모색.
- 기후변화의 현상과 피해사례를 찾아보고, 기후보호를 위한 국내외 공동행동.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 사업 개요

-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위협의 현상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가능한 기후보호활동을 시민과 함께 방안을 모색함
-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 등 정책 활동의 강화

□ 사업내용

1. 시민 기후-에너지 강좌

- 1) 기후변화 대응 리더 양성교육
 - 일시 : 6월 19일(수)~7월 11일(목) 19:00~21:00
 - 장소 : 조선대 치대 6층
 - 내용 : 기후변화 대응 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대상 기후변화 교육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 등 이론교육(8강)

회차	일자	주제 /내용	강사
1	6/19()	: 안내, 인사하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후보호 캠페인,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대체기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부 교수)
강좌2	6/20(목)	차칸노르 호수의 위기 에코피스아시아의 사막화방지와 황사 대응활동 사례	(사무처장)
강좌3	6/26(수)	바다의 위기, 인류의 위기 해양생태계와 해양자원의 변화, 해양생태계 변화사례, 어종변화와 어업피해	류중성 (안양대 해양생명공학과 교수)
강좌4	6/27(목)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의한 병과 증상, 발병 사례,	김진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강좌5	7/3(수)	식생 변화와 식량의 위기 기후변화와 식량의 상관관계, 식생 및 농작물의 변화, 과일과 채소재배사례	최시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강좌6	7/4(목)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신재생 에너지의 분류,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문제점, 수소전지	차인수 (동신대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강좌7	7/10(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축 녹색건축 개념, 녹색건축의 필요성, 건물에너지 낭비실태, Passive House 등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강좌8	7/11(목)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탄소경제의 한계, CDM,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체질개선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기후변화 영상 상영	환경재단

● 결과 :

- 24명이 출석과 논문발표 등 해당 정규과정 이수
- 교육의 질과 신뢰를 위해 철저한 학사관리와 평가를 통해 교육 수료
- 교육 수료 후 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모임인 '기후천사' 로 활동을 이어감.



©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강의 © 강의 후 모듈별 토론 진행

2) 기후투어

- : 6월 1일(토), 6월 29일(토), 7월 13일(토) (총 2차)
- 장소 : 해남, 완도, 여수, 광주
- 내용 :
 - 기후변화 리더 양성교육 연계 프로그램, 우리지역의 기후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답사 프로그램

연번	일자	주제 /내용	현장
투어 1	6/1(토)	기후투어 1차 :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의 현장을 찾아서...	해남 과수농가, 완도수목원
투어 2	6/29(토)	생생 기후투어 2차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의 현장을 찾아서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투어 3	7/13(토)	생생 기후투어 3차 : 광주 도심 녹색건축과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찾아서	광주시청, 에너지관리공단 등
		수료식 : 논문발표 및 수료증 수여	조선대학교

- 결과 :
 - 기후변화의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하는 계기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현장답사 병행



© 과수연구소, 아열대과수 재배 ©여수 해양연구소, 해양박물관 방문 ©논문발표 후 수료식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지구인 강좌'

- 일시/장소 : 11월 14일~12월 5일 19:00~ / 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후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시민대상의 기후에너지 강좌

	주 제	강 사
11/14 ()	보르네오 원주민과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말레이시아 벌목	Shamila Ariffin(샤밀라 아리핀)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11/21 (목)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대응방안 -우리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라!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11/28 (목)	과학자들이 본 지구의 미래 -2013 IPCC 5차 보고서 들여다보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12/5 (목)	기후행동과 시민의 자세 -공회전 이제그만 'STOP IDLING, ACT NOW!'	지준명 (광주환경연합기후포럼위원)

- 결과 : 회원 및 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해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IPCC 5차 보고서 등을 통한 기후변화의 현주소와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광주전남의 대응현황과 과제, 그리고 시민의 행동에 대해 공유

3. 350 및 기후보호 캠페인

1) 광주 350 다짐대회

- 일시/장소 : 4월 16일 19:00 / 환경연합
- 내용 :
 - 슬로건: 태양의 도시, 광주! 5년내 5가구 재생에너지 도입'
 - 350캠페인을 위한 기후행동 출발 선언 및 350캠페인 조직 구성

— 강령 ‘350캠페인 광주 7대 행동’ 채택



© 강령 채택



©350 캠페인에 대한 강연 : 지준명 기후보호포럼 위원

2) 날 350 퍼포먼스

- 일시/장소 : 4월 20일 14:00 / 일곡도서관 앞 도로
- 내용 : 43주년 지구의 날의 맞아 기후변화 캠페인으로 350 퍼포먼스 진행
 - 4월19일 지구의 날 주간행사, “미래에너지는 자연과 함께” 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체험, 영화상영, 사진전시 등 진행



© 350 퍼포먼스



©사전프로그램 사진전시 및 미니 태양광자동차 체험

3) 광주환경연합-광주매일신문 MOU체결

- 일시/장소 : 3월 12일 14:00 / 광주매일신문사
- 내용 : 광주매일신문사와 기후보호 공동캠페인 등을 위해 협무협약 체결

4) BIG ASK 캠페인

- 일시 : 3월 12일 14:00 / 온라인 서명
- 내용 :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영국에서는 시민 17만여 명이 기후변화법 제정 요구에 서명해 상·하원의원 412명의 동의를 이끌어내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

- 광주환경운동연합 및 빅에스크(<http://bigask.kr>)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명 진행 중

4. 기후네트워크

1) 3차 동아시아 기후포럼

- 일시/장소 : 6월 15일(금)~ 6월 17일(일)/ 중국 항정우 저탄소과학기술관
- 내용 : 기후와 에너지 - 저탄소 동아시아 건설을 향하여’ 를 주제로 한·중·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3국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비교와 현황 및 사례공유
 - 3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통해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 색선별 주제 : 색선1.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반성 / 색선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색선3. NGO 에너지 활동 사례



©개막행사

©중국 어린이들의 개막공연

©한중일대표의 공동선언 낭독

- 결과 : - 한중일 3국의 저탄소 동아시아를 향한 한중일 공동 선언 채택
 - 2014년 동아시아 기후포럼 한국개최

2)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3 in 쿤밍

- 일시/장소 : 11월 20일~ 22일/ 중국 쿤밍 운남대학교, 여강 농촌현장
- 내용 :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의 2차 포럼으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한중일 사례 등 공유
 - 쿤밍포럼과 여강 농촌지역 현장방문
 - 2014년 한국개최에 대한 시기 및 내용 논의
- 결과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성화와 연대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차원의 공동사업 제안



©한국대표 임낙영 의장 발표

3) 기후네트워크 실무회의

① 1차 북경회의

- 일시/장소 : 2월 28일(중국 북경)
- 내용 : 제 3차 동아시아 기후포럼 운영 및 의제 협의

② 2차 항저우 회의

- 일시/장소 : 6월 17일(중국 항저우)
- 내용 : 포럼 평가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논의, 4차 포럼 개최지 및 시기 협의

5. 에너지의 날 및 절전 캠페인

1) 제 10회 광주 에너지의 날

- 일시 /장소 : 8월 22일 14:00~21:00 / 비엔날레 광장 및 광주시 일원
- 내용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에어컨 끄기, 소등행사 등 시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기념행사
- 주 프로그램: 피크타임 에어컨 끄기/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5분간 소등행사
- 체험행사 등으로 내부채 만들기, 에너지 부루마블, 에너지 골든벨, 태양에너지 체험, 에너지 사진전 등 본행사장 프로그램 운영



© 모양 쫓불 퍼포먼스



©내 바람 만들기



©에너지 절약 다짐과 아이디어



© 10회 광주 에너지의 날

©불끄기 행사 참여 : 신동아아파트, 중흥아파트 등

- : 본행사 300여명 참여/아파트 1천 세대 소등행사 참여/카페 2개소 연계프로그램

2) 캠페인

- 일시 /장소 : 6월 24일, 8월 8일, 8월 14일 / 광주우체국 앞
- 내용 : 원전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 등으로 피크타임 설정온도 2도 올리기 및 문 닫고 냉방하기 등 캠페인



6.

1) SWEET 2013 기념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광주전남의 미래 - 태양의 도시 광주, 풍력의 고향 전남"

- 일시 : 3월 15일 14:00~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08호
- 내용 : SWEET 2013기념 정책세미나로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를 시민, 단체, 전문가, 기업, 행정 등이 공유하고 공동의 대안의 모색하는 장 마련

MOU 및 기조강연	
MOU	• MOU (기후보호포럼,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기조강연	• 김형진(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 광주전남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
정책세미나 - 좌장 : 조금배(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주제발제	• 문채주(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전남 5GW풍력 프로젝트가 풀어야 할 과제
	• 차인수(기후보호포럼 위원장, 동신대학교 교수) : 태양에너지 도시 광주를 위한 제언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완(전라남도 5GW풍력산업유치팀장) : 전남 5GW 풍력 프로젝트 경과와 방향 • 김보현(광주광역시 시의회) : 광주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의 활성화 • 손경중(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과장) : 광주시 태양에너지 정책과 방향 • 조애옥((주)한국에텍 대표) : 태양에너지 업체가 바라본 에너지정책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정책



© 서청연 업무협약식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 과제에 대한 세미나

2) 기후보호포럼 2차 포럼 “열병합 발전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

- 일시/장소 : 6월 10일 17:00~ / 수완열병합발전소
- 내용 : 수완에너지 신양우 본부장으로부터 열병합 발전의 개요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연 및 토론 후 수완에너지 홍보관 등 답사

3) 기후보호포럼 회의

- 일시 : 1월 17일, 1월 31일, 3월 15일, 3월 28일, 6월 10일
- 내용 : 기후보호포럼의 운영 및 포럼위원 확대를 위한 방안 등 논의

7. 기후천사

- 일시/장소 : 7월 25일, 9월 5일, 11월 12일, 12월 12일 / 환경연합
- 내용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대해 공부하는 회원모임
 - 기존 회원 및 기후변화 대응 리더양성교육 수료생 등으로 구성
 - 기후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기후에너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 및 강의 교재 만들기를 목표로 정기 모임 진행
- 활동 :
 - 2013 광주 대기질(NO2) 측정 참여
 - 12월 12일 내부 학습 워크숍 "기상을 알면 기후가 보인다" (강사: 이강호)



© NO₂ 모니터링



©기후천사 내부강연 '기상을 알면 기후가 보인다'

7. 기타

1)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서울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진행.
- 12월 11일 기본계획 발표에 원전비중 29% 반영에 따른 성명서 발표 대응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2차례에 걸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강좌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의 구체적 방안 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 등 절전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기후변화와 에

너지 절약 및 실천의 계기를 마련함.

- 동아시아 기후포럼과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강사 초청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현황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
- 국제적 기후보호 캠페인 350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의 미흡 등으로 활동 미비
- 1회성 강좌를 벗어나 강좌 후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 마련
- 기후에너지 관련 전문가 그룹의 정책생산과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내용별 평가

- 기후에너지 강좌는 시민들의 기후에너지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론, 현장답사, 논문발표, 수료식 등 철저한 학사관리로 강좌의 체계를 만들었으며, 기후천사 등 후속프로그램 연계로 조직적 성과를 거둠.
- 350 캠페인은 환경연합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후보호 캠페인으로 '350 광주'로 2013년 목표로 했으나, 추진 조직의 미비 등으로 1회성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러 추진 조직의 구성 및 활동 방식을 재정비 하여야 함.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의 제 3회 항저우 포럼, 쿤밍 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간 기후보호활동의 국제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공동선언 등을 통해 사례공유와 기후에너지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은 확인함. 상시적 언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일상적인 연대활동 및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기후보호포럼은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에너지 전문가 그룹으로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과 등을 거둠.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수행이 원활토록 해야 함
- 기후천사는 시민기후에너지강좌를 통해 회원이 확대되고,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3. 주요 성과

- 시민대상의 기후에너지 강좌 등 시민교육을 통해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조직적 성과로 기후천사 회원 확대.
- 동아시아 기후포럼 등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한중일 3국의 기후에너지 활동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14년 제 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결정.

탈핵운동

□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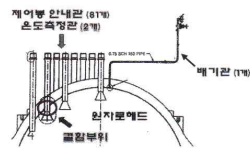
- 영광(한빛)원전 등 원전의 사고와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의 불안 고조.
- 시민들에게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탈핵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에 의한 탈핵운동.
-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영광탈핵행동과 전북탈핵행동 등의 광역적 협의체 및 공동대응 체계 구성.
- 전국적 사안으로 ‘노후 원전 폐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비상계획구역 확대’, ‘밀양송전탑’, ‘방사능 급식’ 등 핵관련 현안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적 연대활동.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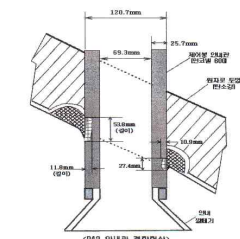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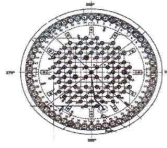
1. 영광(한빛)원전 사고 대응

1) 영광(한빛)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균열

- 일시 : 2012년 11월~ 2013년 6월
- 내용 : 영광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중 6개에 1차수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 발생하여 영광대책위와 함께 원자로 헤드 교체 등 요구



◎ 3 원자로 헤드 및 안내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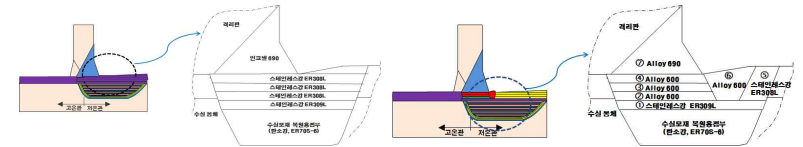


◎ 결합 상세도

- 및 대응 :
 - 2004년 최초로 균열이 확인되었으나, 한수원은 결함을 공개하지 않음.
 - 2012년 11월 :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81개중 6개(7곳) : 최대 깊이 5.38cm
 - 민관합동대책위를 구성하고 3호기 헤드 교체와 국제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 요구
 - 2013년 3월 11일 : 민관합동대책위 6차회의, Embedded Flaw Repair(덧씌움 용접)방식에서의 정비 및 국제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 원자로 헤드 교체 등 합의
 - 4월 3일 : 주민검증단 구성- 환경연합 실무지원단으로 결함
 - 4월 25일 ~5월 24일 : 독일 TUV Nord사의 영광3호기 안전성 및 정비방식 검증
 - 6월 4일 : 3호기 안전성 검증 결과 발표회
- : 검증 결과 2014년 원자로 헤드 교체까지 기술적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공인검사관의 입회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제기
- 6월 10일 : 3호기 재가동
 - 2014년 10월 경 원자로 헤드 교체 예정
 - 지속적인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공동대응을 위한 광주전남북과 영광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제안

2) 영광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불법정비 및 서류조작

- 일시 : 8월 27일~ 11월 18일
- 내용 : 외부 제보로 영광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의 불법정비와 서류조작 사실이 공개돼 2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부실 불법정비의 안전성 검증



◎ 당초 정비 계획

◎ 실제 정비 결과

- 경과 및 대응 :
 - 8월 27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언론 등에 외부제보로 불법정비와 서류조작 공개
 - 9월 2일 : 원안위 민간-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 9월 10일 : 영광행동은 정비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운영자인 한수원, 감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고발.
 - 10월 30일~11월 18일 : 2호기 가동 중지. 정비상태 확인 및 안전성 검토

: 제보내용과 같이 업체측의 임의대로 정비되고, 서류가 조작된채 가동된 것을 확인

- 11월 18일 영광 2호기 재가동

3) 광주전남-전북-영광 연석회의

- 일시/장소 : 3월 21일, 3월 28일, 4월 3일, 4월 5일, 4월 17일, 5월 1일/ 영광 농민회

- 내용 : 영광 3호기 원자로 헤드 균열사고 및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공동 대응 활동

- 영광 대책위(영광군-영광의회-영광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에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전북이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 등 제안
-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비상계획 구역 확대 등 전국적 사안의 연대 강화와 대응 논의

3)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전북 시·도의원협의회 준비모임

- 일시/장소 : 5월 28일 16:00 / 광주시의회
- 내용 :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개 광역의회의 책임있는 활동을 위한 의원모임으로 광주시의회 서정성의원 등 탈핵의원 모임, 전남도의회 최경석 의원 등 진보의정 모임. 전북도의회 정진숙 의원 등으로 구성
- 협의회 운영방향 및 활동 등을 논의하고, 광주 서정성의원, 전남 최경

석의원, 전북 정진숙 의원을 간사로 선임.

2. 시민과 함께 하는 핵없는 세상 만들기

1) 탈핵학교 “미래 에너지는 자연과 함께!”

- 일시/장소 : 3월 26일 ~ 4월 23일 매주 화요일 19:00~ (총 5강)/ 광주 YMCA

- 내용 : 핵의 위험성,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민대상 탈핵강의

-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 잡힌 정보와 교육의 제공해 핵의 위험성, 영광원전의 현황, 핵을 옹호하는 사회적 구조, 탈핵의 가능성, 대안사례 등 제공

		주제	강사
1	3/26	정치 -핵없는 사회, 가능한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	4/2	광주에서 30km, 영광원전은 안전한가?	주경채 (영광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3	4/9	핵폭탄 = 핵발전 -핵을 키운 사회적 구조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4	4/16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 대안 -적정기술을 활용한 흙부대집 만들기	김성원 (적정기술 전문가)
5	4/23	피폭지 동경에서 -전후 일본사회 핵의 역사와 현재	야마구치 이즈미 (일본 소설가)

- 핵발전의 관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
- 에너지 전환으로 대안적 사회와 생활의 실천이 가능성 명시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소속 단체들과 연대 강화,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 5 아마구치 이즈미-일본 핵의 역사



© 2강 주경제-영광원전의 안전성

2)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일 청소년 에너지 캠프”

- 일시 : 8월 5일 ~ 8월 9일 /영광 원불교 성지 및 광주전남
- 내용 : “태양과 바람으로 함께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후쿠시마 청소년 8명과 한국 청소년 20명의 함께 에너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대안 모색

• 주요 프로그램 :

- ① 오리엔테이션 : 후쿠시마 핵사고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 학습
- ② 후쿠시마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후쿠시마 이야기 :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 핵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후쿠시마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소식을 전함.
- 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일 청소년 토론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핵발전소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청소년들의 심도 깊은 토론의 장 마련
- ④ 우리의 다짐 선언 : 한일 청소년들이 핵없는 세상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토론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현장답사
- ⑤ 힐링투어 : 고창 선운사, 고창읍성, 판소리 배우기, 무안갯벌 등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



© 후쿠시마 이야기

© 후쿠시마 청소년들 공항 마중



© 레크레이션



© 무안갯벌 답사



© 물놀이

3) 2주기 행사

① 2주기 서울행사 참여

- 일시/장소 : 3월 9일 / 서울시청 광장
- 내용 : 후쿠시마 2주기 서울행사 참여,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밀양송전탑 문제 등 전국적 탈핵연대와 신재생에너지 등 체험

② 후쿠시마 2주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3월 11일 14:00 / 구 삼복서점 앞
- 내용 : 후쿠시마 2주기를 맞아 후쿠시마의 핵발전소의 안정화를 촉구하고 핵없는 광주 전담을 위한 제안과 에너지 전환 요구

4) 탈핵영화 상영 및 탈핵사진 전시

① 모리즈미 타카시 초청 강연회 “Nuclear Blue 후쿠시마”

- 일시/장소 : 3월 12일 19:00 / NGO 센터
- 내용 : 원전사고 2주기를 맞이해 핵의 비참한 현실과 그 위험성을 시민



① 퍼포먼스
 ② 기자회견
 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다큐사진작가 모리즈미 다카시를 초청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 핵사고 및 피해지역 등 사진 자료에 대한 해설 등

② “0.23의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 일시/장소 : 4월 19일 16:00 / 일곡도서관
- 내용 :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주민들이 체르노빌 방문 등을 통해 후쿠시마의 미래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담은 영화로 후쿠시마 사고 2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알고, 핵발전의 위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 마련

③ 세계 피폭자 사진전

- 일시/장소 : 8월 8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광주시청 로비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일본 No More Hibakusha Exhibition 공동주최로 방사능 피폭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6명의 일본 사진작가(森下一徹, 伊藤孝司, 桐生広人, 豊崎博光, 本橋成一, 森住卓)의 작품 전시

④ 인권영화제 탈핵영화의 날

- 일시/장소 : 11월 23일 13:00~ /광주영상박물관
- 내용 : 광주인권영화제와 공동으로 특별세션 ‘탈핵영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 “원전마을을 쫓겨나서” -피난민 후타바마치의 기록 :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자막 제작

- 호리키리 사토미 감독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
- 핵, 방사능 그리고 영광원전 토크콘서트
- 영광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주민행동 황대권 대표와 최홍업 광주녹색당 공동위원장, 환경연합 박상은팀장이 영광원전의 안전성과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대담.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추진

- 일시 : 9월 ~
- 내용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 마련과 제정 촉구 활동
 -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 검출 식재료 사용제한, 감시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 등과 협의해 대표 발의기로 함.
 - 9월 26일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조례안 간담회 개최

5) 탈핵 홍보물 제작

- 일시 : 10월~ 11월
- 내용 : 후쿠시마 원전사고 실태와 현재 방사능 오염 상황,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소의 역사적 관계, 핵에너지 안전진화의 진실, 되풀이되는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해외에서 핵에너지 포기 및 대안에너지 개발 정책 사례 등 핵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올바른 관점에 대해 압축된 내용으로 구성. 부록으로 핵발전소 현안인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등

1	원전사고 실패와 현재 방사능 오염 상황
2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소의 역사적 관계
3	핵에너지 안전신화의 진실
4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다르지 않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많은 이유.
5	핵에 의존하지 않은 미래의 선택. 핵없는세상은 가능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우리 모두가 밀양이다” (판넬만 제작)

3. 연대활동

1) 밀양 송전탑

① 탈핵희망버스

- 일시/장소 : 5월 24일, 11월 30일 /밀양
- 내용 :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는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 필요없는 765kv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한 탈핵희망버스로 밀양 방문

② 1인 시위 및 서명운동

- 일시/장소 : 10월 21일~ /오치 한전 앞 및 YMCA 앞
- 내용 :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건설의 반대와 사회적 재합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오치 한전앞에서 진행했으며, 11월 18일부터 YMCA 앞에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매일 진행
- 12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로 주 1회 진행

③ 촛불집회

- 일시/장소: 5월 30일, 10월 31일 / 오치 한전 앞
- 한전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건설에 대한 항의



© 앞 1인시위 ©탈핵희망버스 ©밀양송전탑 서명운동

2) 비상계획구역 확대

- 일시 : 1월~ 12월
- 내용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현재 8~10km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각종 사고 및 비리 문제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30km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비상계획구역을 3단계(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AZ :3~5km, 주민보호조치 준비구역UPZ: 8~10km, 환경감시구역:30km이내)로 구분하는 개선연구 결과 발표 했으나, 핵발전소 사고의 특성 이해부족과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 등이 없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보다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감안한 결과.
 - 핵발전소 밀집도와 반경 30km내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로 영광 15만명, 고리 330만명, 월성 133만명, 한울 8만명 등 487만명으로 중첩인구를 제외하고도 420만명.

3)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 일시 : 1월~
- 내용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오는 2019년 영광원전을 시작으로 포화됨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후쿠시마 청소년들을 초청해 한국청소년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듣고, 교류를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
-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사능 급식조례 제정운동, 밀양송전탑 저지활동 등으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민참여 탈핵운동 전개
- 탈핵을 위한 영광, 광주전남북 및 전국적 연대활동이 강화되고, 특히, 초청 강연, 영화상영, 사진전시회 등 일본과의 연대활동 확대

2. 사업내용별 평가

- 한일청소년 에너지 캠프 : 후쿠시마 청소년들에게는 힐링의 기회,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후쿠시마의 현재를 후쿠시마 청소년들에게 직접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영광원전 대응 :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광주전남북 연석회의, 시도의회 의원모임 등이 진행되었으나, 안전성을 우선한 접근으로 영광원전의 출력증강, 원전의 폐쇄를 위한 활동 등이 부족했다.
- 연대활동 : 1인시위, 서명운동, 탈핵희망버스, 촛불집회 등을 통해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탈핵학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 탈핵학교를 통해 핵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전달과 시민적 공감대는 형성하고, 방사능 급식 조례 제정 등의 활동으로 연계 발전시켜 시민들의 탈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이끌어냈다.

3. 주요 성과

- 한일청소년 에너지 캠프를 통한 청소년들의 핵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한일 청소년 교류의 계기마련
- 탈핵학교를 통한 핵문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의 확대와 방사능 급식조례, 탈핵희망버스 참여 등 시민들의 구체화된 탈핵활동

- 연대활동의 강화로 영광, 전남북, 전국뿐만아니라 일본 등 외국과의 탈핵 네트워크 강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토론회]

사업목적

- 핵실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 고조 등 한반도를 비롯 동북아시아의 평화 가 위 기국면에 있는 바,
- 전쟁위기 해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일환. 현 시국과 전망을 살펴보고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하고자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1) 일시 : 2013년 5월 7일(화) 오후 4 ~ 6시
- 2) 장소 : 광주YMCA 백계실
- 3) 발제 및 토론
 - 발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전망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_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최지현(광주환경연합), 정동석(평통사), 이신(6.15공동위원회),
 - 사회: 김영삼(우리민족서로돕기)
- 4)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MCA, (사)우리민족
- 5) 주최 : 광주전남민주동지회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및 도심하천 살리기 운동]

사업목적

- 지킴이 등 도심하천 지킴이 활동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광주천 등 주요 도심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도출
- 지속가능한 광주천 등 도심하천 살리기 방안이 실현되도록 함.
- 청소년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계층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활동 유도.

□ 사업개요

- 광주천, 풍영정천, 소태천, 수곡천, 황룡강, 평동천 등 도심하천이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개선방향이 아닌, 친수시설 도입이나 도심 공원으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하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함.
- 풀뿌리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주도형 활동을 정착시켜나감.
- 하천조사, 사진전, 정책 평가 및 제안, 하천생태자료집 만들기, 하천 생태교육 등의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광주천 모니터링 및 도심하천 조사사업

1) 광주도심하천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광주 도심하천의 지킴이들 연대 및 교류 강화. 지속적인 워크숍_교육활동을 통해 자연도조사 및 오염

원조사 등 동시조사 진행 후 결과 공유.

2) 광주천 모니터

- 기간 : 연중(매월 1회 이상 조사)
- 장소 : 광주천 도심 구간
- 내용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의 지속사업으로서, 광주천 도심구간을 매월 1차례 이상 조사 기록함. 수질상태와 유량, 서식 생물 중, 하천과 주변 이용실태 등

3) 도심하천 자연도 조사

- 일자 : 8월, 10월
- 장소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도심하천 대상
- 내용 : 자연도 평가를 위한 하천조사. 수변환경, 수질, 수생 생물, 사회모니터링 부분을 평가.
1,2차 조사결과 소태천 증상,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등은 증급으로 조사됨.

4) 도심하천 오염원 조사

- 일자 : 8월
- 장소 :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등 도심하천 대상
- 내용 : 각 도심하천의 주요 오염원 파악 및 향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도심하천 기록 구축을 위한 오염원 조사. 오폐수 유입, 쓰레기, 둔치경작, 시설이용에 따른 오염유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조사됨

5) 광주천 오염원 조사

- 일자 : 10월
- 장소 : 광주천 1, 2, 3, 4 구간 등 광주천 전구간
- 내용 : 광주천의 주요 오염원 파악 및 향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정책 제안 등 광주천 기록 구축을 위한 오염원 조사

2. 광주천 등 도심하천 사진 기록 및 사진전 개최

- 1) '생명의 물줄기 광주천을 품다' 참여
- 일자 : 10월 9일(수)
 - 장소 :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앞 주차장
 - 내용 : 푸른광주 21협의회 주관 행사인 광주천 사랑 시민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으로써의 광주천에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사진전 '바람길로 흐르다' 및 부스행사 '물고기 책갈피' 만들기 참여

- 2) 광주천 등 도심하천 사진 기록 및 사진전 개최
- 일자 : 사진전 _ 10월 9일(수), 11월 1일(금) ~ 11월 8일(금)
 - 장소 : 광주천사랑시민한마당 행사장 내, 구 남광주역 푸른길 기차
 - 내용 : 하천지킴이 등이 1년여 동안 광주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 이 사진을 선별하여, 사진전 '바람길로 흐르다' 개최함.

3. 광주천 생태자료집(노트) 만들기
- 일자 : 연중, 12월 중 완성
 - 내용 : 광주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광주천 살리기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천 생태자료집 제작. 연중 하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료를 첨부해 현재의 광주천을 설명하기 위함. 이후 생태체험교육 등 광주천 안내나 홍보용으로 활용.

4. 광주천 시민문화답사 및 정화활동
- 일자 : 11월 23일(토)
 - 장소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광주천 금교일대-환경공단
 - 내용 :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천 정화활동 프로그램 진행. 정화활동과 더불어 광주천 주변의 역사문화마을을 답사를 통해 광주천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함. 더불어 하수정화처리과정을 견학함으로써 하천 살리기 운동의 필요성을 진파함.

5. 하천생태체험 교육

- 1) 수완중학교
- 일자 : 3월~11월 매월 1회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35명
 - 내용 : '물GO氣' 를 주제로 광주천의 물고기를 통해 도심 하천생태계 이해, 물길과 자연에 대한 예의를 배움.
 - 세부 프로그램

	기간	활동내용		장소
1	3월	오리엔테이션-광주천 물GO氣 소개, 미션과 주제 정하기		수완중학교
2	4월	물길과 물고기	• 광주천 둘러보기, 물고기 서식환경 조사, 수질관찰 • 물고기 이름표 만들기, 자연도 생태조사	광주시청 광주천둔치
3	5월	물풀과 수생식물	• 물풀, 수생식물 채집 관찰 생태세밀화 • 물고기와의 관계, 자연놀이	광천2교 두물머리
4	6월	물속생물과 수서곤충	• 수서곤충 채집 관찰 세밀화 • 물고기 먹이, 광주천자연놀이	원지교
5	7,8월	지천과 계곡생태	• 중심사 계곡 물속생물 채집 및 관찰 • 계곡 생태계, 물놀이	중심사천
6	9월	물고기	• 물길, 광주천에서 살아요. • 광주천생태지도 만들기	수완중학교
7	10월	발표회준비	• 나의 물고기, 주제 발표 및 물길 작품 설치	수완중학교
8	11월	생태체험프로젝트발표회		



2)

- 일자 : 5월 3일(금)
- 대상 : 동산초등학교 6학년 106명
- 내용 : 광주천 생태 알아보기, 도심에서의 광주천의 역할 등 광주천을 답사하면서 광주천에 대한 설명과 놀이를 진행함.
- 세부프로그램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 , 광주천 소개, 도심하천의 기능과 역할, -체험학습 전체 일정 소개(물고기, 물풀, 물새 생태계) <함께 생각해봅시다> o 사람들의 생활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o 환경오염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구역	-하천과 물고기 채집 및 관찰 (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우수와 하수이야기 (광주천오염원-비점오염원)	장수교주변
2구역	-광주천 수량과 수질, 하천의 구조, 하천에 있는 시설물 역할 -시설물(파손형태와 오염원), 펌핑수와 지천이야기	증심사천주변
3구역	-하천과 둔치식물이야기 (자연형 하천, 자연 생태계이해) -하천과 동물(수달배설물, 애기똥풀, 고마리 등)	방학교,설월교
4구역	-하천과 수생식물, 물의 정수(습지의 기능과 역할 이해) -물풀, 물새, 물고기 오감 생태놀이	생태관찰데크
5구역	-하천과 수서곤충(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광주천 물속생물의 이해	자갈모래톱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회원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및 도심하천 풀뿌리 지킴이들의 주도와 참여로 광주천 살리기 및 도심하천 조사사업 활동이 진행됨.
- 도심하천 오염원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광주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지속
- 광주천 조사와 광주천 사진전 등 광주천을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회원주도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더 많은 회원 참여 확대 필요

2. 사업내용별 평가

- 광주도심하천의 자연도오염도 평가를 위한 하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하천 생태주소를 평가하고 개선 및 개선안을 만드는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시민문화답사를 통해 광주천과 인근의 문화자원의 일원화 및 하수처리시설 견학으로 광주천과 물사용에 대한 인식변화
- 하천체험 교육에 있어, 우리의 계획에 따른 기획이 아닌, 외부에서의 요청시 추진함. 계획적인 교육 활동 기획 등 자체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됨

3. 주요 성과

- 도심하천 공동조사사업을 통해 광주도심하천 지킴이 네트워크 강화
- 회원주도형 활동 지속
- 광주천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과 개선 노력



[4 사업 대응 및 영산강살리기]

사업목적

- 4 대한 평가 및 심판
- 홍수피해, 보안정성, 수질 등 현장조사를 통한 4대강사업 평가와 개선 촉구
- 4대강사업과 연계되어 계획된 난개발 사업 및 지원개발 저지
-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제2의 4대강사업 저지
-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책임제 정착
- 영산강을 회복하고 살리는 방안 공론화 및 살리기 추진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이 정부가 주장한 제 목적에 부합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 조사사업과 자료를 통해 실시함.
- 전문가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4대강사업 이후 발생되고 있는 수질악화, 홍수피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습지문제 등을 지속 조사
- 바람직한 강살리기 및 치수방안에 대한 공론화 및 대형국책개발사업에 대한 검증 평가
- 4대강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하천 난개발에 대한 대응

□ 사업내용

1. 영산강 조사사업

- 1) 기간 : 연중. 갈수기, 홍수기와 전후를 하천환경에 대한 변화 조사
- 2) 개요 : 지난해 조사 결과에도 드러난 보 안정성 문제, 수질, 조류(藻類) 번식, 지하수위 상승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선전. 이에 지난해에 이어 보 누수 및 부실, 준설영향으로 인한 역행침식, 호안 침식, 보호공 유실, 수질, 생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현황발표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촉구 및 궁극적으로 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3) 내용 :
 - 4대강 사업 심판과 강을 살리기 위한 영산강 현장조사 1
 - 조사일시: 2월 16일(토) 08:30~17:00

- 조사구간 : 영산강 담양습(담양)~함평천 합류점(함평)
- 주최 및 참가자
 -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행동(사무국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 : 전문가 _ 박창근 교수(판동대 토목공학과), 이성기 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 박철웅 교수(전남대 지리교육과)
- 현장조사 내용
 - ▲ 보 점검(육안)/ 죽산보, 승촌보 대상
 - ▲ 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과 침수피해 현장조사
 - ▲ 덕홍보 붕괴 등, 침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 보강공사 이후 현장 재점검
 - ▲ 생태계 교란 문제, 대체습지 등 조사

○ 4대강 사업 심판과 강을 살리기 위한 현장조사 2

- 일시 : 8월 27일(화) 08:00~17:00
- 구간 : 영산강 담양습지(담양) ~ 함평천 합류점(함평)
- 조사내용 :
 - ▲ 보 점검/ 죽산보, 승촌보 대상
 - ▲ 측정 장비를 이용한, 보인근 하상 침식 상태 조사
 - ▲ 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과 침수피해 현장조사
 - ▲ 상류 침식, 호안 붕괴 현장
 - ▲ 클로로필 a, BOD, COD 등 수질 조사

○ 기타 조사 등

- ①수질 및 생태현황 ②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영향(농지 침수 등) ③나주 옥정지구 농지리모델링 지역 농가 피해 조사 ④지형변화-역행침식, 보호공 상황 ⑤습지 등의 조사
- 특히, 7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녹조에 대응하여 주단위 모니터링 실시. 8월 20일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소속 의원들이 승촌보 녹조피해 현장 방문하여 '녹조는 30여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 는 입장 표명. 이에 대한 성명 발표 등으로 적극 대응.

2. 4대강사업 검증 및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승촌보, 죽산보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16일(화) 오후4시 ~ 6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
- 개요 : 영산강에 승촌보(광주)와 죽산보(나주)가 완공된 이후 수질과 수생태계 악화,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인근 농경지 침수 폐해 등의 문제가 계속됨. 4댐아사업 이후 영산강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 향후 지속가능한 영산강을 위해 승촌부와 죽산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함.

- 내용

- o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o 주제발표
 - 발제1: 4대강사업과 영산강 습지 및 생태계 변화 _ 양해근 박사(환경과 재해연구소장)
 - 발제2: 보건설 이후 영산강 하상 등 하천 지형의 변화와 문제점_박철용 교수(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 발제3: 보건설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그리고 대안 _ 오준성 교수(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o 지정 토론 : 전승수 교수, 강은미 시의원

3. 영산강 살리기 도보 순례

- 1)일자: 7월 11일(목)~ 7월 16일(화)
- 2)개요 : 시민 및 각계와 함께하는 영산강 답사. 4대강사업으로 변화된 영산강 실태를 공유하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취지임. 민주당 우원식 최고의원 주최의 5대강 답사의 영산강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는 영산강 도보순례 진행
- 3)구간 : 영산강 시원지(가마골 용소) ~ 영산강 하구둑 139km
- 4)참여단위 : 우원식국회의원 및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 5)주요프로그램 : 전구간 도보 답사/ 순례단 발대식, 환경 및 역사문화현장 답사와 조사, 간담회, 초청강연 등

4. 영산강 현장 시민답사

1) 영산강 자전거 투어 및 정화활동

- o 일자 : 9월 28일, 10월 19일 등 2회
- o 장소 : 1회(담양습지-극락교-승촌보), 2회(시청-승촌보-송산유원지-황룡강-월봉서원)
- o 내용 :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해 우리 주변의 주요하천인 영산강·황룡강을 답사하고 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현장프로그램.

5. 4대강사업과 연계된 지천개발 등 난개발 대응

- 기간 : 11월 ~12월

- 내용 : 4대강사업 이후 광주 도심구간에서의 둔치에 과도한 체육시설 도입 등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되고, 복원구간이 친수구간으로 변경 되는 등 이후 난개발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 등 대응활동 진행

6.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대응

- o 개요 :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대상 중 광주호 독높이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사업 철회 운동을 몇 년이 진행해 왔음. 농어촌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상승 높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타당성 결여, 문화재와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정부 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활동 이어감.

o내용

1)간담회: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변경에 대한 간담회의 입장 표명

- 일시 : 9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YMCA 2층 백제실
- 내용 :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설명을 듣고, 시민단체,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문화유산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독높이기사업을 취소하고 독 보강 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참석 : 농어촌공사 담당지사, 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화유산연대, 민예총 등

2)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에 대한 입장 표명
과독높이기사업 관련 입장서 전달.

7.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1/18_[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따른 성명] 4대강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
- 1/23_[기자회견] 4대강사업 문제해결,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1/24_[성명서]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에 최악인 지자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2/7_[성명서] 영산강 생태계 교란 야기, 영산강 보를 어찌할 것인가?
- 3/20_[세계 물의 날 성명]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7/10_4대강사업 감사원 발표에 따른 성명
- 8/20_[성명서]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영산강 녹조 피해 현장 조사에 대한 입장
- 9/4_[성명서] 자연 문화 유산 훼손하는 광주호 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10/16_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10/22_[성명서] MB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걸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
- 12/12_[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재개에 대한 성명] 4대강사업을 위한 공사는 이제 그만!

□ 평가

1. 총체적 평가 및 사업내용별 평가

- 정부 차원의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기구가 발족되었으나, 활동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현장 조사, 토론회 등을 수행하였음. 이로, 4대강사업 심판과 강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됨
-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로 사업의 부실과 부당성, 불법이 확인되었고,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조사, 토론회, 답사 등 다양한 대응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4대강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감, 심각한 녹조 등 눈에 보이는 피해와 문제로 4대강사업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됨.

- 다만, 시민사회내에서 국정원 등의 시국 이슈로 연대 협력은 이전해 보다 못하였음. 또한 박준영 전남지사 등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점음 아쉬움,

2. 주요 성과

-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과 후속 조치 촉구 활동 이어감
-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 계와 연대하며, 조사 자료 구축 지속화
- MB 4대강 사업과 같은 권력형 토건사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유사 부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론화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와 영산강 복원 공론화 재 시작
-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과 추진, 합당한 검토와 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네트워킹]

1. 제 8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일자 : 7월 29일(월)~8월 2일(금)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1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장성-

-광주-회순-나주-함평-무안-목포-영암 등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
을 탐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및 동식물 조사, 향토문화, 역사, 경제 등을 탐방

2. 제 5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일자 : 12월 11일~12월 12일
- 장소 : 장성군 장성읍 삼호웨딩홀
- 내용 : 광주천 사진전 참여. 약 30점의 광주천 사진을 행사장에 전시함.

3.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여

- 일자 : 3월 20일
- 장소 : 주암호 인근 서재필 공원
- 내용 : 기념행사, 정화 활동 등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목적

- 주민주도형 지역맞춤형 자원순환 마을 실천사례 만들기
- 마을내 불법 투기 문제해결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사업개요

- 불법투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순환형마을만들기사업을 수행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자원순환형 마을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교육, 쓰레기 배출관련 실태조사, 간담회, 자원순환 마을 파티 등을 진행함.

□ 사업내용

1. 우리동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등 기초조사

○ 개요

-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개선 실행을 고려한 조사 시행
- 마을 인근 지역 불법투기 실태 현황 파악 및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조사
- 주민교육 및 기초 현황 조사 이후 실태 조사 등

○ 진행내용 :

① 무단투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 시민인식 조사

- 조사기간 : 9월 ~10월
- 조사 대상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역 주민 등 200

여명

- 조사 주요 내용 :

- 재활용품(종이류, 캔 및 고철류 등) 분리 배출 관련
 - ①분리배출 실천 정도 ②배출횟수 ③배출장소 ④분류 정도 ⑤주요 분리배출 품목 ⑥분리배출시 어려운 내용 등
- 무단배출 관련 _ ①무단투기 여부 ② 무단투기 이유 등

-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②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1차_ 5월 / 2차_ 6월 ~ 7월 / 3차_ 9월 ~10월
- 조사지역: 광주시 북구 전역,
- 조사 주요 내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 및 실천 현황에

대한 설문/현장조사

③ 불법투기 실태조사(5월 ~ 7월)

- : 마을 인근 지역 불법투기 실태 현황 파악 및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조사
- (주민교육 및 기초 현황 조사 이후) 주민 인식 조사, 실태 조사(8월~9월)
- 대상 집단 : 북구 지역민 대상 및 북동 일대

2. 간담회 및 토론회

- 사업목적 및 내용
 - 주민 주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토대형성, 주민 사례 발굴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간담회-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등
- 기간 : 5월 ~ 10월
- 장소 : 북동신협 교육실 /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 북동성당 교육실 등
- 진행내용 :
 - 자원순환형 마을 만들기 방안 협의 /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 불법투기 문제해결 토론
 - 우리동네안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

- 재활용품 배출공간 개선 방안

3. 분리배출 교육 및 자원순환 실천방안 교육 _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체험환경강좌

- 사업목적 및 내용 :
 - 마을 내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분리배출,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 활동
 -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자원순환 체험환경 강좌 운영
- 진행내용
 - 일시 : 7월 25일(목) ~ 8월 22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북동성당 교육실, 광주시 북구 재활용 선별장
 - 참여대상 : 광주 북구 임동, 유동, 북동, 중흥동 주민
 - 교육 내용:

		강사	장소
7월 25일(목) 오후 2시~4시	천연화장품만들기- 썬크림	김숙자	북동성당 교육장
8월 1일(목) 오후 2시~4시	플라스틱 빈용기 활용 화분 만들기	김성화	북동성당 교육실
8월 8일(목) 오후 2시~5시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견학	북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양과동 매립장 등
8월 22일(목) 오후 2시~4시	우유팩으로 재생종이 만들기	노정숙	교육실

4. 우리동네 자원순화 파티

- 사업목적 및 내용
 - 자발적 주민참여로 동네 맞춤형 자원순환 모델 개발 및 시행
 - 재활용 재사용의 인식 확대 및 상실화 토대마련
 - 주민들이 동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폐자원을 활용 동네를 디자인 하는 프로그램 진행

○ 진행내용

- 일시 : 행사일 _ 10월 31일(목) 오후 2시 ~ 5시.
추진기간 _ 8월 22일(목) ~ 10월 31일(목)
- 장소 : 광주시 북구 북동 구 정덕유치원 운동장,
- 내용 :

① 자원순환지도 만들기-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형 환경교재 구성

- 자원순환 - 종이, 폐플라스틱, 의류 등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
- 마을단위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주민대상 교육 및 어린이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② 폐·자원- 페타이어 등을 활용한 거리 벽면화단. 주차 표지 만들기

- 내용 : 주택, 상가 앞 등 어지럽게 놓여지거 무단 투기되어 있는 페타이어를 디자인하여 꾸며서, 주차금지 표지물로 활용하도록 함.
- 만드는 방법 : •페타이어 수거 •흰페인트로 칠한다. •주민들이 일정 문양과 그림으로 꾸민다. •바퀴를 달아 쉽게 이동하기 용이하게 한다. •적절한 장소에 꾸민다.

③ 폐자원을 활용한 꿈꾸는 식물만들기

- 내용 : 전문 미술작가들의 도움으로 작품 구성 협의, 폐자원을 활용 주민들과의 공동작업으로 마을을 디자인하는 활동
- 참여작가 : 신양호, 정기주 외 4명
- 방법 : 폐 자원을 활용하여, 나무모양의 조형물을 제작. 작가가 기본 형태를 만들고 주민들이 식물(화분)을 이용, 나무로 꾸미기 완성

④ 상습 무단투기, 재활용분리배출 실태가 양호하지 못한 지역에 홍보판넬 부착

- 상습 투기된 지역에, 빗바랜 현수막 등의 경고성 안내문을 대체할
- 상습 무단투기 현장 등 적정 장소에 홍보판넬을 부착함.

6) 평가, 최종 간담회

- 제목 : 2013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_ 평가 및 주민간담회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6시
-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주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 • 쓰레기 조사 결과와 의미
• 이후 활동 방안 등

□ 사업평가

1. 전반적 평가

-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활발한 운동이 최근 5~6년간 추진되지 못했음. 반면 지난 정부에서 대형마트 1회용 봉투 보증금제 폐지 등 시민운동으로 통해 정착해온 제도등이 일부 다시 원상 복기 되는 문제도 있었음.
- 쓰레기 문제를 마을 단위 해결방안과 실천 사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된 점은 긍정적임. 무단투기나 재활용에 있어 문제점 등 동네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여 자원순환사회형성에 기여함.
- 주민참여, 행정과의 협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과제가 있음. 이후 지속 활동과 개선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2. 사업내용별 평가

- 주민 대상 교육과 현장 체험 등은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폐자원을 활용하여 꾸미는 자원순환 파티 등에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함.
- 동네 쓰레기 배출실태와 시민인식 조사를 통해 쓰레기 문제 실태 파악이 되었고, 개선안 모색을 위한 기초가 됨.

3. 사업성과

- 무단투기와 재활용 배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개선된 결과.

조사지점 50여곳 중 20여곳 개선됨.

-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토대 마련



[조사]

□ 사업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에게는 선별 및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비대상품(결병, 잡병, 기타병)이 포함되어 반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소매업자들의 선별·반환 실태를 확인을 통한 제조사의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적정 지급여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조사지역 및 조사규모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 후 해당 물류센터 통보
- 지역별 조사책임자 선정·교육 후 직접조사 실시
- 우리 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을 담당

□ 사업내용

1.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조사

- 기간 : 연중,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조사 실시
- 장소 : 조사대상 제조사 물류센터
- 내용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소주, 코카콜라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제조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상반기 약 60여 단위, 하반기 약 70여 단위 전수조사 실시.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자원순환체계 감시라는 측면에서 조사 역량 축적.
- 전국적 동시다발적 조사사업에 임함에 따라 연대강화

2. 사업내용별 평가

-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극복

3. 주요 성과

- 빈용기 순환 촉진



생태 도시 만들기

[도시숲, 사람, 마을을 잇는 푸른길]

사업목적

- 전 구간 준공을 계기로 푸른길공원관리 및 생태문화공동체로써의 푸른길의 가치 확대
- 남광주푸른길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문화프로그램과 공동체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푸른길공동체 실현

□ 사업개요

- 푸른길공원 전 구간 준공에 따른 시민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남광주푸른길공원이 생태문화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참여 시민참여 푸른길관리방안 모색

□ 사업내용

1. 도시숲을 잇는 푸른길 - 푸른길 녹지 및 생태 모니터링

1) 푸른길 모니터링단 모집

- 푸른길 모니터링단 모임 : 4월 17일(수) 오후 19:00
- 참여자 : 숲해설가협회 풀나무모임 회원, 푸른길 시민강사, 일반시민

2) 대남로푸른길공원 조사

- 참여자 : 숲해설가협회 풀나무모임 회원 8명과 도시숲위원회 공동 진행
- 시기 : 5월 ~ 7월

- 1차 : 5월 8일(수) 오전 08:30~12:00(라벨부착)

- 2차 : 5월 15일(수) 오전 08:30~12:00(수종, 수고, 근원직경조사)
- 3차 : 5월 22일(수) 오후 16:00~18:30(라벨부착)
- 4차 : 5월 29일(금) 오후 16:00~18:30
- 5차 : 6월 7일(금) 오후 16:00~18:30
- 6차 : 7월 3일(수) 오후 2시~4시 : 대남로 시민현수목 수목번호조사 -- 재조사
- 7차 : 7월 24일(수) 오후 15:00~17:00(진월~주월구간 수목 전수조사)
- 8차 : 7월 31일(수) 오후 15:00~16:00(필문로구간 수목 전수조사) -- 재조사

- 3) 필문로푸른길공원 조사
 - 참여자 : 도시숲위원회(김길수, 조동범, 백등기),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박계순, 조은영, 이미영), 푸른길해설사(김인숙, 박병섭), 일반시민(송순천), 사무국 공동 진행
 - 시기 : 10월 ~ 11월

- 1차 : 10월 2일(수) 오후 02:00~04:00(3차 도시숲위원회 회의 및 라벨부착)
- 2차 : 10월 16일(수) 오전 08:30~12:00(야장기입)
- 3차 : 10월 23일(수) 오전 09:30~12:30(라벨부착 및 야장기입)

3) 주월·진월 푸른길공원 조사 (2013.12 ~ 진행중)

- 1차 : 12월 4일(수) 오전 09:00~12:00(라벨부착 및 야장기입)
- 2차 : 12월 18일(수) 오전 09:00~11:00(라벨부착 및 야장기입)

2. 사람을 잇는 푸른길

1) 푸른길 별별장터

- 푸른길 별별장터 기획 위원회 활동
 - 구성 : 강혜경(위원장), 푸른길 사람위원회, 사회적기업 협의회, 동구청
 - 푸른길 별별장터 기획회의의 진행(4/25, 5/11, 8/27)
 - 푸른길 별별장터 활성화를 위한 평가 회의(7/25) 진행

푸른길 별별장터 개최

- 일시 : 5/25, 7/6, 9/7 (총 3회)
- 프로그램

: 나눔마켓(시민 참여 재미장터), 소셜마켓(사회적마을기업 장터),
아트마켓(예술체험부스), 소리마켓(음악 공연)

○ 참여도

- 나눔마켓 15팀 / 소셜마켓 3팀 / 아트마켓 1팀 / 소리마켓 1팀(3회 평균)
- 판매자 수익금 자율 기부제도 운영 (기부금으로 푸른길 수목 라벨링 작업 진행)

2) 푸른길 인문학 강좌

○ 주관 : 인문학공동체 무등지성 / (사)푸른길 공동 주관

○ 한 여름밤의 푸른길 인문학

- 일시/장소 : 2013.7.10~7.31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남광주 푸른길공원

주제 : 휴(休)	
7/10 - 휴식, 그 의미와 가치	박해용(전남대 철학)
7/17 - “마음 편안하세요?” 심리학이 전하는 내면의 평온함	정의석(전남대 심리학)
7/24 - 그리운 이와 함께하는 바다, 시 그리고 여행	이송희(전남대 국문학)
7/31 -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의 숲	장복동(전남대 철학)

○ 겨울밤 푸른길 인문학

- 일시/장소 : 2013.12.16 ~ 12.30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푸른길 기차

주제 : 길 위에서 길(道)을 찾다	
12/16 - 13억과의 대화, 중원을 향한 길	최만원(조선대 정치학)
12/23 -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서의 길 찾기 :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이현주(전남대 영문학)
12/30 - 길, 그 두려움과 떨림의 언어 :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기>	심옥숙(전남대 독문학)

3) 푸른길 신문 「푸른길로」

○ 푸른길 신문 편집위원회 활동

- 구성: 조선(편집장), 김미향, 이수나, 이현준, 고은미
- 창간호 기획회의(1/16, 1/30), 창간호 편집회의(3/13)

○ 푸른길 신문 발행 및 배포

- 일시 : 5/27 (1호 4000부 발행), 9/5 (2호 4000부 발행)
- 주제 및 내용

1 주제 : 집 그리고 정주	2호 주제 : 산책
푸른길 주변 주거공간, 도시개발 문제, 푸른길인 박성현(‘신시와’ 운영), 방문자센터, 장다리 텃밭 소식 등	푸른길 산책, 푸른길을 걷는 사람들, 푸른길인 백등기(계림1동 통장), 푸른길 행사, 푸른길 주변마을 소식 등

○ 푸른길 신문 배포

- 배포처 : 계림1·2동 주민센터, 주월1동 주민센터, 동명동 푸른길카페, 송화마을공동체, 양림동 푸른길 작은도서관,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광주역 관광안내소, 광주역 아름다운가게, 조선대 에펠드광세, 지산동 신시와, 대촌 남동풍 (총 11곳)

3. 마을을 잇는 푸른길

1) 퍼블릭팜- 푸른길농원 “장다리”

○ 푸른길 주변 동명동 일원에서 지역주민, 예술가와 함께 상자텃밭 50개를 제작하여 주민들과 도시농부 ‘장다리’ 모임을 구성하여 도시농업활동 전개 중

○ 참여자

: 예술가 : 신양호 등 5명 지역 작가

: 지역주민 : 백명숙 등 지역주민 50여명

○ 기간 : 2012. 11~현재까지 지속사업

○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을 통해 ‘장다리’ 텃밭활동을 공유하고 농업용수 및 주민갈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

2) 동명동 - 빗물수확공동체

○ 동명동 커뮤니티센터의 건물을 이용해 빗물저장시설을 설치, 도시텃밭 장다리의 농업용수 및 건물청소용수 등으로 활용

○ 일정

: 빗물비오톱과 빗물정원 조성 - 8~10월

: 빗물활용 환경교육- 10월
 : 협력단체 관계자 설계회의(설명회), 주변주민 참여 빗물활용 교육, 협의회구성
 : 7~10월

3) 전국 폐선부지 푸른길 네트워크

- 2013년 여수, 광양을 비롯한 원주, 부산, 서울 등의 도시에서도 폐선부지의 활용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민간단체, 행정에서 광주푸른길공원 벤치마킹 사례가 증가
- 폐선부지 푸른길 전국네트워크 활동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의 성과를 만들지 못함.
- 전국 폐선부지푸른길 조성 지원을 위한 활동 내용.
 : 4월 19일 여수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관련 토론회 참석, 푸른길사례발표
 : 6월 13일 울산 폐선부지 관계 공무원 푸른길 답사
 : 8월 21일 부산 동해남부선 토론회 참여(부산 해운대)
 : 9월 24일 원주 중앙선 폐선부지(40여km) 관련 워크숍 참여
 : 11월 1일 경기도시공사 푸른길답사
 : 11월 2일 원주환경운동연합 푸른길 투어
 : 11월 29일 서울시 공원조성과 경의선폐선부지 활용관련 광주푸른길방문

□ 사업평가

- 도시숲과 사람, 마을을 잇는 푸른길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단체의 다양한 실험과 실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4년 확대, 정착되는 활동전개예정
- 푸른길시민참여관리활동의 기반 조성활동의 성과와 제도적 시민참여 푸른길관리활동의 지원을 이끌어냈음.
- 이후 많은 시민들의 직접적으로 푸른길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리프로그램 필요.



[국가공원운동- 중앙공원 조성활동]

□ 사업목적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수립완료 후 중앙공원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운동 전개
- 광주의 미조성공원으로 89만평에 이르는 중앙공원이 지정후 30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 전개
- 중앙공원의 조속한 조성과 이를 위한 행정과 시민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

□ 사업개요

- 조경학회의 국가도시공원 운동과 연대하고, 광주에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1.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발대식
 - 국가도시공원 민관네트워크 준비모임 : 3월 14일/ 광주광역시청
 -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 포럼 : 6월 26일, 5.18기념문화회관 대동홀
2.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홍보 및 대안정책 개발
 - 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20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모색
 - “공원, 일몰제. 광주의 대책과 전망은?”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 6월 17일. 광주시의회
3.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 '중앙공원 만인화'
 - 일자 : 6월 8일
 - 장소 : 중앙공원내 풍암저수지 공원
 - 내용 : 중앙공원을 지키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의 참여로 그려낸 중앙공원계획 재수립, 미조성중인 중앙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참여 운동 일환, 체험 부스 등 운영

□ 사업평가

-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구와 법개정운동을 중앙공원 조성에 대한 대안 제시
-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제에 대한 공유와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운동]

- 한새봉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1공구 계획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지역시민단체(환경연합, 녹색연합, 생명의 숲, 한새봉지킴이 등)와 주민들이 연대('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위원회' 구성) 하여 전개.
-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장 면담등을 통해 순환도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활동. 결국 광주시는 주민, 시민사회의 견을 받아들여 1공구 노선을 철회하고 우회 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환경인권도시포럼]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과 인권 워크숍 _ 도시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 사업목적

- 환경생태계 파괴, 생물종다양성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국가 경제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
- 인권과피로 귀결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함. 유엔인권선언(48년), 인간환경선언(72년) 그리고 리우선언(92년) 등에 의해 인권과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함.
- 지구 환경위기로 인한 피해사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 3세계(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실상 그리고, 자본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착취가 낳은 피해를 고찰하고 대응책을 모색.
- 5.18민중항쟁 33주기를 맞아, 5.18 민중항쟁의 정신 계승과 발전의 일환으로 '5.18정신과 환경 기후정의, 혹은 인권과 환경- 인류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Sustainable Future For All)라는 주제의 토론분과를 정함.

□ 사업 개요

- : 2013년 5월 17일(금) 오후 1시~4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2
- 주제 : 환경과 인권 도시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 발제 및 토론자

1)사회자 : 공진성 교수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주제 발표자

- 제1주제 : 환경정의와 인권 Environmental Justice and Human Rights
: 이시재(한국.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성공회대 NGO학과 초빙교수)
- 제2주제 : 지속 가능한 인권으로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 _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례를 중심으로
: Dipti Bhatnagar 딥티 바트나가르(모잠비크. 국제 지구의 벗, 기후정의와 에너지 코디네이터)
- 제3주제 : 환경 기후위기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실상과 대안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가 नेपाल에 끼치는 영향
: Prakash Sharma 프라카시 샤르마 (네팔. Pro Public / 지구의 벗 네팔 사무총장)

3)토론자

- 지정 토론자
 - 장재현(글로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현지(환경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 참여자 전체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사업평가

-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 행사 일환으로 추진된 행사임.
- 환경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차원에서 인권보장이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자연권을 위한 활동과 향후 전망을 살펴 보는 기회 제공
- 인권옹호측면에 있어 자연권에 기초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
- 지구 공동의 환경과 인권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교류의 과정

[아마존 원주민 초청 특강 및 간담회]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

□ 사업목적

- 생명의 보고이자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개발 압력으로부터 아마존을 지켜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 환경운동가를 초청 아마존 현장과 현실을 공유함.

□ 사업내용

- 개요 : 지구적 자산인 아마존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를 초청하여 특강과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 7시~9시
-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층 광주은행 홀(미정)
- 주최 : 광주환경연합,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프로그램 :
 - 아마존 영상(10분)
 - 발표
 - 환경보호를 위한 아마존 세코야족의 활동_석유개발로 인한 아마존대지의 문제 : 변호사 Vanessa Barham. 세코야 부족장 Eder Payaguaje, President
 - 참여자 전체 간담회/질의 및 응답(40분)
- 참여 : 학생, 환경연합 회원, 일반 시민 학생 80여명 참석

□ 사업평가

- 지구환경문제에 공감대 확산.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달받고, 우리(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숙고할 기회 제공



환경교육

사업목적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계층별, 주제별 쉽고 재미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생태적 가치관 형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개요

- 자연나들이와 캠프를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감. 자원순환교실과 하천교육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학교 내에서의 에너지 교육을 통해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간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함. 지역 내의 다양한 교육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 사업내용

1.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구분	주제	분야	내용	유형
1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	지구가 멎들어가고 있어요!	전체
2	종이를 아껴쓰면 나무가 웃어요	자원순환 -종이	SOS! 숲을 구하라!	이론
			신문지를 먹는 물고기 만들기	체험
			신문지로 예쁜 쇼팽백 만들기	체험
			우유팩으로 연필꽂이 만들기	체험

5	T셔츠의 여행	자원순환 -현옷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이론
			현 T셔츠를 이용해서 차받침 만들기	체험
6			현 청바지를 이용해서 수납벽걸이 만들기	체험
7	와~ 너무 많은 일회용품	자원순환 -일회용품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	이론
			일회용품으로 예쁜 나비와 곤충 만들기	체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해 화분 만들기	체험
			고무장갑의 변신 -꼬불꼬불 뱀, 망둥어 만들기	체험
8			유리병으로 저금통 만들기	체험
9				
10				
11	자연과 폐품이 만나면..	자원순환 -전자폐품	침팬지는 핸드폰을 싫어해!	이론
			전자폐품이 움직이는 동물과 사람으로 변신!	체험
12	천 잇기, 자연 잇기	자원순환 -현옷	빈 병과 차투리 천으로 반건고리 만들기	체험
13			향량리스 만들기	체험
14	마스크로 내 몸을 지키자!	대기오염	긴급!! 심각한 대기오염	체험
			이번 겨울엔 마스크가 유행!	체험

1)기린아지역아동센터

- 일시 : 3월~7월, 매월2회 10차시 진행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 15명
- 내용 :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를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전달.

2)해피존지역아동센터

- 일시 : 9월~12월, 매월2회 8차시 진행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 13명

- :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만들기 뿐 만 아니라 발표, 자연물놀이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함.



2. 기후변화와 에너지

1) 광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 일시 : 3월~11월 매월2회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72명
- 내용 :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봄. 실내, 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이론과 답사를 병행함.
- 세부 프로그램

	주제	유형
3/29 ()	O. T : 1 계획이야기, 모둠구성 및 주제정하기	실내
4/12 4/26 (금)	? 에너지??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배워보고 찾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관계 알아보기 -4월 26일은 '체르노빌 핵사고 28주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실내
5/9(목) 5/24(금)	도시숲을 찾아서 -기후변화와 나무 이야기 그리고 도시숲 푸른길 -푸른길 걷기, 풀-꽃-나무 찾기, 숲과 도시의 연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나무와 숲의 효과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의 변화 찾아보기	실외

6/16 6/28 (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의 주범을 알아내고 범인을 찾아내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토론 -핵과 화석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만들기 토론 - 온도계, 습도계 직접 만들기	실내
8/23 (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이해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지 현장방문 -8월 22일 '에너지의 날'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 -에너지 손실지점 찾기와 절약방안 찾기	실외
9/13 9/27 (금)	주차장 비우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기 -9월 22일은 '세계 차없는 날' 을 맞아 부모님, 선생님의 참여 설득 -팅빈 학교 주차장에서 체험 및 놀이	실외
10/11 10/25 (금)	기후에너지 런닝맨 -놀이형태로 미션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알리는 계기 -기후변화, 에너지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임 -TV예능 '런닝맨' 방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	실외
11/16 (금)	결과 발표 및 활동전시 -진행한 교육에 대한 내용 발표 -학교 축제와 연계	강당



3.

1) 수완중학교

- 일시 : 3월~11월 매월 1회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35명
- 내용 : '물GO氣' 를 주제로 광주천의 물고기를 통해 도심 하천생태계 이해, 물길과 자연에 대한 예의를 배움.
- 세부 프로그램

	기간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1	3월	OT/광주천 물GO氣 소개, 미션과 주제 정하기		수완중학교
2	4월	물길과 물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천 둘러보기, 물고기 서식 환경 조사, 수질관찰 • 물고기 이름표 만들기, 자연도 생태조사 	광주시청 광주천둔치
3	5월	물풀과 수생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풀, 수생식물 채집 관찰 생태세밀화 • 물고기와 의 관계, 자연놀이 	광천2교 두물머리
4	6월	물속생물과 수서곤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곤충 채집 관찰 세밀화 • 물고기 먹이, 광주천자연놀이 	원지교
5	7,8월	지천과 계곡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심사 계곡 물속생물 채집 및 관찰 • 계곡 생태계, 물놀이 	증심사천
6	9월	물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길, 광주천에서 살아요. • 광주천생태지도 만들기 	수완중학교
7	10월	발표회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물고기, 주제 발표 및 물길 작품 설치 	수완중학교
8	11월	생태체험프로젝트발표회		



2) 동산초등학교

- 일시 : 5월 3일(금)
- 대상 : 동산초등학교 6학년 106명
- 내용 : 광주천 생태 알아보기, 도심에서의 광주천의 역할 등 광주천을 답사하면서 광주천에 대한 설명과 놀이를 진행함.
- 세부프로그램

구분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광주천 소개, 도심하천의 기능과 역할, 체험학습 전체 일정 소개(물고기, 물풀, 물새 생태계) ○사람들의 생활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환경오염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과 물고기 채집 및 관찰 (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우수와 하수이야기 (광주천오염원-비점오염원) 	장수교 주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천 수량과 수질, 하천의 구조, 하천에 있는 시설물 역할 -시설물(파손형태와 오염원), 펌핑수와 지천이야기 	증심사천 주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과 둔치식물이야기 (자연형 하천, 자연 생태계이해) -하천과 동물(수달배설물, 애기똥풀, 고마리 등) 	방학교, 설월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과 수생식물, 물의 정수(습지의 기능과 역할 이해) -물풀, 물새, 물고기 오감 생태놀이 	생태관찰테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과 수서곤충(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광주천 물속생물의 이해 	자갈모래톱



4. 프로그램

1) 어린이 자연나들이

• 프로그램

	제목	장소
5/25(토)	행복한 꼬꼬댁 만나기	화순 다솔농장
6/22(토)	씩씩한 반달이 만나기	구례 중복원기술원

- 내용 : ‘동물과 친구되기’ 라는 테마를 가지고 2차례 진행함. 방사형 양계장을 방문하여 닭을 관찰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리산 반달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음. 아이들이 체험으로 동물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곡, 하천 둔치 등 자연 속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함.



2) 어린이 여름캠프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섬, 통영 연대도에서 놀자’

- 일시 : 7월 28일(일)~30일(화), 2박3일
- 장소 : 경남 통영 연대도
- 내용 : 에코아일랜드 연대도에서 캠프를 개최함. 마을 둘러보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음. 남해 바다 물놀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함. 태양열조리기, 자전거발전기, 페시브하우스 등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의미를 전달함. 총 28명이 참여함.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초·중등 교육에 주안점을 둔. 작년과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
-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환경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 초·중·고, 성인 등 각 대상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
- 교육을 받는 대상에게 환경연합의 의미와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교육원 활성화 및 전문 환경교육강사 양성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2. 사업내용별 평가

- 자원순환교육은 매뉴얼이 작성되어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편임. 교육 객체인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와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음. 각 주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만들기를 통한 자원순환교육이라는 점이 명확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보완과 수정을 거쳐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 계층에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 기후에너지 교육은 수완중학교와 2년 연속으로 함께함. 실내 이론 수업과 실외 체험 수업이 병행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에서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전달함. 기후분야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감.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하천교육은 5가지의 테마를 통해 광주천의 생물태계를 체험할 수 있게 진행됨. 각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 강사진을 가진 것이 장점임.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홍보를 통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단위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 프로그램은 자연나들이와 캠프로 이뤄짐. 전반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변화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교육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 어린이 회원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원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3. 주요 성과

- 환경교육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를 강화함.
- 자원순환교실의 교육 매뉴얼이 체계화되어 프로그램의 안정화에 기여함.
- 교육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대상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재교육 요청, 적극적인 참여 등 교육의 만족도가 높음.

회원 · 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회원 참여 활성화 회원 주도형 활동 확산
- 적극적인 회원배가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 구축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 활동
- 생태적 가치를 담은 시민(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환경이슈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환경연합 장기 발전을 위한 조직체계 강화

□ 사업내용

1. 회원 및 회비 현황

1) 회원현황(2013.12.31 기준)

회원구분	(명)	회비납부 방법	회원 수(명)
개인회원(회비:5천원)	1,497	자동이체	1582(90%)
개인회원(회비:1만원)			
가족회원(회비:2만원)	65	지로	42(2.3%)
단체, 기업회원(회비:5만원)	12		
어린이청소년회원(2~3천원)	145	통장/직접납부 등	137(7.7%)
평생회원(1~2백만원/1회이상)	42		
계	1,761	계	1,761(100%)

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천원	13,963	11,937	13,898	14,839	12,798	13,279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천원	14,553	13,172	12,243	14,056	13,196	13,674
*후원금을 제외한 정기 회비 총액(년) : 161,608,000원						

3)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 기간 : 5월 13일~ 7월 31일
- 슬로건 : “자연을 안아주세요, 회원이 되어주세요”
- 내용 : 현수막 홍보, 홍보 리플렛 제작, 대면 홍보 등 및 가입권유
- 성과 : 108명 신규 회원 가입
- 목표달성율 : 108/300 _ 36%
- 평가 : 목표달성율에 미치지 못함. 다양한 홍보를 시도하지 못하는 등 회원확대를 위한 집중활동이 미진한 이유로 목표에 못미침. 상시적 회원확대 및 기획 준비를 충분히 하여 조직적 회원확대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2. 회원모임

[]

- 13여 회원 참여, 매월 정기모임 개최
- 택시 운전기사 중심의 회원모임으로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현장 고발 및 시정 요구 활동
- 환경연합 정기 행사에서의 회원 참여 조직화 등 행사지원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일시 :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모임
- 장소 : 광주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기록함. Daum 모래톱 카페에 기록 공유.
- 내용 :
 - 광주천 사진전을 개최. 광주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래톱 활동을 알림.
 - 광주천 체협 및 하천생태 교육 개최(가족,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상)

- 광주천 전구간 오염원 및 자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하계 단합대회 개최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

		내용
1월 6일(일)	영산포 흥어마을	정기총회
2월 3일(일)	광주천 선교~용산교	정기답사 모니터링
3월 3일(일)	양림동	문화유적 답사
4월 7일(일)	무등산	샘골 답사
5월 5일(일)	광주천 양유교~유촌교	정기답사 모니터링
6월 2일(일)	광주천 무진교~유촌교	정기답사 모니터링
7월 7일(일)	광주천 원지교~태평교	정기답사 모니터링
8월 4일(일)	곡성 죽곡면 하늘나리마을	모래톱단합대회
9월 1일(일)	광주천 원지교~양유교	정기답사 모니터링
10월 9일(수)	빛고을시민문화원	광주천 사진전 '바람길로 흐르다'
11월 1일(금)~8일(금)	남광주 푸른길 기차도서관	광주천 사진전 '바람길로 흐르다'
2014년 1월 5일(일)	영산포 오리엔탈비	정기총회



[**흑한죽**]

- : 월 1회 정기 모임활동과 농사계절에 맞게 수시로 추가모임 진행.
- 내용 :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전라도의 섬과 자연' 을 주제로 생태답사를 진행함. 14개 가족, 약 35명 참여

	장소	내용
3월 17일(일)	무등산 옛길	무등산 옛길-역사길 걷기
4월 21일(일)	진도	전라도의 섬, 진도
5월 17일(금)~18일(토)	완도 보길도, 청산도	청산도의 돌담길
6월 9일(일)	장성	문전옥답 모내기 체험
7월 21일(일)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옛길, 빗점골 트레킹
8월 11일(일)	장성	피뽕기
10월 5일(토)~6일(일)	진도 가사도	가사도 생태탐방
11월 23일(토)	광주인권영화제	'원전마을을 쫓겨나-후타바마치 피난민의 기록' 관람
12월 14일(토)	장성	김장행사
2014년 2월 15일(토)~17일(월)	제주도 오름	정기총회



[]

- 총 70여 회원 참여, 매월 정기모임 개최
- 버스 운전기사 중심의 회원모임.
-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현장 고발과 시정 요구 활동.
- 350ppm 광주캠페인(기후보호캠페인) 참여
- 대기질개선 캠페인 참여
- 환경연합 정기행사 참여



[**사진반 디지로그**]

- 사진 이론과 실기 공부모임 및 수시 출사 진행
- 환경운동연합 활동 지원
- 광주천, 푸른길 등을 사진으로 기록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시 등 문학과 예술작품을 매개로하여 생태와 사회 그리고 일상, 인간성 등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모색하는 회원모임. 20여명의 회원
- 매월 1~2회 10여명의 회원 참석하여 시낭송회 진행
- 환경연합 후원의 밤 행사, 강정마을 책보내기 행사 등에서 시낭송회
- 나희덕 시인 초청 '시와 생태적 감수성' 강연회 개최
- 박남준 시인, 임의진 목사 공연 참여
- 생태와 문학을 교감하고 회원 단합을 위한 생태답사 진행



[회원모임]

- 회원모임은 일곡지구, 양산동 등 북구 일원에 거주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회원모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그간 활동가-회원간의 이원적인 소통과 정보공유에 멈춰있던 한계를 넘어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다원적인 회원소통 구조를 만들고자 함.
- 현재는 소수(10명 미만)의 회원만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지난 1년간 꾸준한 연락과 소식전하기를 통해 신규 회원의 참여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활동
 - 4월 27일 : 쌍룡마을 죽취봉 - 화전놀이
 - 5월 11일 : 딸기따기 체험행사 - 담양군 수북면 일대, 담양습지
 - 6월 15일 : 북부순환도로 공사지역, 한새봉



- 7~8월 모임 휴지기 및 휴가 등 이유로 잠정중단
 - 9~10월 모임 체육대회로 대체
 - 10월 22일 일곡양산회원모임 준비팀 회의
- 장소 : 양산동 소재 중국요리 식당 하오짱
- 11월 16일 : 광주노씨 제각 탐방과 삼각산 등산
 - 12월 17일 송년모임

3.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1) 한땀두땀 바느질 교실

- 일시 : 매주 수요일 10~12시
-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 내용 : 헌옷을 이용한 바느질 모임. 의류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도로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감. 참여인원의 저조로 2014년도에는 진행이 중단됨

2) 회원체육대회

- 일시 : 10월 12일(토)
- 장소 : 광주 쌍촌동 카톨릭대학교 잔디운동장
- 평가 : 회원과 회원, 회원과 사무처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사임. 많은 회원의 다양한 후원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진행함. 약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4.

1) 소식지 ‘맑은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 총 7회
- 내용 : 사무처 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월간지임. 소식지 구성과 형태에 대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함.

2) 월간 ‘함께 사는 길’ 구입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 총 12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 사는 길’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환경전문지를 월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중 구독을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

3)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기간 : 연중
- 내용 : 활동소식 및 공지사항을 알리고, 환경현안에 대한 활동을 회원들에게 전달함. 총 12회 발송하였고, 추후에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할 예정임. 별도로 웹소식지 형태로 주요행사안내 메일을 발송함.

5. 후원의 밤 행사 개최

-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18:30~21:00
- 장소 : 광주 서구 상록회관 4층 연회장
- 내용 : 기념식, 축하공연, 만찬, 350캠페인, 유기농산물 판매. 200여명 참석.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짐. 양산일곡모임,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등 활성화된 회원모임도 있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모임도 있음.
- 전년도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회원들의 참여를 넓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회원배가 활동이 작년에 비해 잘 이뤄짐. 단, 회원모집의 방법이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내용별 평가

- 회원확대캠페인은 작년에 비해 신규회원이 늘었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환경단체 회원가입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시도되어야 함. 타 지역 환경연합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함.
- 회원위원회의 재건 및 활성화 필요함.
-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작년에 비해 다양하게 마련되지 못함.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회원 참여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회원체육대회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체계화 및 안정화되어야 함.
- 회원모임의 경우, 모래톱과 물한방울 흥한춤 등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안정감 있게 운영됨.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양산·일곡 모임의 경우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소모임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음. 활동이 주춤한 소모임의 경우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홍보사업은 우편소식지, 월간지, 웹소식지의 발송이 정례화 됨. 그러나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장단점, 발행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우편, 웹소식지에 대한 구성과 내용을 상호 보완 해야 함.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홈페이지를 통한 소식전달은 잘 이뤄지나 SNS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식전달이 미흡함.
- 청소년, 청년 회원의 증대 방법이 필요

3. 주요 성과

- 회원체육대회 등 기존 회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 후원의 밤 행사로 사업비 마련
- ‘일곡 양산 모임’ 과 같은 지역회원모임이 안정화 되는 등 다양한 회원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됨.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지도위원 모임]

주요내용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정례 회의, 지도위원 모임
- 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1/3, 2/7, 3/7, 4/4, 5/2, 6/6, 7/4, 9/5, 10/2, 11/7. 8월 회의는 서면보고로 대체), 매월 활동 및 재정 보고, 주요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 등의 안건 협의
- 자문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 (1/3, 5/8, 10/2 11/7), 활동 및 재정 보고, 주요 사업과 현안 안건 협의
- 지도위원 확대 구성 및 모임 개최 (6/5)
- 기타 임위원 단합 및 친목을 위한 야유회 개최, 환경연합 전국 단위 행사 및 주요 시 국 현안 대응의 연대 프로그램에 임위원의 참여 등

□ 사업평가

- 집행위원 추가 선임 및 지도위원 참여 확대 등
- 회원 모임 활동 참여, 전국 및 지역 연대 프로그램에 임위원 참여 활발해짐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인적 등 조직 강화 지속 노력 필요

지역 및 전국연대

[]

1. 대표자회의 _ 년 4회 (1/12, 3/10, 9/28, 12/7 참석)
2. 전국국처장단회의 _ 월 1회
3. 총처장단회의 _ 격월, 필요시
4.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_ 분기, 필요시
5.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_ 1/18~19 장흥 안양면 은비치펜션
10/25~ 26 여수 화양면 안포리
6. 전국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_ 1/11~12 공주 유스호스텔.
12/6~7 충남서천 국립생태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참여 및 활동

- 광주시역 23개 시민운동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광주시의 예산 감시 및 견제, 정책 제안 및 시정 평가, 현안 대응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함.
-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 최지현 사무처장 참여
- 매월 10만원씩 회비 납부 및 사무처 활동 지원
- 한반도 평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시국회의, 공공영역 민영화 반대, 공문서 위

대응 등 시국 및 현안 대응 연대활동.

- 민선 5기 시정평가, 지방선거 시민사회 역할 모색 활동 참여
- 5.18기념 행사 등 참여

2. 권익 증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운동

-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참여. '남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지정 운동
-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운동_기자회견, 성명발표, 문화제 등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관련 시국회의 참여
_촛불문화제, 토론회, 간담회, 특검 촉구 서명운동 등 참여 _연중
- 민선 5기 시정평가 및 기자회견 _ 7/17, 광주YMCA 백제실 _ 차지행정, 지역경제, 여성,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
-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참여
- 2014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역할 모색 토론회_ 5/9, 12/27
- 철도 민영화 반대 등 연대

3. 평가

- 광주 시정 감시와 견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주민과 협력하여 추진
- 사후적 평가와 비판에서 머물지 않고,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있음.
-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와 권력 남용에 대한 규탄과 개혁 촉구 활동을 시민사회 만이 아니라 각 계와 연대하여 진행함
- 보수언론 등의 5.18민주화 운동 폄훼와 왜곡, 5.18 민주화 운동가와 유가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연대 대응 등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폄훼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 하며 대응함.
- 지역의 현안에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의제를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성과를 이어감.
-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필요



[21협의회]

- 4차의제(2012년 ~ 2016년) 실천사업 참여_ 교육, 하천, 기후대기 분과
-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 지구의날 행사, 승용차 없는 날 행사, 푸른광주의 날, 광주천 시민문화제 등 환경 기념 행사 연대 활동 등 참여
- 영산강 둔치 현황 조사 및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모색 활동

2013 재정결산(안)

일반회계 결산(안)

[2013 일반회계 결산]

		합계					
이월금		37,041,448	차기이월금 40,614,384				
회비	자동이체	150,618,000	경상비	공과금	전화통신비 1,814,680 건물관리비 3,982,210		
	지로납부	3,51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060,390			
	직접납부	610,000		비품구입 1,760,000			
	평생회원	3,000,000		후생	식사비 3,784,150		
	특별(임원)회비	3,870,000		복지	퇴직적립금 9,061,000		
		161,608,000		보육비	보육비 1,000,000		
후원금	회보광고	0	보험료	보험료 4,008,390			
	후원/기부금	71,988,800	인건비	급여 119,333,270 상여금 9,706,500			
	소계	71,988,800	소계	156,510,59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57,964,460	사업비	중점사업	환경교육 20,613,262		
	교육 참가비	12,255,900			기후보호운동 34,119,206		
	소계	70,220,360			생태도시 만들기 31,761,356		
기타	자료대여/판매	118,000			영산강,광주천 지키기 16,713,140		
	이자수익	221,370			소계	103,206,964	
	차입금	3,000,000		회원사업	소식지, 월간지 16,783,140		
	기타수익	396,120			홍보물제작, 발송 9,055,090		
	소계	3,735,490			회원조직/참여사업 511,230		
		회원모임 지원 1,700,000					
수입	수입계	307,552,650		344,594,098	지출	웹 운영 236,160	
			사업비 소계			소계	28,285,620
						조직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2,826,310
							후원의 밥 3,831,900
							중앙/지역연대 5,956,630
소계	12,614,840						
사업비 소계	144,107,424						
기타	기타 소계	3,361,700	3,361,700	지출계	차입금이자 및 상환 3,000,000		
					기타지출 361,700		
					소계	3,361,700	
수입	307,552,650	지출	303,979,714				
수입계	344,594,098	지출계	344,594,098				

현금 및 예금 명세

(: 원)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	010-107-302497	1,218,130
보통	광주	053-107-306601	651,964
보통	광주	001-107-385913	675,491
보통	광주	001-107-385922	728
보통	광주	053-107-309122	6,448,217
보통	광주	001-107-385889	1,634
보통	광주	055-107-002005	1,624
보통	광주	003-107-315495	1,707
보통	광주	001-107-385898	704
보통	광주	003-107-315501	101,718
보통	광주	053-107-313545	859
보통	광주	003-107-318147	3,782
보통	농협	617-01-145946	23,149
보통	농협	301-0094-7367-21	602,685
보통	농협	616-01-127261	0
보통	신협	08022-12-001659	15,706,056
예탁	신협	150-283-267764	15,000,000
현금	현금		175,936
일반회계 총계			40,614,384

■ 출자금 명세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신협	3-004661-1119	1,074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원)

입대인	기간	금액
북동신협	2003년 3월~(2년씩 연장)	50,000,000

특별회계 결산(안)

특별회계 예금명세

(: 원)

	계좌	금액
적립금	신협 172-025-755974	6,485,695
	신협 172-025-755981	12,120,368
	신협 172-025-910479	4,180,843
	신협 172-026-154424	856,100
	신협 172-026-154462	791,100
	신협 172-026-626869	7,874,016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 003-107-312239	102,216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 003-107-312220	546,325
특별회계 합계		32,956,663

■ 퇴직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30,741,689	차기이월금	32,181,342
퇴직금적립	9,061,000	퇴직금지급	8,284,005
이자수익	1,053,632	기타지출	390,974
소계	10,214,632	소계	8,674,979
수입	10,214,632	지출	8,674,979
수입계	40,856,321	지출계	40,856,321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재정

(: 원)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441,882	차기이월금	102,216
분담금	0	영산강 현장조사	217,200
기부금	0	영산강사업 소송	6,500
결산이자	234	기자회견/자료	95,000
		광주호 독농이기 대응	21,200
소계	234	소계	339,900
수입	234	지출	339,900
수입계	442,116	지출계	442,116

■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 재정

(단위:원)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277,692	차기이월금	546,325
분담금	930,000	운영	
후원금	571,000	소모품/비품	0
사업비	0	출장/유류비	30,000
참가비	2,185,000	회의/식사비	0
결산이자	433	사업	
		교육	460,500
		홍보	296,000
		정액	0
		조직	2,631,300
	3,689,433	소계	3,417,800
수입	3,689,433	지출	3,417,800
수입계	3,964,125	지출계	3,964,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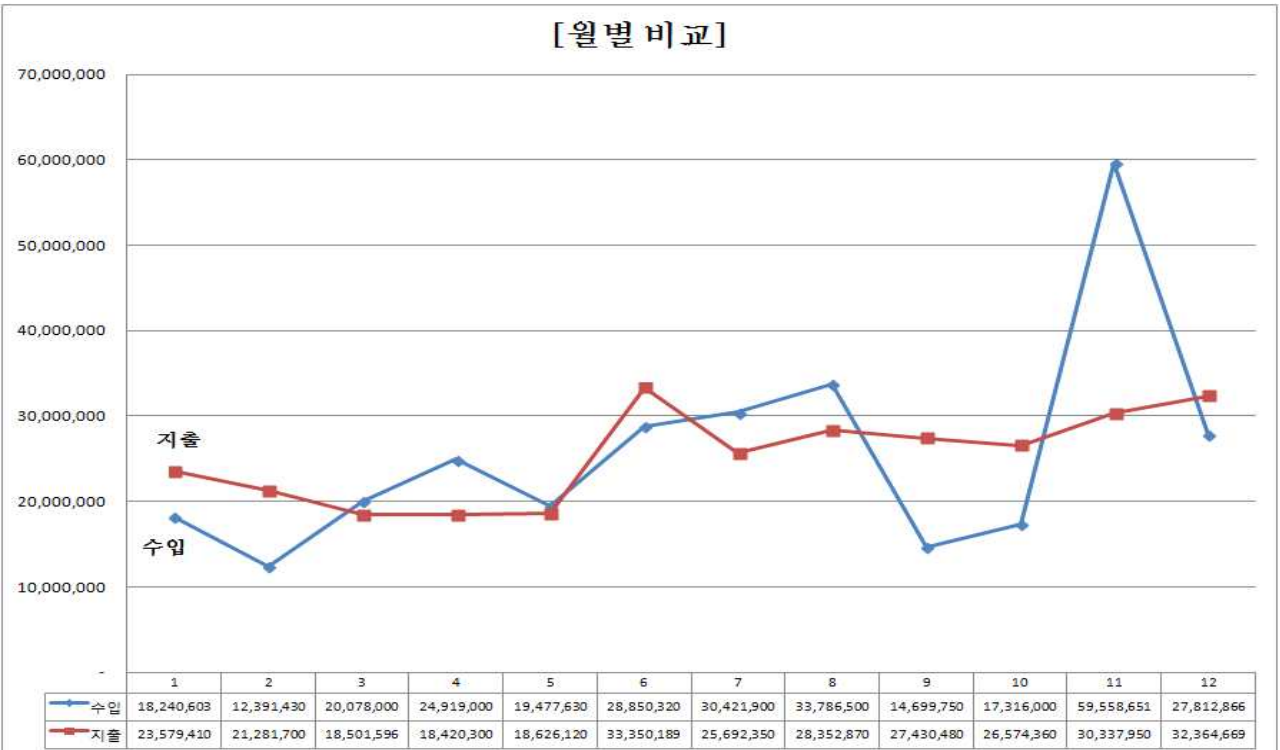
[예-결산 실적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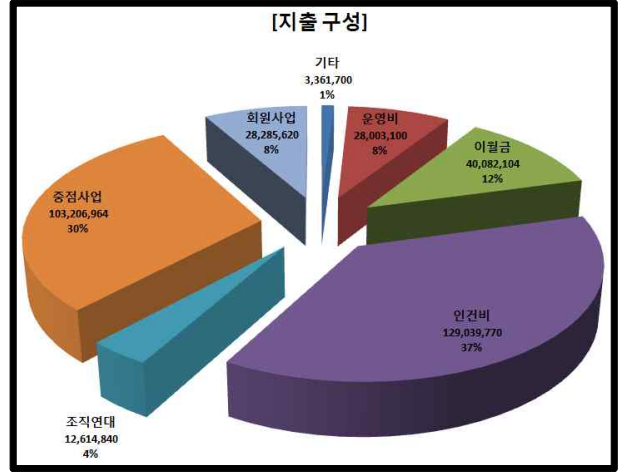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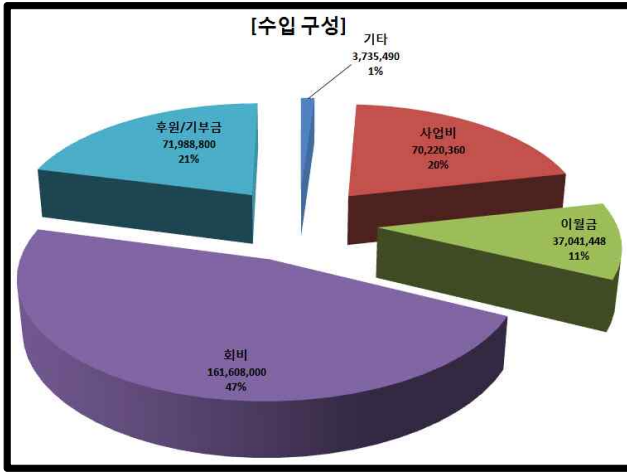
					지출부						
		예산	결산	실적	달성율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율	
		37,041,448	37,041,448			차기이월금	-	40,614,384			
회비	자동이체					경상비	공과금	6,000,000	5,796,890	-203,110	96.6
	지모납부	177,600,000	154,738,000	-22,862,000	87.1		소모품/수선비	2,400,000	2,060,390	-339,610	85.8
	직접납부						비품구입	3,000,000	1,760,000	-1,240,000	58.7
	평생회원	2,000,000	3,000,000	1,000,000	150.0		후생복지	18,786,490	12,845,150	-5,941,340	68.4
	특별회비	5,400,000	3,870,000	-1,530,000	71.7		보육비	1,200,000	1,000,000	-200,000	100.0
		185,000,000	161,608,000	-23,392,000	87.4	보험료	6,700,000	4,008,390	-2,691,610	59.8	
후원금	회보광고	2,400,000	0	-2,400,000	/	인건비	152,714,840	129,039,770	-23,675,070	84.5	
	후원/기부금	70,000,000	71,988,800	1,988,800	102.8	소계	190,801,330	156,510,590	-34,290,740	82.0	
		72,400,000	71,988,800	-411,200	99.4	사업비	중점,연속사업	110,000,000	103,206,964	-6,793,036	93.8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75,000,000	57,964,460	-17,035,540	77.3		회원사업	39,940,000	28,285,620	-11,654,380	70.8
	교육참가비	20,000,000	12,255,900	-7,744,100	61.3		조직사업	15,200,000	12,614,840	-2,585,160	83.0
		95,000,000	70,220,360	-24,779,640	73.9	소계	165,140,000	144,107,424	-21,032,576	87.3	
기타	자료대여/판매	558,552	118,000	-440,552	21.1	기타	예비비	34,058,670	0	-34,058,670	
	이자수익	0	221,370	221,370			차입금상환	0	3,000,000	3,000,000	
	차입금	0	3,000,000	3,000,000			기타	0	361,700	361,700	
	기타수익	0	396,120	396,120	100.0		소계	34,058,670	3,361,700	-30,696,970	9.9
		558,552	3,735,490	3,176,938	668.8						
수입		352,958,552	307,552,650	-45,405,902	87.1	지출	390,000,000	303,979,714	-86,020,286	77.9	
수입계		390,000,000	344,594,098	-45,405,902	88.4	지출계	390,000,000	344,594,098	-45,405,902	88.4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지출부							
					항목	2012	2013	증감	증감률			
						50,510,739	37,041,448	-13,469,291				
					차기이월금	37,041,448	40,614,384	3,040,656				
회비	자동이체	149,528,000	150,618,000	1,090,000	0.7	경상비	공과금	5,368,481	5,796,890	428,409	8.0	
	지로납부	3,680,000	3,510,000	-170,000	-4.6		소모품/수선비	1,982,900	2,060,390	77,490	3.9	
	직접납부	660,000	610,000	-50,000	-7.6		비품구입	1,948,100	1,760,000	-188,100	-9.7	
	평생회원	1,000,000	3,000,000	2,000,000	200.0		후생복지	15,209,300	12,845,150	-2,364,150	-15.5	
	특별(임원)회비	4,425,000	3,870,000	-555,000	-12.5		보육비	3,800,000	1,000,000	-2,800,000	-73.7	
소계					159,293,000	161,608,000	2,315,000	1.5				
후원금	회보광고	0	0	0	0	사업비	보혐료	6,266,670	4,008,390	-1,726,000	-36.0	
	후원/기부금	65,104,233	71,988,800	6,884,567	10.6		인건비	142,363,190	129,039,770	-13,323,420	-9.4	
소계					65,104,233	71,988,800	6,884,567	10.6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52,389,560	57,964,460	5,574,900	10.6	사업비	중점,연속사업	86,151,494	103,206,964	17,055,470	19.8	
	교육참가비	14,849,200	12,255,900	-2,593,300	-17.5		회원사업	33,790,870	28,285,620	-5,505,250	-16.3	
	소계						67,238,760	70,220,360	2,981,600	4.4		
기타	자료대여/판매	202,000	118,000	-84,000	-41.6	기타	조직사업	11,901,400	12,614,840	713,440	6.0	
	이자수익	617,451	221,370	-396,081	-64.1		소계	131,843,764	144,107,424	12,263,660	9.3	
	보육비지원금	2,400,000	0	-2,400,000	-100.0		기타	차입금상환	0	3,000,000		
	차입금	0	3,000,000	3,000,000				기타	42,000	361,700	319,700	761
	기타수익	499,670	396,120	-103,550	-20.7			소계	42,000	3,361,700	3,319,700	7,904
소계					3,719,121	3,735,490	16,369	0.4				
					295,355,114	307,552,650	12,197,536	4.1	지출 308,824,405 303,979,714 -4,844,691 -1.6			
수입계					345,865,853	344,594,098	-1,271,755	-0.4	지출계 345,865,853 344,594,098 -1,271,755 -0.5			

[월별 비교]





- 120 -

[명세]

구분	품명	수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고
95-01-01-01	스크린	1	1995	600,000	
95-02-11-01	사무용책상	11	1995		6기 폐기(2013)
95-03-01-01	슬라이드 프로젝터	1	1995	300,000	폐기(2013)
96-01-01-01	잠자리	1	1996		
97-01-42-01	점외식 의자	42	1997	420,000	폐기(2013)
98-01-01-01	월계회 백색칠판	1	1998	50,000	
98-02-01-01	OHP 환등기	11	1998	200,000	폐기(2013)
00-01-02-01	회의용 탁자	2	2000		
00-02-01-01	강의용 백색칠판	1	2000	60,000	
01-01-11-01	목재 6단 책장	11	2001	950,000	
02-01-14-01	교육용 책상	14	2002	110,000	폐기(2013)
02-02-03-01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02-03-02-01	백색 5단 책장	2	2002		기중
02-04-06-01	원탁용 점외식자	6	2002	200,000	
03-01-01-01	복사기	1	2003	1,560,000	폐기(2013)
03-02-02-01	키본	2	2003	560,000	
03-03-08-01	사무용의자	8	2003	490,000	4기 폐기(2013)
03-04-02-01	책장 철재 유리 책장	2	2003		기중
03-05-01-01	책장형 파일박스 4단	1	2003	140,000	
03-06-01-01	원형탁자(소)	1	2003	30,000	
03-07-03-01	핸드마이크 소	3	2003	140,000	폐기(2013)
03-08-01-01	철재 캐비닛	1	2003		
03-09-01-01	팩스 받침대	1	2003	100,000	
03-10-36-36	파티션	36	2003	1,780,000	
03-11-03-01	이동용 책상	3	2003	90,000	
03-12-22-01	나무 이젤	22	2003	264,000	폐기(2013)
03-13-01-01	원형탁자(대)	1	2003	200,000	폐기(2013)
04-01-01-01	검수레	1	2004	37,800	
05-01-02-01	모니터 1	1	2005		폐기(2013)
05-01-02-02	모니터 2	1	2005		폐기(2013)
05-02-01-01	웹캠 스크린	1	2005	600,000	
05-03-01-01	램프	1	2005	600,000	
07-01-02-01	데스크탑 1	1	2007		폐기(2013)
07-01-02-02	데스크탑 2	1	2007	1,151,000	폐기(2013)
07-02-06-01	목재 3단 책장	6	2007	1,050,000	
07-03-01-01	레이저 포인터1	1	2007	87,000	
07-04-01-01	냉난방기(RAS-11)	1	2007	1,100,000	
07-05-01-01	냉난방기(CX-505FX)	1	2007	2,300,000	
07-06-01-01	냉난방기(CX-355F)	1	2007	1,8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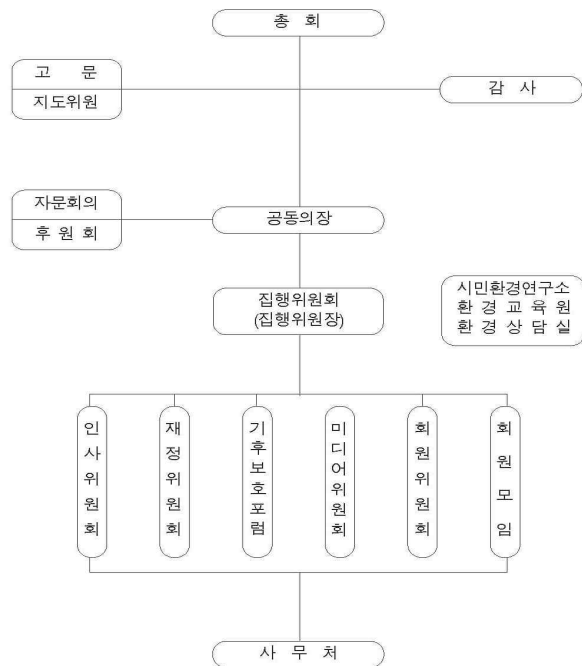
07-07-01-01	(REH-221S)	1	2007	140,000	
08-01-01-01	메가폰	2	2008		
08-02-01-01	데스크탑 3	1	2008	1,120,000	폐기(2013)
09-01-01-01	프린터기(잉크젯)	1	2009	115,000	
10-01-01-01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10-02-01-01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10-03-02-01	기부금함	2	2010	120,000	
10-04-02-01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11-01-01-01	데스크탑 4	1	2011	670,000	
11-02-01-01	데스크탑 5	1	2011	670,000	
11-03-01-01	노트북 1	1	2011	888,000	
11-04-02-01	노트북 2	1	2011	845,000	
11-04-02-02	노트북 3	1	2011	845,000	
11-05-01-01	레이저 복합기	1	2011	170,000	
11-06-01-01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12-01-01-01	데스크탑 6	1	2012	750,000	
12-02-01-01	노트북 4	1	2012	866,000	
12-03-01-01	싱크대, 조리대	1	2012	350,000	
12-04-01-01	근조기	1	2012	250,000	
12-05-01-01	깃발	1	2012	50,000	
12-06-01-01	냉장고	1	2012		
12-07-01-01	원목 긴의자	1	2012		
12-08-01-01	프린터기(레이저)	1	2012		
12-09-06-01	전화기	6	2012		
12-10-14-01	목재 6단 책장	14	2012		
13-01-16-01	강의실 접이 책상	16	2013		기증
13-02-48-01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48	2013		기증
13-03-01-01	레이저 포인터2	1	2013	60,000	
13-05-01-01	복사기(Docu 2508)	1	2013	1,700,000	
13-06-03-01	사무용 의자	4	2013		기증
13-07-04-01	사무용 책상	4	2013		기증
13-08-03-01	소파	3	2013		기증
13-09-01-01	소파 테이블	1	2013		기증
13-10-02-01	야외 접이 테이블	2	2013	70,000	
13-11-01-01	음향시스템	1	2013		기증
13-12-01-01	전동스크린	1	2013		기증
13-13-02-01	책상 서랍장	2	2013	70,000	
13-15-01-01	태양광 발전셋트	1	2013	485,000	
13-16-01-01	태양열조리기	1	2013	220,000	
13-17-01-01	회의용 테이블	1	2013		기증
13-18-06-01	회의용 테이블 의자	6	2013		기증
				28,173,400	

2014 조직구성(안)

임·위원 선임(안)】

ai 따로 있음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도



고문 : 정철웅(상임), 전홍준, 정구선, 장두석,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윤장현

■ 감사 : 오원만(*임기중), 김정민(*임기중)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만료), 임낙평(*임기중), 이인화(*임기만료)

■ 집행위원회 : (정관상 집행위원회는 30인 이내 구성)

- 집행위원장 : 정용식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처 국장, 회원모임 회장

기후보호포럼_ 차인수

녹색감시단_ 정영남

물한방울_ 흡한준_ 국윤주

광주천지킴이_ 모래톱_ 홍기혁

환경통신원_ 김미수

디지로그_ 박시중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_ 모임_ 송형일

사무처장_ 최지현

파견국장_ 이경희 /9명

- 선임직 : 정용식, 진재영, 최기호, 최홍엽, 선세근, 김태중, 조경숙, 박덕희, 신수봉, 조어진, 박태규, 김춘희, 최 철 /13명

■ 부설기관

- (사) 광주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공석), 소장(최기호)

■ 사무처

- 사무처장(최지현. *임기중)

- 팀장(박상은),

- 간사(박병인, 박지연, 황현미)

※ 정책기획위원(박미경, 비상근)

※ (사)푸른길 파견(이경희 국장)

2014 사업계획(안)

2014 사업 계획(안)

배경과 전망

< 및 국제 현황>

- 4대강사업 폐해 및 국가재정 손실에 따른 후속 개발과 규제완화 가속화, 공공영역 민영화 우려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핵에너지 확산 우려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문제가 전 세계에서 발생, 빈도와 범위 확대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공고화로 약자의 생존권과 생태환경의 위기

<지역 및 환경연합 현황>

- 2014 지방선거. 지속가능의제 담보상태
- 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성에 벗어난 광주전남권의 난개발 공약 남발 우려
- 후쿠시마 사고 여파 등의 영향으로 탈핵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기대
- 광주환경연합 회원 중, 청장년 회원의 비중 감소, 어린이 회원활동 위축
- 정례 국제행사(동아시아 기후포럼,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개최 예정

□ 사업기조

- 탈핵과 에너지 전환, 기후보호 이슈의 생활화, 현장화
- 지방분권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전환 등의 지역의제 설정 및 구체적 실현
- 시민 참여, 생활형 환경운동을 통한 대안 모색과 현장 활동 강화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참여 활성화
- 연대와 협력을 통한 녹색공동체 가치 구현, 이를 위한 지역운동과 국제연대

□ 중점사업

- 탈핵 및 에너지 전환
- 기후보호 운동
- 생물종다양성 보전운동_보호지역 지정 운동
-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운동

□ 추진사업

- 회원조직화 사업

- 영산강 살리기 운동
-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 생태도시,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 생태보전운동
- 환경교육
- 지역 및 전국 연대 (지방선거 대응 등)

기후보호운동

사업목적

- 문제로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지역과 생활에서 부터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실천적 활동 모색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 캠페인 등 국제적 공동행동
-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준비와 비상계획구역 확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핵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 사업 개요

- 4회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개최
-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 등 정책 활동
- 눈에 보이지 않는 핵발전소의 위협과 방사능의 공포를 가시화

□ 사업 내용

[기후보호 캠페인]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모임 구성과 캠페이너 육성.

1. 기후에너지학교

- 일시 : 연 2회
- 내용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후에너지 이론교육 및 현장답사
: 현장답사 프로그램은 회원 및 시민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회원화 대 계기로 활용
: 기후에너지 활동가 모임인 '기후천사' 등으로 활동 지속화

2. 350

- 일시 : 연중
- 내용 : 350캠페인의 지역내 활성화를 위한 캠페이너 양성과 캠페인 확대.
: 청소년, 대학생 등의 참여확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 전개

3. BIG ASK

- 일시 : 연중
- 내용 : 2008년 영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영국 '지구의 벗'의 BIG ASK 기후변화 캠페인에서부터 시작됐다.
: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http://bigask.kr>)
: 350 캠페인 연계하여 캠페이너 등 조직 구성

[탈 핵]

- 눈에 보이지 않는 핵발전소의 방사능의 위협을 가시화 시켜, 영광(한빛)원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탈핵운동 전개
-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탈핵과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탈핵공약 채택 촉구
- 영광(한빛)원전의 3호기 원자로 헤드교체, 주민안전점검단 활동, 출력증강 등 영광원전 현안 등의 대안을 위한 광주전남북 광역 연대회의 재구성
- 비상계획구역 확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밀양송전탑, 2차 국

원자력 비중 29% 등 핵관련 현안에 대한 전국적 탈핵연대 강화

1.

- 일시 : 3월~4월
- 개요 :



-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협
- 영광원전에 대한 이해
-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교훈
- 핵에너지 정책과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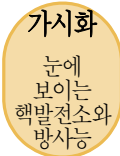
- 핵, 방사능, 영광원전, 후쿠시마, 핵에너지 정책 등 개념 정리를 위한 이론수업
- 영광원전의 위험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지도 및 그림 등을 배우는 실습
- 탈핵 논리 개발, 핵에 대한 Q&A, 영광원전 사고유형 분석 등 과제 형태 수업병행

■ 프로그램

- 탈핵학교를 통한 인력양성 및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위협 인식
- 눈에 보이는 핵발전소와 방사능을 위해 탈핵 캐릭터-로고 만들기
- “3눈이 물고기” 캠페인-영광원전은 낚시터가 아닙니다!

2. 자주달개비 식재 및 방사능 지도제작, 설치

- 일시 : 5월 ~ 9월
- 개요 :



- 눈에 보이는 영광원전과 방사능
- 주요지점까지 거리 표시
- 후쿠시마 체르노빌 방사능 확산과 비교
- 영광원전에서 우리가 사는 곳까지 주요지점에 표시

-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행정구역 때문에 영광원전의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
- 영광원전과 광주 주요거점까지의 거리를 지도에 표시하고, 후쿠시마 등 방사능 확산지도를 비교해 영광원전과 방사능의 위협을 가시화 함.

■ 프로그램

- 자주달개비 프로젝트

: 핵발전소의 위협과 방사능의 공포를 가시화하는 방안으로 방사능 지표식물인 ‘자주 달개비’를 주요지점에 영광원전과의 거리표지판과 함께 식재 및 보급

- 영광원전에서 당신의 집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 : 영광원전에서 광주 주요거점 표시로 가시화
- : 실측을 통해 실질적인 지도에 대한 신빙성을 높임
- : 지도를 제작하고 현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배포
- : 온라인 지도 제작 및 배포

- 우리를 위협한 핵 찾아보기

- : 전국의 핵발전소, 핵연료 회사 등 답사
- :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 방사능 측정 접수

3. 방사능 대응하기

- 일시 : 5월 ~ 12월
- 개요 :



-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 활동
- 핵없는 광주전남, 방사능 방재 등 선거 공약 제안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청원

■ 프로그램

- 지자체 선거 대응

: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방사능 방재계획 등의 구체적 요구안을 마련하고 2014년 지자체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반영

-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 방사능 방재대책 요구

: 시민들의 방사능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방재장비 및 구호약품 구비와 핵종분석기 등 전문 장비 구비 요구

- 광주전남북 탈핵공동행동

: 광주전남북, 영광이 함께하는 광역 탈핵연대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광주전남북 탈핵을 위한 제안 및 로드맵 마련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사업목적/개요

- 한중일 3개국 기후환경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
-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제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사업내용

제4회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 일시 : 2014년 9월 17일(수)~19일(금)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포럼), 전남 신재생에너지단지(현장답사)
- 주제 : 동아시아 기후보호 대안을 찾아서(가안)
- 참여자 : 한중일 기후, 에너지 NGO 활동가 및 시민 200여명
* 대만 기후, 에너지 NGO 활동가 참여 방안마련
- 내용 : 한중일 기후정책의 점검 및 활동 사례 공유, 섹션별 발표와 토론 진행,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공동성명 채택, 부대프로그램 진행
- 일정

	준비일정
~2013.12월 말	행사 기획 초안 마련
1월	국내 주요단체 연결, 협의하고 조직위 구성준비
2월	행사 조직위 구성, 산하 실무위 구성
3월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실무회의(3개국)
4월	중일 참가단체 협의 및 행사 개요 확정
5월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실무회의(3개국)
6~8월	프로그램에 따른 실무준비
9월	17일~19일 행사개최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의 기후 및 에너지 운동의 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의 기후보호운동 발판을 마련함

[기후보호포럼]

-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모임으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 정책 생산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의 구축 필요

1. 기후보호포럼 정례회 및 위원확대

- 일시 : 월 1회
- 내용 : 월례회의 등을 통해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
: 분기별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광주전남 기후에너지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정책생산을 진행하고 광주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안함.
: 위원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후에너지 뿐아니라,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영입

2. 정책 생산과 제안

- 일시 : 연중
- 내용 : '5년내 신재생에너지 5만 가구 도입' 을 내용으로 광주시에 구체적 방안마련을 제안하고,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방향과 운영에 대한 제안 등
: IPCC 5차 보고서 등 국제적 기후변화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설
: 가정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정책마련
: 분기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

□ 기대효과

- 시민과의 지속적인 기후보호, 에너지전환 등 캠페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 감시활동과 연대를 통한 아시아 연대의 초석 마련.
-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민적 행동과 요구의 계기마련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광주천 및 도심하천 살리기 운동]

사업목적

- 도심하천이 생태공간이 아닌 친구공간, 도심공원으로의 기능이 확대되는 계획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광주천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천 기록 구축 및 광주천 문제점 개선
- 지속가능한 광주천 등 하천 살리기 방안이 실현되도록 함.

□ 사업개요

- 광주천, 풍영정천 등 도심하천이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개선방향이 아닌 친수시설, 도심공원으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하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함.
- 풀뿌리 하천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주도형 활동을 정착시켜 나갈.
- 하천조사, 사진전, 정책 평가 및 제안, 하천생태지도 만들기, 하천생태 교육 등의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광주천 모니터링 및 하천 자연도 조사

1) 광주천 모니터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천 도심 구간
- 내용 : 매일 정기적으로 하천생태현황과 시설물들을 조사 기록, 현재의 하천을 평가하고 개선요구 활동 전개

2) 도심하천 자연도 조사

-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장소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도심하천 대상
- 내용 : 자연도 평가를 위한 하천조사, 수변환경, 수질, 수생식물, 사회모니터링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2. 광주천 등 하천 사진 기록 및 사진전시회 개최

- 기간 : 연중, 전시회 10월 중
- 장소 : 푸른길 기차 등 광주천 인근
- 내용 : 광주천을 사진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을 선별하여 시민들과 전시회 개최, 광주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

3.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기간 : 3월~6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및 도심하천 현장
- 내용 :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새로운 하천지킴이를 양성하여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주요 도심하천의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시민주도형 하천지킴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4. 하천 생태체험 교육 및 답사 진행

- 기간 : 4월~11월
- 장소 : 광주천 일대
- 내용 : 하천 생태 현황과 도심에서의 기능과 역할,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하천 교육을 실시함. 환경교육 일환 및 자연체험기능으로서의 하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교육 요구에 부응.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데 일조.

□ 기대효과

- 하천 복원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제시
- 풀뿌리 하천지킴이 활동가 역량강화
- 도심하천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관심 유도
- 광주천 등 하천에 대한 기록 및 안내자료 구축

[4대강사업 후속 대응 및 영산강 살리기 운동]

사업목적

- 4대강사업으로 변화, 악화된 영산강 모니터링과 대안 모색
-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책임자 심판 촉구
- 4대강사업과 연계되어 계획된 난개발 사업 및 부당한 지원개발 저지

□ 사업개요

- 2012년 완료된 4대강사업 결과, 녹조문제 등 영산강 수질악화, 생태적 건강성 악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둔치를 개발, 친수구역 지정 등 하천 구역에 대한 개발 또한 이어지고 있음.
- 4대강사업으로 변화된 영산강에 대한 평가와 심판, 영산강 회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감
- 전문가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4대강사업 이후 발생되고 있는 수질악화, 홍수피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습지문제 등을 지속 조사하여 대안을 모색함
- 현장 조사, 토론회 시민답사 등을 추진하며, 특히 하천구역 난개발에 대해 적극 대응함.
- 영산강을 회복하고 살리는 방안과 실현을 지역 주민, 지역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진
-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소송 등 전국단위와 연대하여 추진함.
- 지원 개발 대응 및 살리기

□ 사업내용

1. 영산강 하천구역 난개발 대응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원 등을 내세워, 자치구 등에서 하천둔치에 친수시설을 파다 조성 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나주 노안 지역 등 친수지역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4대강사업 후속으로 난개발 야기, 관리의 부재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함
- 3) 방법 : 개발 내용에 대한 조사, 간담회, 성명 등 입장 발표를 통해 문제내용을 공론화함. 개선방안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도출해 나감.

2. 영산강 조사사업

- 1) 기간 : 연중(분기별 조사)
- 2) 개요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수행
 - 보 안정성 문제, 수질, 조류(藻類) 번식, 지하수위 상승과 이에 따른 부작용 역행침식, 호안 침식, 보호공 유실 지형 변화에 따른 현황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촉구 활동 이어감
- ①수질 및 생태현황 ②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영향(농지 침수 등) ③ 지형변화-역행 침식, 보호공 상황 ④ 토적 및 침식 상태 ⑤저질토 조사 ⑦ 정부 등의 자료 확보

3. 강을 흐르게 하라 캠페인

- 1) 기간 : 연중
- 2) 개요 :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흐르지 않는 강의 문제점과 폐해를 공론화 하며, 영산강이 강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캠페인 전개. 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잃어버린 영산강 되찾기(살리기) 활동을 전개함.
- 3) 내용 : 시민답사, 어린이 하천활동 등 현장 체험 및 이론내용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 냄
- 어린이 및 시민(가족) 답사
- 영산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표현하기(물의 날 행사)
- 청와대에 편지 쓰기(영산강을 흐르게 해주세요)

4. 영산강 현장 시민답사

- 1) 영산강 자전거 투어 및 정화활동
 - 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총2회
 - 장소 : 영산강 및 주요 지류 하천
 - 내용 : 도보, 자전거 및 차량을 이용하여 영산강, 황룡강 등을 답사하고 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현장프로그램을 진행함.

5. 우수 자연습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 1) 우수 자연습지 현황조사
 - 일시 : 3월~5월
 - 장소 : 평동천, 황룡강, 영산강 일대

- : 하천의 둔치공간을 친수구역 및 생활체육활성화 공간으로 개발함에 따라 보존해야 할 습지들이 파괴되고 있음. 우수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해 영산강과 주요지천의 습지 현황을 조사하여 습지보호구역지정운동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조사축적함.

2)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6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자연습지 현황조사를 토대로 습지 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보존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6. 4대강 사업 무효 소송, 4대강사업 위헌 위법 소송

- 1)기간 : 연중(재판 기일에 맞춰 진행)
- 2)개요 : 2009년부터 4대강사업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1심과 2심 패소. 현재 제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구제 정황이 밝혀지고 있음. 최종 사법적 판단으로 4대강사업의 부당, 위법성을 확인 받기 위한 증명활동 전개함

7.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사업

- 1) 제 9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일시 : 7월 말 ~ 8월 초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을 탐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및 동식물 조사, 향토문화, 역사, 경제 등을 탐방하여 영산강의 소중함을 알리며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 제 6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일시 : 11월 말
- 장소 : 영산강 유역권 시군
- 내용 : 영산강 유역의 시군단위의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4년, 1년동안 진행했던 강살리기 운동을 총화하고 공유하는 시간.

□ 기대효과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과 재발 방지
- 하천 구역 등의 난개발 저지
-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과 추진, 객관적 검토와 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및 실현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대기질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기여
- 미세먼지, 방사능, 악취 등 대기 환경문제 공론화와 개선안 마련
- 시민참여형 활동으로 전개

□ 사업개요

-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심과 우려감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질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함.
- 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대기질 조사

- 기간 : 4월 ~ 10월
- 장소 : 광주 도시 주요도로, 학교 앞 등 200곳
- 내용
 - 학교, 교통 혼잡지역, 차량 정체 지역 대상 대기질 조사 및 결과 발표 (연속활동)
 - 대기질 및 VOC와 악취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 구역 및 시기를 달리하여 조사

- 방사능 등 생활안전 환경에 대한 조사

3) 대기질 개선 캠페인

- 기간 : 7월, 10월
- 장소 : 교통혼잡지역 등
- 내용 :
 - 친환경 운전 습과 등 가능한 시민실천으로 대기질 개선 목적
 - 급제동 급출발, 과속, 공회전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정도와 대기질 영향 실험 및 발표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배포
 - 운전자 모임, 학생 시민 주도로 추진

4) 대기질 개선 방안 토론회

- 일자 : 10월 중
- 내용 :
 - 대기질 현황, 대기질 개선 정책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토론회
 -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 환경문제으로써 시급히 대응이 요구되는 주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포함.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5) 차없는 거리 - 승용차 없는 거리, 대중 교통 존 지정 요구 - 지정 촉구

- 기간 : 5월 ~ 11월
- 내용 :
 - 자동차와 환경문제,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차없는 거리로 상징화 시켜, 구체적 시민 참여와 실천 안 강구가 목적,
 - 금나로 차없는 거리 등, 지역적 특성과 그간 활동 성과의 연장에서 차없는 거리 공론화와 실현 방안 모색

[안전한 먹거리]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를 통한 '수산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사업목적

- 정부는 일본산은 수입건수별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산 등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태평양산 6종류만 주 2회 단위로 검사하고 있어서 검역체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국내산의 경우에도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 검사가 아니라 상어나 가다랑어 등 특정 수산물에 집중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과 협력하여 국내의 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별 오염실태 및 어종별 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함

□ 사업개요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시중 유통되는 수산물 방사능 조사 및 모니터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수산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및 정책 개선방안' 을 제시함.
- 서울, 부산, 광주 공동 협력사업으로 진행

□ 사업내용

1. 기획회의

- 일자 : 2월
- 내용
 - 선행연구자료 분석
 - 수산물 조사 품목 및 유통장소 선정 외

2. 샘플 구입 및 방사능 오염 분석

- 기간 : 3월 ~ 5월

- 내용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샘플구입(150개샘플)
- 고순도 게르마늄 핵종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진행

3. 분석결과 평가회

- 기간 : 7월

- 내용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기타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분석
- 수산물 시민안전가이드 라인 논의

4. 정책토론회

- 기간 : 8월

- 내용

- 일본방사능감시센터와 공동 토론회(양국의 수산물 방사능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수산물 오염현황 및 피해실태, 양국 대책방안 공유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시민 실천 및 정책대안 제언

□ 기대효과

- 원산지별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를 통해 오염이 심한 수산물 수입 및 유통 제한 정책 제시
- 수산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 정책 대안 제시
-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함은 물론 정부의 식품 정책 변화(개선) 기대

[인조잔디운동장 대응]

□ 사업목적

- 학교 및 근린공원에 조성된 인조잔디의 위해성 문제 대두
- 인조잔디 관련 정확한 정보공유 및 대응책 등 미비
- 지역사회내 인조잔디 위해성 문제 환기

□ 사업개요

- 인조잔디 조성 관련 토론회 개최
- 인조잔디 조성 반대에 대한 여론 형성
- 인조잔디 조성확대를 반대하는 협의체 활성화

사업내용

1. 인조잔디구장조성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 일시 : 3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내용 : 인조잔디 구장 조성 확대 반대를 위한 협의체 ‘유해성 없는 운동장 만들기’ 구성(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아이쿱빛고을생협, 한새봉두레, 한살림광주, 한새봉숲사랑이, 녹색당 등 참여) 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황임.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알리고 인조잔디 운동장의 조성이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함.

□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한 공유와 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과 추진, 객관적 검토와 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점 인식 확대
- 바람직한 운동장 조성 추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목적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 동네 쓰레기 문제인 불법 투기 개선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 마을 공동체 문화 회복 기여

□ 사업개요

-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및 실천사례 만들기 연속 사업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실천을 마을사업 형태로 추진함.
- 주민주도형 지역맞춤형 사업을 위해 조사, 주민간담회, 교육 평가회 등을 진행함.
- 행정,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협력체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

□ 사업내용

1.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추진단 운영 및 홍보

- 추진일정 : 5월~10월
- 추진목표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회의(협의) 및 실행, 평가 및 환류
- 추진방법 : 자원순환마을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협치체계 구축 제안
- 대상집단 참여방법 : 자지구청, 주민 모임 및 네트워크, 전문가, 시민단체

2. 우리동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등 기초조사

- 추진일정 : 5월~ 7월
- 추진목표 :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개선 실행을 고려한 조사 시행
- 추진방법 :
 - 재활용 및 쓰레기 자원화 주민 인식조사 (5~6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황(5 ~ 6월)
 -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 및 실천 현황에 대한 설문/현장조사
 - 불법투기 실태조사(5월 ~ 7월)

: 마을 인근 지역 불법투기 실태 현황파악 및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조사

- (주민교육 및 기초 현황 조사 이후) 주민 인식 조사, 실태 조사(8월~9월)
- 대상 집단 : 지역민 대상 및 단독주택 지역(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 실천 개선 필요 지역

3.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

- 추진일정 : 5월, 6월, 7월, 9월
- 추진목표 : 주민 주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토대형성, 주민사례 발굴
- 추진방법 :
 - 자원순환형 마을 만들기 방안 협의 /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 불법투기 문제해결 토론
 - 동네 숨은 자원 발굴
 - : 빈집 활용 텃밭, 담벼락 및 골목길 가꾸기
 - : 폐 자원을 활용한 텃밭상자, 꽃밭상자 활용
 - 우리동네안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
 - : 동네수퍼나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기, 비닐이용 줄이기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텃밭 활용 등
 - 재활용품 배출공간 개선 방안
 - 우리동네 특화형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방안 협의
 - 추진장소 :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등
 - 대상집단 참여방법 : 마을 주민,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추진단, 전문가 등

4.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자발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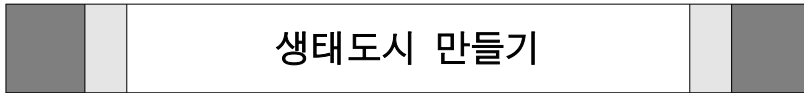
- 추진일정 : 6~7월, 9월
- 추진목표 : 주민 주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토대형성, 주민사례 발굴
- 추진방법 : 수동적 교육이 아닌 주민 주도형 교육,
 - 우리지역(광주시 및 광주시 북구) 쓰레기 배출 및 자원화 현황
 - 우리 동네 재활용 분리배출의 문제점 개선방안
 - 쓰레기는 자원? 자원! 보물!! (사례찾기 교육)
 - 재활용, 자원순환 정량화
 - 재활용품별 배출량 및 재화로 환산하여 정량
- 대상집단 참여방법 : 마을주민 및 추진단

5. 보고회

- 추진일정 : 10월
- 추진내용 : 자원순환 나눔 장터 및 전시회
- 추진방법 : 자원순환 나눔 장터 및 재활용 작품 전시회, 감량 성과 및 개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거버넌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실천사례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조성기여
- 참여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
- 생활쓰레기에서의 마을단위 자원순환 장해 요소 파악 및 개선 방안 발굴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목적

- 생태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의 녹지공간 보전 및 확대
- 미조성공원의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연속활동,
- 도시공간의 친환경적 활용 및 인간 존중형 도시공간 조성
- 생태문화공동체로써의 푸른길의 가치 확대

□ 사업개요

- 도시공원 및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미조성공원 및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요구, 푸른길공원 가치와 사례 확산, 친환경적 도시공간 구성 및 가치 확산

□ 사업내용

1. 도시숲, 사람, 마을을 잇는 푸른길

- 1) 도시숲을 잇는 푸른길
 - 시민참여의 푸른길공원 관리 실현
 - 대남로(광주천변~백운광장 1.7km)푸른길공원에 대한 관리활동 전개

2) 사람을 잇는 푸른길

- 푸른길 문화네트워크 및 푸른길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동 전개
- 푸른길 신문(가), 푸른길문화장터 등 전개
- 푸른길기차를 활용한 푸른길의 생태문화거점 공간 활성화

3) 마을을 잇는 푸른길

- 폐선부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정부차원의 폐선부지 활용 지원 제도 마련
- 푸른길주변 재생을 통해 광주의 생태적 문화적 재생을 이끔.

2. 미조성공원의 공원화

1)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공원 지정활동

-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공원 해지가 우려되는 바, 미집행공원에 대한 조성 및 대안 촉구 활동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완료이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의 지속적인 행정의 노력 촉구

2)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사업 유도

-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요구로 공원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방치되고 있는 공원의 공원조성 활동
- 기무부대 부지의 역사공원 결정이후 현재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3. 환경과 인권 워크숍 -도시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 2014년 5월에 개최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일환으로 "환경과 인권, 도시"를 주제로 한 워크숍개최
- 일자 : 5월 17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여자 : 시민, 환경, 인권운동가 100여명
- 주제
 - 지속가능한 인권으로서의 자연권 보장
 - 5.18정신과 환경정의 구현
 - 환경 기후위기와 공동체의 파괴 실상과 대안
 - 합의 없는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체 파괴, 이에 저항한 주민들의 투쟁이 남긴 성과와 과제

기대효과

- 공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주로의 전환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미조성공원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일물제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 시민참여 푸른길조성운동에서 시민참여 푸른길관리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푸른길공원의 관리주체로써 시민의 위상 제고
- 환경과 인권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도시의 기반으로써 인권의 중요성 공유

환경교육

□ 사업목적

- 교육 대상별,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및 보완
- 새로운 교육 대상의 발굴
-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활동

□ 사업개요

- 프로그램 중심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강사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시스템 구축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연계프로그램 개발
-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지속사업의 활성화

1)어린이 자연나들이

- 일시 : 4~6, 9~11월 (월1회, 총6회)
- 내용 : 숲, 하천, 에너지 등 월별주제에 따른 생태체험 프로그램, 환경교육 전반을 주제로 삼아 자연과 환경에 대한 넓은 이해와 체험을 돕도록 함. 상·하반기(각3회)로

어린이를 모집 활동 후 '어린이 환경신문' (가안) 발행 예정.

2)자원순환교실

- 일시 : 3~6, 9~12월 (8차시, 총2회)
- 내용 :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과 체험교육을 진행함.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기회를 넓혀가고자 함.

3)어린이(여름, 겨울) 캠프

- 일시 : 8월, '15. 1월 (총2회)
- 내용 :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집중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 실내외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이론과 체험 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교육 강사 양성 및 재교육

1)환경강사양성 교육

- 일시 : 4~6월 (월2회, 6차시)
- 내용 : 환경강사단 신규 양성 교육과 더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단의 재교육을 진행함. 전반기 양성교육을 통해 하반기 교육사업에 강사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섭외하여 현장에서 펼쳐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임. 대상자와 쌍방향의 소통이 이뤄지는 교육방법을 배우고자 함.

2)대학생 교육자원봉사단 구성

- 일시 : '14. 3월 ~ '15. 1월
- 내용 :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 이론 및 소양 교육이 필요. 환경교육 교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참여동기를 부여함. 자연나들이, 캠프 등에 참여를 기본으로 함.

3. 학교환경교육활성화

1)지속사업의 보완

- 일시 : 연중
- 내용 : ~하천교육, 자원순환교육 등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초,중,고 등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2) 연계프로그램 개발

- 일시 : 연중
- 내용 : 학교교과과정 분석과 평가자료를 정리하여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상반기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와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진행을 함께함.

4.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일시 : 연중
- 내용 : 연중 캠페인, 환경기념의 날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함.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하고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킴.

□ 기대효과

- 다양한 대상별,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중심형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
- 지역내 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회원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회원 및 시민참여 활동 성과 확산 및 조직적 활동 토대 구축
- 회원배가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재정적 안정성 확보
-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 활동
- 생태적 가치를 담은 회원가족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회원 소모임 활성화
- 환경이슈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사업내용

1. 회원확대 사업

1) 회원관리

- 기간 : 2~4월
- 내용 : 6개월 이상 회비미납회원에 회원유지여부 및 회비납부여부 확인 후 처리, 탈퇴 및 보류 회원 파악. 회원정보 정리 및 수정을 진행

2) 회원확대 집중 / 연중 캠페인

- 기간 : 4~6월 / 상시
- 내용 : 회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함. 효율적인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캠페인에 집중함

3) 신규회원의 날

- 기간 : 6월말(회원확대 캠페인 종료 후)
- 내용 : 신입회원에게 환경연합 활동을 소개하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회원소모임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각각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

4) 회원서비스

- 기간 : 상시
- 내용 : 환경 기념일에 회원에게 기념일 관련 문자서비스를 통해 환경연합의 회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 회원증이나 간단한 기념품 등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서비스함.

2.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생태답사 자연체험 프로그램

- 일시 : 연1~2회
- 내용 : 회원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생태답사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2) 회원체육대회

- 일시 : 10월
- 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형성될 수

함.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 및 회원조직 사업

1) 위원회의 활성화

-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
- 지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수를 늘임
- 정책위원회의 신설을 검토

2) 회원 소모임 운영 및 활성화

[녹색감시단]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회원 단합, 회원확대
-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개선 활동
- 환경현안 대응 참여, 환경연합 행사에 적극 참여

[물한방울 흠한줍]

-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을 원칙으로 정기모임 진행
-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 및 1박2일 기행을 진행
- 농사체험을 통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실천하는 활동
- 답사 프로그램 활성화와 회원활동 프로그램에 기여함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정기모임
- 회원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광주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월별 정기적 모니터 및 사진기록과 공유
- 광주천 정책 개선방향 제안
- 광주천 하천생태교육을 통한 회원양성

	주제	비고
1	총회	
2	환경교육(회원연수)	교육프로그램은 집행부와 사무처에 위임
3	환경교육(회원연수)	
4	환경교육(회원연수)	
5	무등산 샘골답사	
6	광주천 정기모니터링(1구간)	
7	광주천 정기모니터링(2구간)	
8	모래톱 하계수련회	8/15(금)~16(토) 통영 연대도 (예정)
9	광주천 정기모니터링(3구간)	
10	광주천 정기모니터링(4구간)	
11	문화제	
12	송년회	

[환경통신원]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회원확대와 회원 교육, 환경캠페인 참여
- 기후보호 운동, 대기질 개선, 광주천 영산강 정화활동 등에 참여
-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고발,

[사진반 디지로그]

- 사진 이론과 실기 공부, 정기 출사
- 환경운동연합 행사 등 활동 지원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시낭송회_ 시 낭송과 감상 나누기
- 회원확대 및 교육
- 문화 공연 참여, 작가 탐방
- 시낭송회 자원활동, 환경연합 활동 지원

[일곡·양산 모임]

- 매월 1회 정기모임
- 회원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 양산동 지역의 마을모임 형태로 진행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일 자	주 제	장 소	준비회원
1월 11일	철새탐방	영산강 혹은 순천만	김태중
2월 중	지역탐방	삼인산(병풍산)	박병섭
3월 중	동물과 친구되기	동물원(패밀리랜드)	이삼연
4월 중	새봄맞이 나들이	견훤대	설미이
5월 중	효소담기 체험	추후결정	박병섭, 김태중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4. 홍보활동

1)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 발행

- 일시 : 매월 1회
- 내용 :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이슈와 현안, 사무처 활동소식, 회원모임 활동소개, 공지사항 등을 담는 단체 소식지. 회원과 사무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발송

- 일시 : 매월 1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 사는 길' 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 '함께사는 길' 을 구독 신청한 회원에게 발송.

3)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일시 : 매월 2회
- 내용 : 활동소식, 행사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도록 함.

4)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활용

- 성명서, 보도자료 등 활동자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
- 소셜 네트워크 활용이 미진함. 활용을 확대하여 홍보의 폭을 넓혀가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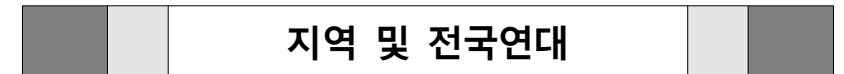
5. 후원의 밤

- 일시 : 11월 중

- 내용 : 후원인들과 후원회원들을 초청해 활동보고와 비전제시로 환경운동의 방향을 소개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공연과 캠페인 등을 소개

□ 기대효과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재정건전성 기여
- 회원모임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회원조직 강화, 회원 활동 참여도 향상
- 웹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환경운동연합의 이미지 확산



[]

1. 대표자회의 / 분기별 1회
2. 전국국처장단회의 / 월 1회
3. 총처장단회의 / 격월, 필요시 소집
4.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 분기별 1회
5.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상하반기, 총 2회
6. 전국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 상하반기 총2회
7. 전국회원대회 / 연 1회(하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회원단체 참여 및 활동
 - 광주시 예산과 정책 평가와 감시, 정책제안 및 실현 강구, 지방자치와 분권, 정치혁신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 지방선거 대응
2. 지역 공동의 시민사회운동 연대 참여
 - 5.18 기념사업 및 실천사업 참여 및 연대
 - 지역현안 대응과 개선에 대한 연대와 협력
3.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연대
 -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지방선거 대응 특별위원회 등 참여

[21협의회]

1. 활동 참여
2. 지구의 날, 차없는 날 등 환경기념 연대협력사업 참여
3. 교류회, 워크숍,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여 등 지방의제 21 기구와의 연대 활동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
 -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회의: 매년 1월중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날짜와 시간 정해서 소집
 - 내용: 감사보고안,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 사업 및 예산안 심의
2. 집행위원회
 - 환경이슈에 대한 토론, 중장기적 비전 수립, 환경실천캠페인 방향설정과 사업평가 등 매월 정례회의 진행
 - 회의: 정기회의-매월 첫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임시회의-필요시 집행위원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 논의
 - 사업: 회원위원회, 재정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활성화. 후원의밤 추진 사무처와 정책기획분야 연계 활동
3.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
 - 회의: 정기회의-집행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 임시회의- 필요시 공동의장 소집
 - 내용: 사업 자문
4. 지도위원 보고회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

2014 예산(안)

2014년 예산(안)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이월금	40,614,384	경 상 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6,000,000
회 비	어린아·청소년회원 9,000,000 일반회원 141,000,000 가족회원 16,800,000 단체회원 9,000,000 평생회원 2,000,000 특별(임원) 4,860,000 계 182,66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비품구입비	3,000,000
			후생복지	18,556,970
			보험료	9,972,500
			인건비	145,629,600
			계	185,559,070
사 업 비	사 업 비		환경교육	30,000,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특별사업포함)	60,000,000
			생태도시	30,000,000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30,000,000	
		정기간행물(회보, 잡지)	18,840,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12,000,000	
		회원모임 지원	2,1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4,000,00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1,200,000	
		계	203,340,000	
후 원 금	후 원 금	정기총회 및 회의	3,000,000	
		후원의밤	5,000,000	
		중앙/지역 연대	7,200,000	
		계	203,340,000	
사 업 비	사 업 비	장기발전기금	30,000,000	
		예비비	1,100,930	
		계	31,100,930	
기 타	기 타	자료대여, 판매 등	525,616	
		계	525,616	
계	420,000,000	총 계	420,000,000	

2013년 결산 대비 2014년 예산안 비교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2013결산	2014 예산안	항목	2013결산	2014예산안
전년도 이월금	37,041,448	40,614,384	공과금	5,796,890	6,000,000
회 비	어린아·청소년 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특별(임원) 154,738,000 3,000,000 3,870,000 계 161,608,000	175,800,000	경 상 비	소모품 및 수선비	2,060,390
				비품구입비	1,760,000
				후생복지	12,845,150
				보육비 지원	1,000,000
				보험료	4,008,390
				인건비	129,039,770
				계	156,510,590
				환경교육	20,613,262
				기후보호운동	34,119,206
				생태도시	31,761,356
후 원 금	후원의밤 등 기부금 회보광고 71,988,800 0 계 71,988,800	70,000,000 1,200,000 계산식	사 업 비	영산강광주천 살리기	16,713,140
				정기간행물(회보, 잡지)	16,783,14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9,055,090
				회원모임 지원	1,7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 사 업 교육참가비 57,964,460 12,255,900 계 70,220,360	100,000,000 25,000,000 125,000,000	회 원 사 업 비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511,23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236,1600
				정기총회 및 회의	2,826,310
				후원의밤	3,831,900
기 타	자료대여 이자수익 차입금 기타수익 118,000 221,370 3,000,000 396,120 계 3,735,490	525,616	조 직 비	중앙/지역 연대	5,956,630
				계	12,614,840
				장기 발전 기금	
				기타 지출 / 예비비	3,361,700
총 계	344,594,098	420,000,000	총 계	303,979,714	420,000,000

예산 세부(안)

■ 예상수입(안)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40,614,384	
회 비	어린이·청소년회원	9,000,000	5,000×150인×12개월
	일반회원	39,000,000	5,000×700인×12개월
		102,000,000	10,000×850인×12개월
	가족회원	16,800,000	20,000×70인×12개월
	단체·기업회원	9,000,000	50,000×15곳×12개월
	평생회원	2,000,000	1,000,000×2인
	특별(임원)	4,860,000	30,000×13.5인×12개월
	소 계	182,660,000	
	후 원 금 미 리	후원·기부금	70,000,000
회보광고		1,200,000	100,000×1곳×12월
소 계		71,200,000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100,000,000	10,000,000×2개(생태도시, 환경교육) 10,000,000×3개(기후보호, 생활안전) 30,000,000×1개(동아시아기후포럼) 하천살리기 10,000,000×2개
	교육참가비	25,000,000	2,000,000×10회 1,000,000×5회
	소 계	125,000,000	
기타	자료판매 등	525,616	자료판매 등 기타
	소 계	525,616	
수입총액		420,000,000	

■ 예상지출(안) I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인 건 비	통신, 관리비	6,000,000	전화통신비 2,400,000=200,000×12월 건물관리비 3,600,000=300,000×12월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200,000×12월	
		비품구입비	3,000,000	PC, 프린터 등		
		후생복지	18,556,970	중식 8,640,000=4,500×8인×20일×12월 9,916,968=퇴직적립금 : 기본급 100%		
		4대보험	9,972,500	8.38%(4대보험)		
		운영비 계	39,929,470			
		인 건 비	기 본 급	공동의장	23,487,120	1,957,260×12월
				사무처장	20,202,120	1,683,510×12월
				팀장	31,831,260	1,550,060×12개월×1인=18,600,720 1,470,060×9개월×1인=13,230,540
	간사			45,229,200	1,337,060×1인×12월=16,044,720 1,247,200×1인×12월=14,966,400 873,040×1인×2월=1,746,080 1,247,200×1인×10월=12,472,000	
	소계			120,749,700		
	직책수당			10,500,000	공동의장 400,000×12월×1인 사무처장 300,000×12월×1인 팀장 100,000×12월×1인 팀장 100,000원×9개월×1인	
	상여금	14,379,900	기본급 50%×3회			
	인건비 계	145,629,600				
				※간사 1인 2월까지 수습 ※팀장급 활동가 1인 총원(4월부터 근무시작) ※상여금 150%(50%×3회 지급)		
경상비 합계		185,559,070				

■ 예상지출(안) II

※단위 : 원

관	항	목	금액	내역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30,000,000	2,000,000×15회(어린이, 일 반 등)
		탈핵, 기후보호운동	30,000,000	핵없는 사회만들기 10,000,000 기후변화 대응 20,000,000
		생태도시	30,000,000	자원순환 도시재생 15,000,000 안전한 생활환경 15,000,000
		광주천·영산강살리기	30,000,000	광주천영산강살리기 30,000,000 (4대강사업 대응 포함)
		[특별사업]기후포럼	30,000,000	동아시아기후포럼 30,000,000
		소 계	150,000,000	
	회 원 사 업	정기간행 (회보, 함께사는길)	18,840,000	(함 길) 14,040,000=1,800×650부 ×12월 (회 보) 4,800,000=400,000×12회
		홍보물 제작, 우편료	12,000,000	1,000,000×12월
		회원모임 지원	2,100,000	300,000×7개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4,000,000	회원만남행사 1,500,000×2회 소모임 조직 500,000×2개
		홈페이지, 자료실, SNS운영	1,200,000	서버 이용 및 관리 100,000×12월
		소 계	38,140,000	
	조 직 및 연 대 사 업	정기총회 및 회의	3,000,000	정기총회 등 회의
		후원의밤	5,000,000	1회
		중앙/지역 연대	7,200,000	600,000×12월
소 계		15,200,000		
사업비 합계		203,340,000		
기 타	장기발전기금	30,000,000	※특별계정	
	예비비	1,100,930		
	소 계	31,100,930		
(사업비+기타) 계		234,444,390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		420,000,000		

부 록

- 성명서/논평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 정관
- 회원 생활수칙

【성명서/논평】

전남도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추진을 중단하라.

1월 8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무등산국립공원에 518m 높이의 초대형 전망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심사~장불재 4km, 화순 수만리~장불재 3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 전남도는 국비 2,240억원을 포함, 3200억원의 사업비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등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 주변에 산재된 통신탑을 하나로 모으고 정상부 복원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초대형 전망타워는 시도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무등산 케이블카 건설사업 역시 무등산을 61 지켜내 온 시도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구상과 추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무등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광주전남도시민의 열망과 노력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무등산이 지역민들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

무등산의 국립공원지정으로써 훼손지의 복원, 야생동식물보호와 자연 자원의 조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으로써 무등산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보다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민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전남도가 구상하는 초대형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추진은 무등산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남도의 책무를 저버리고, 무등산을 개발의 대상지화하고 이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무등산의 가치를 전락시키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의 개발사업, 관광사업은 시도민의 강한 저항과 반대로 부딪쳐 왔

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민관, 기업가의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가져온 경험에 있다.

대다수 시도민들이 무등산을 개발하거나 관광지화하는 것이 아닌 보전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고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도민의 뜻을 박준영전남도지사도 알고 있을 것이 뻔함에도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지난해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타당성과 생태보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부결되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립공원에 대한 잘못된 개발사업의 추진은 행정력의 낭비와 갈등을 불러오므로 인해 지역을 분열시키게 된다. 전남도의 수장이면서 무등산 국립공원을 보존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박준영전남도지사는 지금 당장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구상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는 전남도의 전망타워 건설사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망타워 개발사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3.1.8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 사기극!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 책임자 처벌,
4대강사업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 등 구조물에 대한 보강은 임시방편.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보 균열과 시설물 유실, 답 없는 수질문제,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피
- 차기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희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정당하지 않고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 보안전문제 등을 비롯하여 유지관리에 도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질악화, 보 안전문제, 비정상적 침식과 퇴적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고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학자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수질, 홍수피해 등이 개선되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수많은 갈등을 초래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권력을 남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친 공직자, 이에 동참한 학자들 또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강은 모르겠으나, 영산강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 는 식의 논리로, 4대강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

외없이 영산강도 MB식 4대강사업으로 총체적 난제를 안고 있다.

차기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총체적 문제를 받아들여 뱀방식 대처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발표만 보더라도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보 균열과 시설물 유실, 답 없는 수질문제,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실규명,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 1. 18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_광주환경운동연합)

MB 영산강사업이 꼭 필요했다는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에 최악인 지자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4대강사업은 영산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강살리기 정책을 후퇴시킨 영산강 역사상 최악의 사업
- 강바닥을 파내고 흐르는 강에 보를 만들어 호수를 만든 사업을 두고 강을 살리는 당위성 차원이라는 주장은 안하무인격

박준영 전남지사의 변치 않는 4대강사업 찬가가 불쌍사납다.

1월 18일 감사원의 발표로 4대강사업이 보안전, 수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 살리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사업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감사발표 이후에도 MB 영산강사업은 필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얼마 전 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산강을 알면 환경단체나 민주당도 (4대강사업) 반대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도 했다. MB 4대강사업 찬가도 이쯤이면 도를 넘는다.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애당초 영산강 대부분 구간을 수 미터 깊이로 굴착하고 거대 보를 만드는 사업이 수질개선, 가뭄해결, 홍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했고, 영산강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이런 공사가 뱃길복원이고 방치해왔던 강을 살리는 길이라 주장해왔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등 4대강사업 추진론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박준영 지사 주장과 달리, 영산강이 그간 준설이 안돼서 수질이 나쁜것이 아니라 오염원 관리가 안 된 이유가 컸다. 다른 강과 비교했을 때 유로가 짧아 자정능력

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자연성 회복과 오염원 특히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오염된 퇴적토가 쌓인 곳은 영산호이다. 하구둑으로 막혀 있어서 오염은 더 가속화 되었다. 영산호 상류 구간은 그간 하도정비, 골재 채취 등으로 과거 15년 전보다 하상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방치해서 퇴적토가 쌓인 것으로 호도하였다. 오히려 그간 전남도가 수질개선 투자가 미흡했던 사실을 감추고, 마치 박준영지사가 영산강을 살리기위해 고군분투한 양 선전하기도 했다. 과거 자료를 보면 한강의 경우 정부계획 보다 125% 이상 수질개선 투자하였고, 영산강은 50%가 채 되지 못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투자가 적었던 이유가 크다.

이런 영산강을 일정 깊이 이상으로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거대 호수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은 한 겨울에도 조류변성이 심각하고 사업 구간 전체 수질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이후에도 물고기가 떼로 죽고, 하천습지 파괴 등 자연도는 저하되었다. 하천수위 상승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가 피해와 농민들의 상실도 크다.

4대강사업은 애당초 차원으로 강을 살릴 수 없는 방법이었다. 수질 뿐만이 아니라, 홍수 가뭄대책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는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강변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영산강과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최악인 지자체장과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3. 1. 24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생태계교란 야기, 영산강 보를 어찌할 것인가?

- 영산강 보로 외래어종 크게 증가, 생태계 교란 시작되고 있다.
- 보에 대한 근본 질문과 대책 필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수질악화, 하상세굴과 보 자체의 안전문제, 인근 지하수위 상승 문제, 홍수위험 가중, 안개피해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영산강 생태서식의 변화로 생태계 교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영산강에 두 개의 보가 생긴 뒤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다. 2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5일 ‘보 설치 전후 회귀성 어종의 이동경로 조사’ 보고서를 공개 했는데, 공사전에는 9.7%를 차지했던 블루길, 큰입배스 2종이 2012년 보 완공 후 22%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울성 어종은 감소하고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이 늘었다고 한다.

해당 조사를 수행한 충남대 생물학과와 안광국교수 연구팀은 작년 조사에서 큰입배스의 치어(새끼)가 많이 발견돼 앞으로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큰입배스 등 외래종은 큰충과 작은 물고기 수정란 등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워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예측했던 결과이다.

4대강사업은 영산강 광주천 합류점에서 최하류까지 일년내내 최소 수심 5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괄 준설과 보를 건설한 사업이다. 영산강을 거대 호수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수질악화는 물론이고, 서식지 다양성 악화 등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어류나, 저서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와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총체적 서식 환경의 악화문제를 어도가 해결할 수 없다.

4대강사업 후 수질과 생태환경이 좋아 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총체적 부실과 생태계 악화를 야기하는 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강을 되살리기 위해 과연 이대로 보를 존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3. 2. 7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_광주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2주기에 부쳐...

핵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하자!

오늘 2013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더 이상 핵발전 안전신화는 없다는 것' 을 뼈저리게 느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죽음과 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핵은 미래세대에게 죽음과 파괴의 유산을 물려주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핵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했다. 특히,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 17기 전체를 폐기하고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연료봉 재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축소 등 핵산업을 확대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우리지역 영광핵발전소는 1,2호기 출력증강, 영광 3호기 제어봉안내관 뱀질식 보수 등 시도민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2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 지속가능한 미래,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핵없는 세상' 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이며, 미래를 위한 의무다.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권리 찾기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를 담보한다. 핵산업과 핵발전소

의 확대는 셀프 핵폭탄을 짊어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태양의 힘, 바람의 힘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작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바로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때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2주기를 맞아 '핵없는 광주전남' 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한다.

1. 영광3호기 제어봉안내관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영광1,2호기의 출력증강은 고리1,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과 다르지 않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을 저해하는 출력증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전국적, 세계적 탈핵 연대활동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3. 3. 1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급/민중행동/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남대분회/전남대학생행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진보신당, 광주시당,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안전한 물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 기념일이다.

어떤 누구라도 차별없이 안전하고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물의 날을 기념하여 한정된 자원인 물을 소중히 지켜가기 위해 물을 파괴하는 개발과 물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게 정당성 없는 국토 난개발 사업이, 물을 볼모로 강행되고 있는 지경이다. 당장은 전남 구례 지리산 피아골 등에 계획된 댐건설이 그러하며, 많은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4대강사업이 그렇다.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며,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농경지 침수피해, 안개일 증가로 인한 피해 등 직간접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물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밀어붙인 사업 결과가 총체적 난제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틀어막아 호수를 만든 결과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강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리산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예방, 인근 지역 물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리산 피아골 내서댐 건설계획이 지난 정부 말기에 기습적으로 결정되었다. 강하류 생태계를 살린다며 주민의 삶터이자 자연자원과 경관이 우수한 지리산자락을 수몰 시키겠다는 계획을 또다시 정당한 절차나 타당성 검증없이 결정한 것이다.

더 이상 생명의 근간인 물을 볼모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토와 물을 파괴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한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이 2013년 세계 물의 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2013. 3.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도교육청은 원자력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하라!

- 원자력 공모전, 광주시교육청의 후원 철회를 적극 환영한다!
- 전남도교육청은 편향적 원자력 홍보, 원자력공모전에 대한 후원을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의 편향적인 인식을 심는 원자력 공모전 폐지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원자력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교육감상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에 후원하게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제 자체가 ‘원자력의 매력’, ‘원자력에너지 중심’ 등을 요구하고 있어 편향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모전에 대해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후원을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모전 후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편향적인 주제를 표방하는 공모전이 과연 교육적 차원의 접근인가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후원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이 말하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공모전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적 차원보다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편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모전에 전남도교육청이 후원과 시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 편향된 교육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실망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증명했다. 원전사고가 전지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후쿠시마 사고가 증명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원자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원자력 홍보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원자력공모전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원자력문화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공모전을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전북·강원도교육청 등은 원자력에 대한 홍보중심의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후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 5. 15

광주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생명존중의 회피처인가?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8일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원전3호기에 대한 재가동여부의 결정을 ‘위조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 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재가동 승인을 연기한 지 불과 하루만인 지난 6월 9일 원안위는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전격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목) 전순옥 국회의원과 최재천 국회의원은 원안위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결정하고 원안위의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한빛원전3호기는 원전의 핵심계통인 원자로헤드의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가동이 멈춰 섰으며, 안내관 균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주변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한빛원전3호기의 가동중단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원자로헤드를 교체하지 않고 덧씌움용접방식으로 수리해서 재사용하겠다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용접수리한 한빛원전3호기의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정상적인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동을 승인하는 위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전력수급’ 요구에 쫓겨, 원안위의 소임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한빛원전3호기의 정비방법과 재가동 승인에 대한 결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한빛원전3호기 재가동 과정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빛원전3호기가 지난해 2012년 11월 ‘위조부품사태’ 와 ‘안내관 파열’ 로 가동을 멈추면서, 주변지역 주민들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 등 주민대표들은 한빛원전의 가동중단과 재가동시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았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전북 고창군과 고창군민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으며 동의절차도 밟지 않았다. 또한 한빛원전 30km내외에 위치하여 한빛원전의 안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민, 전라북도민, 전라남도민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 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정부·원안위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비민주적으로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법한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규탄한다!
2. 주변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한빛원전3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4.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안전문제에 대해 주변지자체·주민동의를 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2013. 6. 14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부안군민행동/전교조전북지부/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아이쿱전주생협/전주의료생협/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한살림전북/한울생협/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실천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녹색당광주준비모임/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학생행진)

[여름철 절전 실천 호소문]

광주시민여러분,

오후 2시부터 5시, 전기사용을 함께 줄여요!

국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력난이라는 현재의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시간에 전기가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격구조를 만들어, 산업체는 생산가 보다 싼 전기에 의존하도록 하여 전기소비를 더욱 부추긴 결과 일반시민들은 끊임없이 전력난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으로 삼아, 환경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위험천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위조부품에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 가동하기 위해 일련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대에 대형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 구조라면, 대형 발전소를 끊임없이 지어야 합니다. 분산형 자립형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도입은 더 어려워 집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전기부족은 소비 총량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일명 피크타임 2시부터 5시 까지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시간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각 영역에서 피크타임 부터 조금씩만 전기소비를 줄인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추가하지 않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도 줄여갈 수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가 절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관공서만 실천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산업체, 사무공간, 일반가정, 교육기관, 마트, 백화점 등 모든 영역에서 함께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실천한다면 블랙아웃도 없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해안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화력발전소 건설시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실천합시다.

-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전기절약을 적극 실천합니다.
- 실내온도는 26~ 28℃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전력소비가 많은 에어컨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 간편한 복장으로 체감온도를 낮춰요.
-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 새는 전기가 없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합시다.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을 완전 소등합니다.
- 세탁물을 한 번에 모아서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고, 적당량 채우기로 전력낭비를 줄입니다.
-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산업기관에서 실천합시다.

- 미가동 설비 전원을 완전 차단합니다.
-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순차운휴를 실시합니다.

상업분야에서 실천합시다.

- 문 열고 냉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간에는 창측 조명을 소등하고 자연채광을 이용합니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비롯하여 새는 에너지를 잡는 실천을 함께 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실천으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2013. 6. 24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에코바이크,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4대강사업은 국가 권력이 법을 어기며 추진한 대운하 사업!

정부는 4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라!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원 발표로 천명되었다. 허위와 거짓으로 포장되고 비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이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또 한번 확인된 것이다.

MB정부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강을 살리고, 물부족과 홍수에 대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개념 치수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였다. 운하를 위한 보건설과 막대한 준설, 그 과정에 환경자문과 평가, 문화재 조사 등 최소 필요 절차도 무시하였고, 건설사들의 담합과 비리를 조장 목과했다는 중차대한 위법 행위를 국가권력이 자행한 것이다. 국토환경을 불모로 하여, 국가 권력이 자행한 유래 없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4대강사업으로는 절대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 위험 가중, 침수 피해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라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다. 운하 건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국가 살림을 파탄내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다. 이번 감사발표로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근거가 국가기관을 통해 뒤늦게 확인된 셈이다.

영산강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수질과 생태계 악화, 농경지 침수피해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일정 수심을 확보하기위한 막대한 준설과 보건설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폐해이다. 지난 정부가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린다고 주장하며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의 중 하류에 거대 댐을 2개 더 만든 결과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화였다. 현재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녹조를 해결한다고 부산하지만 강을 막아 놓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4대강사업이 지역민과 국민의 저항을 받을 때 영산강은 다르다며 MB 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두둔했던, 지역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정당성 없이 운하를 위해 추진한 사업임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영산강을 강으로 되돌리기 위해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속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을 현 정부가 받게 될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13. 7.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5-18민주광장의 박석마당 설치에 대한 입장

5-18민주광장을 시민이 찾는 역사광장, 문화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석광장대신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자.

지난 6월 24일, ‘도청 앞 회화나무 모임’은 도청앞 회화나무의 죽음을 계기로 옛 도청 주변의 역사적 생태적 공간의 보존을 제안하였다.

‘도청앞 회화나무 모임’은 제안서에서 1. 도청 앞 회화나무 현장 보존, 2. 후계목 식재, 3.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 4. 5.18민주광장 명칭 보전과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의 변경, 5. 옛 도청 일대 수목 생육 진단 및 보전방안 마련을 광주시에 제안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의 변경을 제외한 4가지 제안에 대한 적극적 반응을 약속했다.

우리는 광주시가 회화나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시민들의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하여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청 분수대 주변 7,485㎡(2,200여평)에 이르는 5.18민주광장을 화강석 박석으로 포장하고 분수대 주변을 둘러싼 물길(실개천) 설치에 대해 실시 설계를 발주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광주시의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은 여러차례 공청회를 가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민주평화광장’에 대한 초기 컨셉(분수대 주변 잔디광장, 금남로 차로 축소, 차없는 거리 등)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변경되어, 민주평화광장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지금 시민들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민주평화광장이 광주의 역사적, 정치적 공간인 옛 도청 앞 광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광장, 세대를 이어 1980년 5월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광장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

광주시는 민주평화광장 초기 계획에서 축소, 왜곡된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에 시

민들의 여론을 다시 묻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축소, 왜곡된 민주평화광장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박석마당은 5-18민주광장을 아스콘 대신 박석으로 포장재질만 바꾸는 것일 뿐, 여름철 복사열과 겨울철 빙판 등으로 탐방객과 주변 생태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상무관 주변의 녹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녹지를 단절시켜, 시민들이 함께 향유해야 할 광장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4년 시청이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전한 후 불과 4년만에 시청 앞 미관광장의 석조타일을 뜯어내고 89억원이나 들여 평화공원을 만들었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5-18사적지로서의 역사적 공간을 시민들과 국내외 탐방객이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광주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5-18민주광장을 박석광장이 아닌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끝으로, 광주시가 마땅히 보존해야 할 5-18 사적지인 5-18민주광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실시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18민주광장의 재생을 통해 광주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5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푸른길, 놀이패 신명, (사)5-18구속부상자회, 스토리텔링사업단 이야기통,
도청 앞 회화나무모임

문화재청의 광주호 독높이기 반대 입장을 환영하며

자연 문화 유산 훼손하는 광주호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광주호 독높이기로 자연과 문화 유산 훼손은 불가피 하다.
- 안전을 위한 독보강과 독높이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 4대강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광주호 독높이기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문화재청이 자연 및 역사 문화유산 훼손을 지적하며 광주호독높이기를 반대하고 있다. 광주호 독높이기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불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형사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판단과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을 취소할 것을 사업초기부터 요구해 왔다. 물부족 문제 해결, 홍수예방을 위해 독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위를 상승시킨 결과로 우수한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명승 문화재 식영정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나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훼손이 불가피하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있는 졸속사업이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농어촌공사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문화재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주호독높이기는 홍수예방, 수량확보, 하천환경 개선, 독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의 안전문제, 상류 침수 문제는 독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독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여수토와 제당 등 구조물을 보강하면 된다. 수문을 개선하여 통수능력도 확보 할 수 있다. 배수가 안돼서 상류가 침수가 된다면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목적에 따른 합당한 사업이 정당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독높이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분명히 거쳐야할 행정절차 이전에, 변칙적으로 공사부터 착공하였다. 4대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주호인근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광주호 독높이기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9. 4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광주광역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왔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 속이기 행태 속에 버젓이 유통되고, 심지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급식에까지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리기준치를 마치 안전기준치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며 의무를 방기해 왔고, 안이하고 허술한 방사능안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로 뚫은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고 채워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는 수입-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겨우 수입단계의 기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품과 농축산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르노빌 사고는 물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폭량이 증가하면 암 발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외부피폭보다 무서운 내부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의 섭취가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되며 많은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 내용조차도 공론화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작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길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하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라!

하나,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최소한 1/3 이상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감시위원회를 통해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과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기타 지속적 방사능안전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그 사실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통보함은 물론이며,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하나,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기까지,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들어진지 24년이나 되어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즉각 강화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정책토론회(10월1일)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방사능안전급식 모범조례(안)를 공표, 제인할 예정이다.

2013. 9. 26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탈핵공동행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앞 1인 시위

10월22일(화) 오후12시 시작!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에 따라 밀양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논과 밭,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며칠 쟁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녘에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과 연결될 신고리 3호기는 핵심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장착된 관련 케이블을 전면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내년으로 미뤄진 준공 시기도 201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무리한 공사 강행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밀양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검증가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공사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밀양 주민들은 오늘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공식 시작하고자 합니다. 10월22일(화)부터 오후12시~13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3.10.22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광주전남녹색연합 /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광주에코바이크 / 광주YMCA 광주YWCA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한살림 / 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 /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여성민우회 / 아이쿱 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시민주권행동 / 광주전남청년연대 / 빛고을자연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 평화행동 지금 /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양환경운동연합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 목포환경운동연합 / 순천환경운동연합 / 여수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MB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하여 농어촌공사가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독높이기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 다시 허가 신청을 절차를 밟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거듭되었다. 광주호 주변의 자연 문화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광주시 당국이 반대했다. 또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수질생태계 개선, 홍수와 가뭄예방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물론 당초 계획(기본계획)과는 달리 독增高 높이고 수위 상승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增高사업후 수위 상승을 협의하기 위한 '수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구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은 독 높이기 사업의 목적을 상실했고, 더불어 수위 상승을 완화한다하더라도 광주호 상류에 소재한 역사문화 유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독을 보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와 무관한, 독높이기를 전제로 한 여타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승인되어서는 안된다.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광주호 인근의 국가 명승, 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 등 역사 문화자원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무등산 권역 광주호 주변은 한국의 15~16세기 대표적인 역사 문화 현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곳을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누정문화권 등으로 호칭할 만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독높이기 사업으로 호수 수위가 상승하고 주변 도로의 확포장, 교각확대 및 신설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 문화 경관은 훼손될 것이다.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과 천연기념물 왕버들 등 소중한 자원이 영향을 받는다.

둘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으로 수질생태계 개선, 홍수 예방과 가뭄에 대비 한다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독높이기 사업으로 물을 추가 담수하여 영산강에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한다고 하나 타당성과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수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독 높이기 사업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광주호 주변 역사 문화 자원의 항구적인 보존과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

문화재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등산권 광주호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복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곳은 국가대표급 문화재인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과 지방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충효동왕버들 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광주호의 수위를 현재보다 낮춰서 역사문화 현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식영정 20명, 소쇄원 48명에서 노래한 주변의 경관, 송강의 대표 가사인 성산별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 문화 환경은 보존되어야 하고 복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허가) 해서는 안된다.

농어촌공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

공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해온 결과이다. 올해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의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사업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정부가 4대강사업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4대강사업은 올해 국회 국감에서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국면에서 문화재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2013. 10. 16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보존연대, 광주민예총

문화가 흐르게 한다는 MB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

- 영산강과 문화를 살리는 뱃길복원 사업 등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하였지만
- 정작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절차법을 위반하며 속도전으로 사업을 강행.
- 문화유산 파괴,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 이에 동조하고 묵과한 문화재청 그리고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MB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로 문화재 조사를 비롯한 보존 대책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까지 훼손한 총체적 부실과 불법 사업이라는 것이 또 확인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 안에 4대강사업 범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 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역시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과 편법으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조사와 대책 마련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되었다. 애당초 불가능한 사업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한 것이다. 결국은 생태계 파괴, 국토 파괴, 문화유산 파괴, 세금 강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영산강 역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및 시굴조사, 수중조사 등 응당 추진되어야 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준설과 제방 공사 등 공사가 다 진행 다음에야 유물 산포지에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법을 어기고 문화재에 대한 대책 또한 무시되었다. 광주 나주 담양 함평 등 피해 지역과 범위, 내용이 상당하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를 살리고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하였다. 전라남도과 나주시 등의 지자체장들도 이에 찬동하였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 보호대책이 지자체장과 협의되어어 하는 절차가 무시되어도 이에

대한 대응도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주한 사업구간 역시 입회조사가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는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절차법을 위반하며 속도전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로 영산강 일대 문화유산을 심각히 파괴하였다. 문화유산 파괴,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 이를 묵과한 문화재청 그리고 전남도 광주시 등 지방정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3. 10.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원전 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철회돼야 한다

- 국가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국민과 지역은 배제되고
-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에 대한 근거제시도 없어
- 2035년, 원전 설비비중 29%, 에너지수요 254.1백만TOE, 전력수요 70.2 백만TOE 증가
- 수요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도 없고 국민과 지역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원전 설비비중을 2035년 29%로 늘리겠다는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35년 에너지 수요를 254.1백만TOE(2011년 대비 23.4% 증가), 전력 수요를 70.2백만TOE(79.5% 증가) 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원전비중 29%로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비중 29%는 가동 중인 23기 외에 건설 및 계획 중인 11기의 핵발전소뿐 아니라, 추가로 6~8기의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핵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취해왔던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핵(核)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박근혜 정부가 원전 비즈니스에 팔 걸고 나섰던 기간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산물이기도 하다.

이렇듯 명확한 근거나 검증 절차없이 수요가 증가하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의 비중이 29%가 필요하다는 식의 결론은 수요관리가 아니라 기존의 공급확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또한 수요전망의 근거제시나 검증 절차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산물이며, 원전비중을 29%로 만들

기 위한 29점(?)짜리 안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이다.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국민과 지역이 배제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역과 국민들에게 통보되는 방식의 비민주적이며, 근본없는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탈핵을 지향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확대가 야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방사능 위험과 특하면 꺼지는 핵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밀양송전탑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와 세계흐름에 역행이다. 원전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2013. 12. 1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을 위한 공사는 이제 그만!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독 보강 등 안전성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고
목적을 상실한 독높이기는 철회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중단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존에 높이려는 1.6m에서 1m를 높이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주에 해당내용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축소된 설계로는 문화재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독높이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수정된 내용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높이기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에당초 독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환경개선을 위한 물 확보와 홍수 예방이었다. 여기에 독의 안정성 확보, 주변의 배수 문제 해결 등이 추가된 형태였다.

독높이기 사업은 물부족 해결과 홍수 예방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변경된 설계 내용이, 수위는 애초 계획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다. 우선 홍수위와 만수위가 상승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총저수량은 454만㎥ 추가 확대된다. 현재보다 26% 증가되는 양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위상승에 따른 주변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사를 강행해야 할 근거 또한 궁색하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시기에는 현재의 만수위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쓰지 않는 가을 겨울철에는 협의 절차를 거쳐 수위를 높이기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갈수기에 영산강에 물을 흘려보낼 목적으로 댐을 증고하여 물을 더 채우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목적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수위를 높이면 문화재 보전지구와 경관을 훼손하고,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면 독높이기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위상승이 전제되는 독높이기는 철회하고 독 보강 및 수문개선 등 집중 강우나 홍수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광주호 주변은 국가 명승 문화재와 친연기념물을 비롯한 국가적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일대의 보존과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이 지역 및 국가의 자산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자체등이 협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홍수기 침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서 출발한 독높이기 사업을 철회하고 독 안전성 확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2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환경연합 선정,
2013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한 해 동안의 광주·전남지역 환경현안들을 돌아보고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매해 공동으로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순천만 정월박람회, 북부순환도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소식 등의 반가운 소식도 있었으나, 한빛(영광)원전의 사고와 비리, 영산강의 녹조, 여수산단의 안전-환경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선정돼 반복적인 사건사고 발생의 양상을 보여 우려를 표하게 했다.

2013년 10대 환경뉴스로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한빛(영광)원전 ▶영산강 최악의 녹조발생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여수지역 산단 안전-환경사고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공원일몰제 대비 요구 ▶북부순환도로 한세봉 관통계획 철회

1.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한빛(영광)원전

지난해 5,6호기 등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빛(영광)원전은 올해도 원자로 헤드 관통관 균열 은폐 의혹,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및 서류조작, 원자로 정지 등 각종 사고와 비리로 얼룩졌다. 3호기는 내년 10월경 원자로 헤드 교체 시 까지 임시로 덧씌움 용접해 재가동 중이며, 2호기는 증기발생기 수질을 정비하는 과정에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용접을 하고 서류조작으로 승인을 받고 가동되는 등 ‘만성 안전 불감증’이 위중한 상태다. 사고와 비리가 반복적이며 일상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가동중단이 잦아져 전력수급 차질을 빚어 여름철 전력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 영산강 최악의 녹조발생

승촌보와 죽산보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중·상류까지 녹조가 발생해 4대강 사

업 전에는 녹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광주 극락교 인근까지 녹조가 번성했다. 보가 설치되면서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강 유속이 느려져 녹조의 발생 범위와 빈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대강 사업 시 영산강에서 준설한 불량 준설토를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에 활용해 염해(鹽害) 등으로 벼농사를 망치고 있다. 더불어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중단됐던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독 높이를 1.6m에서 1m로 축소 변경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광주호 주변 국가 명승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무등산이 3월,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있는 도시라는 인지도와 위상을 갖게 됐다.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무등산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주상절리대 등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가 지질공원 인증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의 나무라 불리는 털조장나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깃대종으로 선정해 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등산은 국립공원연구원 자원조사 결과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2,00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4. 여수지역 산단 안전 환경사고 잇따라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의 사고는 환경피해와 인명피해의 범위가 심각성이 더욱 크다. 3월 여수산단 D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공장 사일로(Silo) 폭발사고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울촌산단에서는 6월 검은 비가 내려 지역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H사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은 모래와 쇳가루로 추정되는 분진이 검은 비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으로 산단에서 안전 및 환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안전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5.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 성료

세계의 다양한 정월을 볼 수 있었던 ‘2013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가 순천만 일대에서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개최돼 관람객 440만명이 찾았다. 23개국 82개

의 전통정원 및 실내외정원의 선보였으며, 환경문제의 국제적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효과, 지속가능한 운영대책 등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 또한 순천만은 방문객 증가와 해안쓰레기 방치, 유입수계 오염 등으로 갯벌 생산성, 종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순천만 생태계 보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9천여명의 주민발의로 '순천만 갯벌 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의회에 접수해 순천만 보전에 시민들이 앞장서고 있다.

6. 백운산 22번째 국립공원 지정 추진

광양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광양시, 광양시의회 등은 백운산(1,222m)의 22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정부에 8만여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요구는 백운산 대부분을 연구학술림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2011년말 법 개정으로 법인화되면서 백운산 사유화의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시작됐으며, 백운산에는 9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7.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광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2016년까지 제1, 2하수처리장에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연간 323GWh의 전력을 생산해 9만 가구의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 7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0MW급 연료전지 발전설비 준공할 계획으로 5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8.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목포시가 안전성과 환경피해, 경제성 등의 문제로 30년전 백지화된 고하도 해상케이블카(목포 유달산~고하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류장 변경안건을 상정해 목포 환경단체 등이 밀실행정과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는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간 1.06km를 해상으로 연결해 고하도 유원지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반대해 30년전 백지화됐던 해묵은 해상케이블카를 굳이 민자를 유치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 2020년 공원일몰제 지금부터 대비해야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문화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광주를 비롯한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의 85%가 사라질 위기이며, 특히 광주는 공원 결정이 20~30년 이상 경과한 곳이 많고, 사유지가 4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인당 공원 면적이 5.2㎡(2011년 기준)로 법 기준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속하는 광주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제될 경우 난개발의 요인이 될수도 있다.

※ 공원일몰제는 공원결정 고시 후 일정기간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이정지 해제되는 제도

10.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계획 철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한새봉구간의 예산낭비와 주민피해, 환경훼손 등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했던 북부순환도로 제 1공구 한새봉 관통계획에 대해 광주시가 한새봉 관통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선도로간 접근성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는 북구 장등동~용두동까지 6.7km의 순환도로이며, 논란이됐던 1공구 구간의 한새봉(495m) 등 645m를 관통해 터널로 연결할 계획으로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3.12.19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광주·전남환경聯 "미검증 토건사업 인수위 건의 제외를"

2013. 01. 15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대통령 인수위 건의 내용 중 지역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토건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꼭 이런 토건사업,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각각 14가지 대표적 지역사업을 제출할 방침이다"며 "제안 내용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토건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사업은 각종 선거 시기 때마다 제시됐다. 지역발전을 여망하는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다"며 "이번 광주시, 전남도가 제안한 일부 토건사업들도 그런 유형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광주 3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남도가 제안한 '호남과 제주 사이 해저 KTX 건설사업'과 '광주와 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그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쳤을 따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들이 선거 시기에 이른바 '지역 현안사업'으로 포장됐을 뿐, 지역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토건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밀어붙이기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의 3가지 토건사업을 인수위 제안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3가지 사업 모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화급한 사업이 아니며 지역발전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기약하는 사업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 조원에서 약 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되지만 오히려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촌과 농민들을 더욱 폐쇄 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4대강 사업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2013. 01. 23



【광주=뉴스1】류형근 기자 =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광주전남공동행동)은 23일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하천 수위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 침수 등 피해와 영향 범위가 강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비정상적 침식 등으로 하천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보의 안전과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 했지만 전체적인 평가와 검증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와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 문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타당성 문제,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영산강 본류 사업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지천 상류 독농이 사업 등 4대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업에 찬성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단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이며 '강 살리기'라는 명분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와 4대강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또 국민들의 혈세로 타당성 없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했다"며 "이들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2013.02.16

[사진]4대강 죽산보 현장조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환경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된 영산강 4대강 공사 현장의 부실,수질악화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6일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환경연합, 15일 도시텃밭 '장다리' 오픈

2013.02.14

(광주=뉴스1) 위안나 기자 = 광주환경연합은 15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농장다리옆 도시텃밭 공작소에서 '장다리' 오픈식과 주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사)푸른길(이사장 이근우)과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원장 이병훈)이 공동 준비하는 '장다리'는 구도심재생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이다.

주민들의 포트 텃밭만들기와 텃밭 채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주민들에게 각종 식물 씨앗과 공구 제공, 텃밭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푸른길은 주민들이 장다리로 가져온 생활 폐품을 이용해 화분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오픈식은 5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텃밭의 취지와 향후 일정, 텃밭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2013.03.09

광주환경단체, 다양한 탈핵활동 펼쳐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2주기를 맞아 다양한 탈핵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금남로 구 삼복서점앞에서 정부의 핵확산 정책의 폐기와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핵없는 광주전남을 염원하고 우리지역의 영광핵발전소 안전대책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며 탈핵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탈핵학교, 탈핵1인시위, 탈핵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친다.

[사진] 기억해요 후쿠시마 '탈핵' 절실



▲ 광주전남환경연합 회원들이 9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2주기 탈핵축제'에 참가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3. 04. 18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강연

광주전남행동, 일본 소설가 야마구치 이즈미 초청 강연
23일 오후 7시 광주YMCA '탈핵학교' 마지막 강의 진행

탈핵학교 마지막 강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현재 상황에 대한 특별초청 강연으로 이뤄진다.

환경단체 등으로 짜여진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 와이엠시에서 일본 소설가 야마구치 이즈미를 초청하여 '피폭지 동경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현재'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강연은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이 지난 3월 26일부터 총 5회로 진행해온 '탈핵학교'의 마지막 순서다. 강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의 진실과 현재 상황, 원전 사고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변화 등을 야마구치 이즈미 작가가 본인이 동경에서 겪은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야마구치 이즈미씨는 1955년 생 일본 소설가이다.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 재학 중인 21살 때 제13회 다자이오사무상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문필활동 시작했다.

글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한일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반전, 반핵, 반원전의 입장에서 아시아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특히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하는 광주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전했다.

야마구치 이즈미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거주지를 동경에서 오키나와로 옮겨, 글을 통해 탈핵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 활동에 투신하고 있다. 강연 참가비는 5000원. 문의: (062)514~2470, 광주환경운동연합

.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2013. 05. 17.

[광주환경련] '환경과 인권' 워크숍 개최

17일 오후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광주환경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은 17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환경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국가 경제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환경파괴가 인권파괴로 귀결되는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유엔인권선언(48년), 인간환경선언(72년) 그리고 리우선언(92년) 등에 의해 인권과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5.18정신과 이어지는 인류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 환경정의론을 논의하는 워크숍이다.

주제발표로 환경연합 이시재 대표가 '환경정의와 인권'에 대해서, 딥티 바트나가르 국제 지구의 벗 기후에너지 활동가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지속 가능한 인권으로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해서, 네팔 Pro Public의 프라카시 샤르마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네팔이 끼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재현 글로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지 환경연합 국제연대 활동가가 참여한다. 사회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교수가 맡는다.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

기후변화 현장답사 등 19일부터 총 10강

강경남 kkn@gjdream.com
2013. 06. 10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조선대학교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19일부터 7월13일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6층 강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양성교육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론교육 8회, 기후변화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답사 '생생기후투어'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오후 7시부터다.

양성교육은 공개강좌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삶을 지향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17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gifkem.or.kr)나 전화(062-514-2470)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며 100% 출석시 50% 반환받을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공동의장은 이번 양성교육에 대해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라며, "기후변화가 건강, 경제, 먹거리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너지 과소비형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4대강 문제를 진단하다

2013. 07. 16



【광주=뉴스is】 배동민 기자 = 광주시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5층에서 'MB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후쿠시마 청소년 광주서 한·일 에너지캠프

[광주=광주타임즈] 이현규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일 청소년 에너지캠프 '태양과 바람으로 함께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8월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일본 후쿠시마 청소년 8명이 광주를 방문해 한국 청소년 20명과 함께 에너지 캠프에 참가한다.

특히 후쿠시마 청소년들은 지진피해와 원전사고를 통해 가진 생각을 한국 청소년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재생가능 에너지 워크숍과 현장답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상상한다.

후쿠시마 청소년들은 캠프기간 동안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다짐을 발표하고 서해안 갯벌, 전남 영광 원불교 성지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광주 차 없는 거리와 기후대기 개선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27일

정인서 기자 | siminsori@siminsori.com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과 푸른광주21협의회(상임회장 박경린) 주관 및 주최로 9월 27일(금)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 차 없는 거리와 기후대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없는 거리'는 자동차 중심의 거리를 보행자 자전거 등 인간적, 생태적 중심의 거리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지 구 도심활성화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승용차 등 교통수송 분야가 탄소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에서의 차없는 거리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살핀다. 또한 교통수송 부분에서의 탄소감축 대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현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어려움 등 현황을 공유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갖는 취지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 이인화 교수가 '광주 차없는 거리와 기후대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고 '주말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 대한 제안'을 광주발전연구원의 문창현 박사가 발표를 한다. 지정 토론에는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 전을호 광주에코마이크 부대표, 양철수 박사,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임안섭 계장이 참여한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22일 광주 에너지의 날 개최

2013. 8. 27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2013.08.15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에너지시민연대는 22일 오후 6시부터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제10회 광주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프로그램인 아파트, 상가 등의 소등행사와 부채만들기, 마이크로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조리기, 에너지 골든벨, 에너지 부루마블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이날 '소등행사'는 저녁 8시 22분부터 5분간 진행된다.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파트, 기관, 상가(카페) 등은 20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http://gjfkem.or.kr> · 062- 514-2470)에 접수하면 된다. 참여 아파트와 상가(카페) 등에는 프로그램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34도의 무더운 날씨로 최대전력수요 4598만kw를 갱신하면서 전기소비 증가율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 2004년 8월 22일부터 진행돼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 현장조사

오늘 녹조·보 상류 침식·침수 피해 점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심판 및 강을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영산강현장조사를 27일 오전 8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현장조사는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4대강사업광주전남공동행동이 주관하고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주최한다. 현장 조사에는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며 육로와 배를 이용, 영산강 곳곳을 둘러볼 계획이다.

단체들은 이날 녹조 등 수질 문제, 호안붕괴와 하상 세굴 등 비정상적인 침식과 퇴적, 지하수위 상승 문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하상세굴과 재퇴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심 측정을 실시한다. 조사 구역은 영산강 담양습지에서부터 함평 동강대교까지의 구간이다.

또 단체들은 영산강 보 상류에서는 비정상적 침식과 하상세굴이 계속되고 있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더 나빠졌으며 농지침수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4대강사업을 국민이 직접 검증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심판, 그리고 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이다”고 말했다./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자원개발, 다음세대까지 생각하라”

광주서 특강 에더 파야규아제 아마존 족장의 호소



지난 27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 특강에서 바네사(왼쪽)변호사와 에더 족장이 광주시민들에게 아마존 파괴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게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6층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한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 특강이 열렸다.

에콰도르 누에마 로하(Nueva Loja) 지역 아마존 밀림에 거주하는 세코야족 에더 파야규아제(32) 족장은 다국적 기업이 석유와 벌목을 하며 숲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하는 에콰도르는 브라질을 거쳐 한국까지 비행시간만 31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나라다. 이곳에는 70억 인류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다. 한국 면적에 30배에 달하고 에콰도르, 페루 등 9개 나라에 걸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난 30년간 한반도 4배

면적이 사라졌다.

에더 족장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익숙한 듯 담담하게 전했다. 이 자리에는 에더 족장과 아마존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바네사 바르함(여·29·에콰도르)변호사가 광주시민들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 1964년 미국의 한 기업이 아마존 북부 오리엔테 지역에서 땅 속 석유를 발견했다. 미국인들은 아마존 원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아마존에 300개가 넘는 유정을 개발했고 석유 채굴을 마친 1000개가 넘는 구멍을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났다. 방치된 유정에서는 석유와 함께 땅 속 유해가스가 대기와 지표면으로 확산했다. 오염물질은 아마존 강과 숲으로 흘러들었고 비가 되어 인간과 동물을 병들게 했다.

“아이들이라도 오염된 아마존을 떠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지난 30년간 기업이 유해한 성분을 차단할 충분한 기술이 있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폐기물 무단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원주민에게 배상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보상을 받고 떠나자는 의견이 대립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만 챙기고 원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뒤로한 채 에콰도르를 떠났다.

아마존왓치 등 환경단체와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과 기업의 법정 다툼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에더 족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해 더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아마존 숲이 파괴돼 저희가 겪는 고통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당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2013. 09.05.

광주환경연합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을"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4일 "문화재청의 광주호 독높이기 반대 입장을 환영하는 한편 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호 독높이기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불허하고 있다"며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형사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문화재청의 판단과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의 취소를 초기부터 요구해 왔다"며 "물부족 문제 해결·홍수예방을 위해 독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위를 상승시킨 결과로 우수한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2013. 10. 9

광주환경연, 19일 영산강 정화활동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진행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황룡강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을 둘러보면서 정화활동을 펼치는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황룡강 임동교에서 출발, 송산유원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쓰레기 청소 등 정화활동을 펼치고 영산강 주변에서 자라는 유해 식물 현황 등도 살펴본다.

광주·전남 고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누리집 (http://gjkfem.or.kr)과 전화(062-514-247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 /박정렬기자 halo@kwangju

2013. 10.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남도, 나주시도 책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졸속과 편법으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조사와 대책 마련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에당초 불가능한 사업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산강에서도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및 시굴조사, 수중조사 등 당연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준설과 제방공사 등의 공사가 끝난 뒤에야 유물산포지 입회조사를 하는 등 절차법을 어기고 문화재 대책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를 살리고 복원하는 사업'이라는 정부의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찬동했다"며 "문화유산과 생태계를 파괴한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2

광주 시민단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22일 방사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광주시의원 전원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또한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 학교가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를 해야 하며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방사성 물질은 정부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환경연합 광주천 지킴이들 사진전 개최

광주환경연합 광주천 지킴이들 사진전 개최

'바람길로 흐르다' 1~8일 남광주역 푸른길 공원에서

강경남 kkn@gjdream.com 2013. 11. 01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모임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이 2013 광주천 사진전 '바람길로 흐르다' 를 개최한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구 남광주역 푸른길 공원 기차에서 사진전 기념식이 열리며, 전시는 11월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모임인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의 회원들이 지난 1년간 진행했던 광주천 가꾸기 활동을 통해 준비했다. 사진전에서는 광주천의 사계와 광주천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사진 등 31점의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은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더 광주천을 사랑하고 친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소모임으로서 도시하천, 습지·강살리기 활동과 더불어 광주천 정화활동과 생태모니터링을 통해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누리집(<http://gjkfem.or.kr>) 및 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장 홍기혁 010-2603-7424)로 문의 가능하다.

2013. 11. 27

광주 기후대기 개선과제 토론회 가져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푸른광주21협의회는 27일 치평동 광주NGO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주 기후대기 개선과제와 방향'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승식 전남대 교수와 양철수 광주발전연구원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광주의 미세먼지 현황과 관리대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부분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준명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과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박상은 광주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등은 지정토론을 벌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2013. 12. 06

광주 교차로 NO2<이산화질소>농도 공단보다 높아

자동차 매연 등 교통량과 상관관계
광주 전체 대기중 NO2농도는 양호

중국발(發) 스모그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교차로 주변의 대기중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24시간씩)에 걸쳐 광주 5개 자치구 내 간선도로(교차로 포함)·이면도로·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시장 등 주요 지점 165곳에 대한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 지점 중 교차로 주변 일평균 이산화질소 농도가 27.8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시장·상가 주변이 27.4ppb, 공공기관 20.8ppb, 아

파트 20.4ppb, 학교 19.1ppb, 주택가 17.2ppb, 공단 주변 17.1ppb, 공원녹지 15.7ppb 순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한 지점은 전남대 사거리(58.7ppb)였다. 이어 양동시장 주변 57.3ppb, 서방시장 주변 43.4ppb, 두암동 모 대형마트 주변 40.9ppb, 금호동 사거리 39.8ppb, 중심사 입구역 38.8ppb, 쌍촌역 사거리 38.5ppb 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교차로 주변의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학교, 주택가, 공단, 시장·상가, 공원, 관공서 순이었다.

이처럼 교차로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것은 일반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통행량에다 정체시 배출량의 확산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통량 급증에 따른 자동차 매연 발생이 이산화질소 농도를 높인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조사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공단 주변 농도가 낮은 이유는 광주 외곽 지역에 위치해 확산이 빠르는데다 차량 통행량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6.4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남구 26.2ppb, 북구 23.5ppb, 광산구 18.1ppb, 동구 17.6ppb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일평균)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주의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24시간 기준으로 60ppb이상인 구간이 단 한 곳도 없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 및 정차중 공회전을 줄이는 등의 에코 드라이빙 확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이산화질소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30ppb 이하, 일평균 60ppb 이하, 시간평균 100ppb 이하로 명시돼 있다.

박수진 기자 sjpark1@jnilbo.com

광주환경연합 “정부, 원전확대계획 철회해야” “국가에너지계획에 여론 수렴, 검증 절차 부족해”

이호형 gmd@gjdream.com
2013. 12. 11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원전 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 “정부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원전 설비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취해온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핵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승계하고, 앞으로 원전 비즈니스에 팔 걷고 나서는 행보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가 증가하니 명확한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비중이 29%가 돼야한다는 것은 수요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니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비중 29%에 대한 검증도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인데, 이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국민과 지역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비민주적인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하고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탈핵을 지향하고 있다”며 “핵에너지 확대가 야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방사능 위험과 특하면 꺼지는 핵발전소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형 기자 gmd@gjdream.com

2013. 12. 19

호남무등산국립공원 승격 등 2013년 광주전남환경 10대 뉴스 발표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등 좋은 소식도 있지만, 한빛원전 사고·비리, 영산강 녹조 발생,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등 굵은 일도 포함됐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5·6호기 등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올해도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서류조작, 원자로 정지 등으로 10대 뉴스에 들었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가 들어선 후, 심한 녹조가 발생했고, 여수산단의 잇단 안전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그나마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4월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440만명이 찾아 가능성을 보여줬고,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광양시와 의회가 8만여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는 것도 평가됐다.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목포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2020년 시행하는 공원일몰제 대비 요구, 광주 북부순환도로 한세봉 관통계획 철회 등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2013. 12. 24

광주에너지시민연대, 동계 절전 캠페인



24일 오후 12시 광주광역시동구 옛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광주에너지시민연대가 '절전으로 그린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는 주제의 동계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연대는 이날 시민들에게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력피크타임 전열기 사용 줄기, 온(溫) 맵시로 겨울나기 등을 홍보했다. 또 절전 실천사항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시민에게는 수면양말을 증정했다.

광주에너지시민연대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에코바이크,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제 2조(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3. 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4.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5.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6. 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7.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자격)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의무)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8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 회

제 9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1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3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 제정 및 개정
-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3.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 4.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 5.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4장 조직

제 14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 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①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연구소 이 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18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19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

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2.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사무처)

-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28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31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 1993년 4월 29일 제정
-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북동신협 3층)

T. 062) 514-2470 F. 062) 525-4294